금주의 법구-〈보리행경〉
듣고 사유하고 관찰하라
그릇에서 물이 새면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월 1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35호 2017년 2월 15일 수요일

포교사 응시 급감, 사라지는 포교인력

[진단] 포교사 제도, 이대로 좋은가 上

한국불교 포교의 중요 인력으로 평가돼 온 포교사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년 시행되는 포교사 고시 응시자가 급감한데 이어 포교사 인원 증가폭도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포교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매년 급감하는 포교사 응시자

사회 각 분야에서 포교를 담당하는 포교사는 1996년 제1회 포교사 고시를 시작으로 제도화된 이후 포교의 핵심역할을 맡고 있다. 포교원이 발간한 '2016년 포교현황' 자료집에 따르면 현재 4,809명의 포교사들이 군포교 · 교정교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사단(사단장 윤기중)은 최근 제22회 포교사 고시 응시자가 60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년 전인 2015년 제20회 고시 응시자 1,002명에 비해 40% 가량이 감소한 것이다. 포교사 고시 응시자는 2015년까지 매년 평균 900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752명으로 25%가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20% 가까이 감소했다.

응시자 감소는 전체 포교사 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70% 안팎인 포교사 자격 갱신률에도 포교사단 단원은 2011년 이후 200~300여명씩 증가해왔지만 2016년에는 35명 증가에 그쳤다. 응시자 감소에 따라 올해를 기점으로 포교사 수도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 유력하다.

포교사 응시자 감소에 대해 포교사단은 "불교대학 수강생 감소 등 불자인구의 전반적인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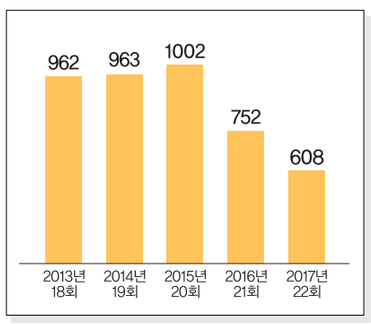
불교대학 졸업자 응시율 감소

불교대학 졸업은 포교사가 되기 위한 첫 관문이다. 그렇기에 불교대학 졸업자 수는 포교사 응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포교사단 측의 분석과 같이 각 사찰의 불교대학 졸업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불교대학 졸업자 수는 2012년 5,700명을 기점으로 2013년 5,435명, 2014년 4,850명, 2015년 4,357명으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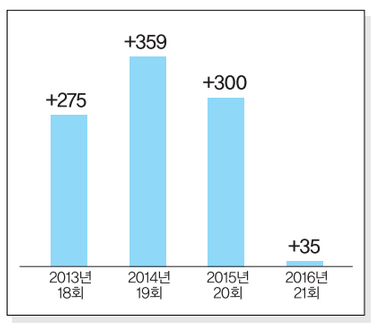
하지만, 불교대학 졸업자들의 감소에 비해 포교사 고시 응시자 감소폭이 더 크다. 불교대학 졸업자의 포교사 고시 응시율은 2011년 16회 고시까지 평균 20~22%로 유지됐다. 하지만 2012~2014년 17~18%선으로 하락했다. 졸업자 수가 대폭 감소한 2015년 20회 고시서 20%로 소폭 올랐지만 2016년 21회 고시에서 17%선 밑으로 다시 떨어졌다.

현재 2016년 불교대학 졸업자 수가 2015년 불교대학 졸업자 수와 비슷하다는 포교원 측 집계가 이뤄지고 있어 응시자가 적은 올해 제22회 포교사 고시의 응시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교사 고시 응시자 현황 (단위:명)



포교사 증감 현황 (단위:명)



3년간 고시 응시자 40% 감소
포교사 인원 증가폭도 둔화돼
일선 사찰들 고시 응시 미권장
재정부담 · 활용 미비 감소 원인

봉사자 인식 개선, 활용법 화두
포교사 "지원 없이 원력 의존"
관리 다변화 대안 제시도 나와

외부 포교 VS 사찰 內 활동

그렇다면 불교대학 졸업자들이 포교사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각 불교대학 실무자들은 예상 밖의 대답을 내놨다. 사찰에서 포교사 활동을 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주불교대학장 해운 스님은 "작은 사찰은 사찰에서 활동할 사람 한 명이 소중하다. 포교사가 되면 외부 포교에 집중한다. 공들여 불교교육을 하여도 '포교사단' 이름으로 활동하니 불만이 많다. 스님들이 권하질 않으니 자연스럽게 줄고 있다"고 털어놨다. 스님은 "포교의 중요성에 공감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찰에서는 포교사 외부 활동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규모가 작은 사찰뿐만 아니라 대형사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박미주 조계사 불교대학 사무관은 "조계사의 경우 만해도 포교사들이 서울지역단 활동을 많이 한다. 포교사팀이 구성돼 있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서울지역단에서 하고 있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에 포교사단은 사찰 활동을 하기 위해 지난해 상 · 하반기 보고서에 재적사찰 활동 내역도 포함시켰으며 향후 갱신평가에도 사찰 활동 내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원력 의존… 곱지않은 시선도

그렇다면 포교사들의 사찰에서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답일까. 포교원의 '2016년 포교현황' 자료집을 보면 현재 포교사 4,809명 중 사찰에서 활동 중인 포교사는 1,229명으로 전체의 25% 수준이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사찰 내 활동 외에 외부 포교활동도 중요하다"며 "사찰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포교분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교사들 중에도 사찰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지만 정작 사찰에서 원하는 역할은 봉사자에 국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포교법 제33조에는 사찰마다 스님을 보조해 포교할 수 있도록 포교사 1명을 두고 지원도 명시하고 있지만 이런 사찰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포교사들은 지원 없이 대부분 자비를 활용해 포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포교사는 "하나원에서 포교활동을 하는데, 공양물 등을 포교사들이 비용을 모아 준비하고 있다. 회비부터 각종 비용이 부담되지만 포교원력 하에 이어오고 있다. 사찰에 가면 사중 활동에 적극 참여를 못하니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불교대학을 운영하는 황미숙 밀양 용궁사 총무과장은 "예전과 달리 불교대학 학생들도 수업을 겨우 이수하는 실정"이라며 "많은 졸업생들이 재정과 시간적인 어려움에서 포교사 응시를 하지 않고, 포교사를 하더라도 낮은 인식 등에 장벽을 느껴 갱신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소통의 고리 다시 이어야

이에 근본적으로는 포교사에 대한 불교계 인식을 제고시키고 포교사들의 활동영역과 내용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주 용화사는 포교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찰 내 활동도 이끌고 있다. 신도회 산하에 포교사회를 두고 사찰운영회의에 참여토록 한 것이다.

문애자 용화사 교무과장은 "포교사들이 사찰 운영에 참여하니 자연스럽게 사찰의 대소사에 동참하게 된다. 불교대학 교육과 각종 법회에 포교사들이 〈천수경〉 독경을 주도해 신도들에게 포교사를 알리고 있으며 외부 포교활동에 대한 인식도 제고된다"며 "소통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출범한 지 20년이 넘은 포교사 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현재는 스님과 포교사, 신도회와 포교사 간 유대관계가 끊기고 골이 깊어지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부 사찰서 스님과 포교사가 갈등이 있거나, 신도와 포교사 간 마찰이 있기도 하다. 그 결과 사찰 인근에 포교사들이 따로 불교대학을 세우기도 한다"며 "사찰과 신행이 밑바탕에 있지 않으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 포교사단 중심인 포교사 관리를 교구본사로 이양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말했다.

조현우 포교원 행정관은 "현재 불교대학 학장회의와 본사 포교국장 회의를 비롯해 포교사단과 지속 대화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년 가까이 포교사 활동을 해온 박종화 조계사 포교팀 본부장은 "포교사 지원자가 급격히 줄어든다면 선발되는 포교사들의 자질도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포교사는 포교를 통해 불교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식 하에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 철 잘 머물다 갑니다" 석 달간의 동안거가 끝났다. 첩첩산중 선방에 방부를 들이고 화두참구에 몰두한 스님들은 머문 자리를 정리하고 산문 밖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떠나는 이와 배웅하는 이, 구분되는 듯하지만 진리를 향한 구도행은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 똑 닮았다. 사진은 비구니도량인 울산 석남사 선원서 안거를 마친 스님과 사중스님이 작별인사를 나누는 모습. 글 · 사진=윤호섭 기자

"오직 大悟見性만 생각하라"

전국 100여 선원, 2월 11일 동안거 해제

칼바람에 맞서 긴긴 겨울 화두참구에 나섰던 수좌 스님들이 2월 11일 동안거 해제를 맞아 산문(山門)을 나섰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병신년 동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96개 선원(총림 8 · 비구선원 56 · 비구니선원 32)서 총 2,063명(총림 283 · 비구1,093 · 비구니 687)의 대중이 용맹 정진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동안거 해제를 맞아 법어를 통해 "마음을 깨달으면 진리가 그 가운데 다 있으니, 삼보(三寶)가 하나이고, 하나가 삼보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마음, 바로 이것을 깨달아 알 때에 팔만사천 진리가 사람 사람의 마음속에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며 "다시 마음을 다잡아 부처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시주자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발심(發心)하고 발심하여 정진의 고삐를 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종정 및 총림방장 법어 A6면〉

특별기고 · 정휴 스님의 백담사 무문관 '是甚 日記' A7면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86권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81권 중 9권 출간

출간 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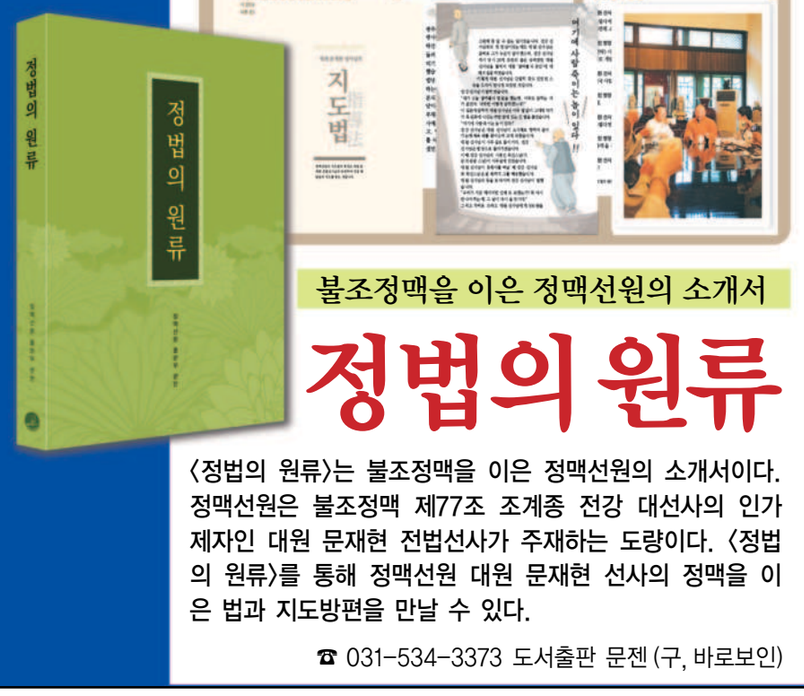
모연문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 정법의 원류 책 내용 일부



불조정맥을 이은 정맥선원의 소개서

정법의 원류

〈정법의 원류〉는 불조정맥을 이은 정맥선원의 소개서이다. 정맥선원은 불조정맥 제77조 조계종 전강 대선사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가 주재하는 도량이다. 〈정법의 원류〉를 통해 정맥선원 대원 문재현 선사의 정맥을 이은 법과 지도방편을 만날 수 있다.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총무원장 선거제, 통합적 논의하자”

조계종 직선제 특위, 선거대안 마련 초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정 방안인 직선제와 염화미소법 등에 대한 통합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 직선제 특위(위원장 덕조, 이하 직선제 특위)는 2월 7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직선제뿐만 아니라 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선제 특위의 역할과 당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특위 위원 현민 스님은 “직선제 논의에 대한 종도들의 기대 심리는 높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며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 끌기로만 대중에게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광 스님도 “현재 총무원장 선출제도는 직선제뿐만 아니라 염화미소법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위를 발전적 해체하고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근본 문제와 대안을 논의 ·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법안 이월을 이유로 특위를 해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정을 올해 반영에 목표를 두지 않고 장기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직선제 특위는 장시간 논의 끝에 직선제, 염화미소법, 간선제 확대 등을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염화미소법을 발의한 특위와도 연석회의를 열고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아갈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수덕사, 정혜사 소유권 말소 이행하라”

高法, 부제소합의 불인정… 수덕사 “대법 상고”

수덕사의 정혜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수덕사 측이 대법원 상고할 예정이어서 최종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는 2월 3일 정혜사(분원장 법인, 선학원 이사장)가 수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항소심서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달 법원은 “정혜사 지분을 절반씩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수덕사 측에서 이의신청했다.

법원은 선학원 측이 과거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던 중 정혜사 재산관리인이었던 석청 스님과 수덕사 간 이뤄진 ‘부제소합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선학원이 임명한 석청 스님은 정혜사 토지가 수덕사 소유임을 인정하는 합의서를 2015년 수덕사 측과 작성하고,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합의에 대해 석청 스님이 수덕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고, 수덕사 역시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에 효력이 없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1981년 설정 스님이 수덕사 주지 시절,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정혜사제7교구본사수덕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해 “각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사찰인 원고와 피고의 명칭을 합쳐놓은 것으로 보일 뿐, 실재하지 않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고법 판결에 1심서 승소했던 수덕사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수덕사 관계자는 “1심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어서 황당하다.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은퇴출가 제도 마련 공청회 열린다

2월 15일 출가제도특위 주최

출가자 감소 대안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은퇴출가에 대한 의미와 은퇴출가자의 지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는 2월 15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은퇴출가 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은퇴출가 제도의 의의 및 은퇴출가자의 지위와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 스님이 ‘은퇴자 출가 제도 마련을 위한 제안’을 주제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이 나선다. **신성민 기자**

불교·가톨릭, 학문 통한 교류 나선다

동국대 · 안젤리쿰대, 2월 7일 MOU 체결



스테판 주릭 안젤리쿰대 신학대학장 등 안젤리쿰대학 관계자들은 동국대와의 자매결연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사진 왼쪽은 협약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합장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 오른쪽은 2월 7일 열린 동국대와의 협약 체결 모습.

불교와 가톨릭 종립대학이 비교 종교 연구와 종교간 대화를 위한 교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동국대(총장 보광)와 안젤리쿰대학은 2월 7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안젤리쿰대학 스테판 주릭 신학대학장, 미켈 푸스 신부 등과 ‘학술교류 및 연구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동국대와 안젤리쿰대학은 불교와 가톨릭 종교 간 비교연구를 발전시키고, 활발한 대화와 교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동국대 불교대학과 안젤리쿰 신학대학 교원 · 연구원 간 학술교류 및 연구지원, 동국대 국제 여름 학교(International Summer School) 종교 간 대화 강좌 개설 및 학생교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원 · 연구원 학술 교류 본격화
올 여름 ‘종교 대화’ 강좌 개설
불교 · 가톨릭 비교 연구도 추진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불교와 가톨릭의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두 대학이 학생과 교원 등의 학술 교류를 위한 협정을 맺은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두 대학이 협력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종교 간 교류 및 활성화에 기여할 우수인력을 배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두 대학과 두 종교의 화합과 협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스테판 주릭 안젤리쿰대학 신학대학장은 “오늘 두 대학의 상호협력에 대한 협약을 통해 연구 교류와 정기적 회의 · 심포지엄 · 논문 정보 공유 등의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 같은 학문적 교류는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릭 학장은 조계종 예방에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서도 “불교를 비롯한 여러 동양종교에 대한 연구 폭을 넓히려 한다. 따라서 동국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이 알아갈 예정”이라고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업무협약 후, 동국대 정각원에서 미켈 푸스 신부의 “가톨릭 교회와 불교 간 대화 : 평화를 위한 대화의 방식과 태도” 특강이 이어졌다.

푸스 신부는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 때문에 타인이 믿는 종교의 가치를 상호 인정해야 한다. 종교 간 대화의 근원은 인간이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나가야 인류의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젤리쿰대학 관계자들은 6일 조계종을 예방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환담을 나누고, 8~9일 이틀간 해인사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와 불국사, 석굴암 등을 방문했다.

한편 안젤리쿰대학은 1222년 도미니칸회 신부들이 건립한 교황청 종립대학으로 가톨릭 지도자 양성 교육기관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 전 세계 150여 명의 가톨릭 최고 지도자를 배출했으며, 5명이 가톨릭 성인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차GBC’ 관련 뇌물수수 의혹 수사 촉구

봉은사대책위, 2월 3일 특검에 입장문 전달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고삐를 바짝 당긴 가운데 조계종이 ‘현대자동차 신사옥 조기착공 지원 대가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에 재차 수사를 촉구했다.

조계종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원회(위원장 원명, 봉은사 주지)는 2월 3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기자회견에는 원명 스님을 비롯한 봉은사 스님과 신도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원명 스님과 이원표 신도회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특검 사무실을 방문,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서 “최순실 재단에 대한 정몽구 회장의 200억 원 헌납이 현대자동차 신사옥(GBC) 개발 조기착공 대가였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대가성 뇌물수수를 통한 재벌특혜의 전형으로 진행되는 현대차 신사옥 초고층 개발은 졸속행정 아래 일사천리로 강행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어 “한전부지가 봉은사에 환수되지 않고 현대자동차에 매각된 배경에는 정권과 재벌의 유착이라는 비리가 있다. 2013년 6월 현대자동차 베이징 공장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몽구 회장이 만난 이후 2014년 9월 감정평가금액이 3조3천억 원이었던 한전부지를 현대자동차에서 10조5천억 원이라는 상식을 벗어난 금액으로 매입했다”며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1월 ‘한전부지 개발 조기착공 지원’을 발표하고, 현대자동차에서 한전부지를 등기이전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105층 569m, 연면적 28만평의 초고층 초대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히 △한전부지를 포함한 10만평 토지를 1970년 박정희 정권 정치자금 마련 목적으로 불법 강탈당한 점 △한전부지 원소유자로서 환매를 요구했으나 묵살 당한 점 등을 내세워 특검이 조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봉은사대책위원장 원명 스님이 특검사무실 앞에서 현대차 GBC관련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현대자동차와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연구결과가 다르다는 질문에 원명 스님은 “공정한 기관에 맡겨 제대로 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견해를 밝혔다.

강남구가 2월 2일부터 내달 3일까지 현대자동차 신사옥 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설명회에 참석해 문제제기할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서명운동 1차 집계 결과 6~7만 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앞으로 전문가 분석작업을 통해 초고층 난개발의 문제점과 대책위 활동의 당위성 등을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자회견서는 태극기를 든 한 남성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과 특검 해산을 촉구하며 대책위 옆에서 고성을 질러 대책위 측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대원불교문화대학 2017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

대 학 2년 4학기

■ 모집학과

◐ 불교심리상담학과 (주간 • 야간 / 수 • 금요일)

통합적상담방법론/심리검사 및 평가/자아초월과 심리치료/상담과 철학/성격심리학/집단상담Ⅰ/유식심리학/철학과 심리/동 · 서양 철학의 행복론/불교심리학/상담심리학/발달심리학/긍정심리학/신체심리치료 등

◐ 명상학과 (주간 • 야간 / 수 • 목요일)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뇌, 불교수행 그리고 인식/불교수행과 실습/비교명상의 이해/동 · 서양철학의 행복론/불교심리리학/명상과 치유/불교명상학/불교와 마음치료/삶과 죽음의 철학/자아초월과 심리치료/상담과 철학 등

■ 입학자격 : 정규 고등학교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 이상을 이수한 분

■ 강의시간 :
· 주간 : 제1교시 14:00 ~ 15:30 / 제2교시 15:40 ~ 17:10
· 야간 : 제1교시 19:00 ~ 20:30 / 제2교시 20:40 ~ 22:10

■ 수업료 : 300,000원(학기당)

대학원 2년 4학기

■ 모집학과

◐ 불교심리상담학과(야간 / 수 • 목요일)

MBSR · 수용전념치료(ACT)/개인상담 사례연구 및 실습/자아초월과 심리치료/상담과 철학/집단상담Ⅱ/부부 및 가족상담/유식심리학/철학과 심리/동 · 서양철학의 행복론/불교심리학/상담심리치료/정신병리학/개인상담 실습 및 슈퍼비젼/뇌과학과 심리치료/삶과 죽음의 철학 등

■ 입학자격 :
· 본 대학 또는 불교교양대학 불교심리상담 과정을 이수한 분
· 정규대학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 이상에서 상담 관련학 전공으로 졸업(예정)한 분

■ 강의시간 :
· 야간 : 제1교시 19:00 ~ 20:30 / 제2교시 20:40 ~ 22:10

■ 수업료 : 400,000원(학기당)

특전 : · 장학혜택 : 성적 우수자, 근로장학생 외
· 수업료 할인혜택 : 스님. 가족(부부,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1인에 한해) 등록금의 50% 할인

원서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 홈페이지 : www.kbpf.org
◐ 전 화 : (02)707-1072
◐ 팩 스 : (02)3273-1618
◐ 우 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BBS불교방송) 3층 대원불교문화대학

■ 접수 및 전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www.kbpf.org 양식 다운)
◐ 전형방법 : 서류전형(심사 후 개별통보)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7년 2월 28일까지
◐ 개 강 : 2017년 3월 8일(수)
(주간 : 오후 2시, 야간 : 오후 7시)

■ 오시는 길 및 문의
◐ 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 문의 :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 (02)707-1072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禪문화 정수 살아 숨 쉴 교육관 '첫 삽'

범어사, 2월 5일 선문화교육관 건립 착공식 봉행





2018년 12월 완공 예정인 범어사 선문화교육원 조감도(사진 왼쪽). 오른쪽은 2월 5일 범어사 스님과 내빈들이 착공식서 시삽하는 모습.

전통사찰의 문화 콘텐츠를 알리고 선(禪) 문화의 정수가 살아 숨 쉴 공간이 지어진다.

금정총림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2월 5일 부산 금정구 청룡동 480번지 일원(상마마을 사자암 입구)인 선문화교육관 공사 부지에서 선문화교육관 착공식을 봉행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범어사는 불심도시인 부산을 대표하는 선찰대본산이자 화엄종찰이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해 30년 전부터 선문화교육관 불사의 필요성을 느껴 숙원으로 간직해왔다.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기공식을 진행해 무한히 기쁘다"며 "내년에 완공되면 범어사를 찾는 부산불자들과 대중들에게 불심을 심어주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선문화교육관과 더불어 찬란한 불교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박물관도 함께 지어진다면 더 큰 문화공간으로 회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향후 바람도 전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선문화교육관은

선문화불교관 · 선문화체험관 2동

자연과 조화이루는 전통한옥형

2018년 12월 완공 목표로 진행

출 · 재가 500여명, 원만 불사 발원

"불심 키우는 선문화 공간되길"

범어사를 넘어 부산 시민과 세계인에게 전통문화를 전달하고 부처님의 뜻을 체험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교육관은 부산불교의 숙원이자 전국 불자들의 숙원일 것"이라고 축하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교육관을 통해 맑고 밝은 선 문화가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길 바란다. 또한 학생들의 심성에도 도움 되는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전통문화의 계승지로서 일반인들에게 선의 세계를 선보이고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도 평안 주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문화교육관은 선문화불교관과 선문화체험관 총 2동으로 건립되며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2981.27㎡ 크기다. 총 높이가 13.55m인 저층구조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 한옥형이다. 선문화교육관은 2014년 12월 전통문화사업체험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됐으며 201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착공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 스님, 법륜사 회주 선래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흥선 스님 및 서병수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허영범 부산지방경찰청장, 원정희 금정구청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문화재 감리 · 기능자 경력관리 기준 마련

문화재청, 법률 시행령 개정

문화재 수리 복원에 있어서 책임 감리와 기능인들의 경력관리제도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마련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2월 4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2월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책임감리제도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 새로 도입한 제도들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책임감리 대상은 지정문화재 수리로써 수리 예정 금액이 30억 원 이상이거나 지정문화재 주변정비로써 수리 예정금액이 50억 원인 경우이다. 책임 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은 수리 기간동안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 등 신고서에 문화재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재무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학캠퍼스 연계, 생명나눔 의식 확산"

생명나눔실천본부, 2월 6일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홍보위원회를 구축하고 전국 대학교와 연계해 적극적인 캠퍼스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 사진, 이하 생명나눔)는 2월 6일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의실서 신년사업 계획 공유를 위한 '2017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장기기증 · 조혈모세포 희망등록과 생명나눔 인식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올해 처음 홍보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 단계부터 전문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한단 계획이다. 이에 홍보위원회는 늦어도 올해 3월 말 출범 예정이며, 법조계 · 스포츠계 · 기업가 · IT전문가 · 후원자 등 7~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최상균 생명나눔 사무총장은 "지난해 5,000명을 목표로 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인원이 3,600명으로 마무리됐다. 이는 기존 인력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관리에 집중하는 데 그쳐 홍보가 미약했다는 자체 분석이 있었다"며 "이에 홍보 전문가들을 구성하고 행사 · 캠페인에 앞서 홍보 전략을 세워 행사의 파급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활동 외에 전국 대학교 동아리와 연계해 캠퍼스 내 캠페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눈에 띈다. 지난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한 인원 총 3,530명 중 8개 대학교 희망등록 활성화 캠페인 현장 등서 동참한 인원이 1,719명으로 다수를 차지할 만큼 호응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대학생들은 장기기증이나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만 일단 제대로 정보를 얻고 나면 기증 동참률이 매우 높다"며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전남까지 올해 20개 대학과 MOU를 맺고 봉사동아리 위주로 활발한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매체에 익숙한 젊은층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온라인 · SNS 홍보 역량을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이승희 기자

불교복지 백년대계 수립 'START'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복지백년 발전위원회' 출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왼쪽 7번째)과 발전위원회 위원들.

불교사회복지 미래를 계획할 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불교사회복지 미래를 계획하는 '복지백년 발전위원회 출범 및 위촉식'을 진행하고 향후 2년간 활동 시작을 알렸다. 지난 1월 24일 조계종복지재단이 신년 계획으로 발표한 복지백년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를 출범한 것.

발전위원회는 향후 △미래지향적 불교복지 발전 전략 수립 △발전 동력 확보 위한 인적 · 물적 자원 연계 △불교복지중앙센터 건립 방안 논의 △표준화된 복지모델 개발 및 운영 시스템 구축 △관련 학술 · 연구 · 조사 및 자문 등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함결 스님을 비롯, 추천을 통해 △성행 스님(사단법인 동련 이사장) △호산 스님(중앙종회 사무처장) △화평 스님(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 시설장협의

총 16명, 복지발전전략 연구

표준 복지모델 개발 · 운영안 등

회장) △성화 스님(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 △법원 스님(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일운 스님(황송노인종합복지관장) △희유 스님(서울노인복지센터장) △정관 스님(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이용권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조석영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 △공상길 신길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운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장 △홍송이 동국대학교 불교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영식 前 해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최종환 조계종복지재단 사무국장 등 16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장 함결 스님은 "불교사회복지가 포교 활성화를 이끄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겠다"며 "발전위원들과 함께 현장과 학계 · 불교계의 긴밀한 소통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복지인프라를 발전시켜 불교복지취지에 맞는 좋은 정책들이 실현되길 바란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복지인들의 열정이 전파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만해 정신과 사상 문학으로 기린다

3월 1일, 제38회 만해백일장

불교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는 백일장 대회가 열린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성권)는 3월 1일 오전 10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38회 전국만해백일장 대회를 개최한다.

만해백일장은 국내 최다 참가자를 자랑하는 단일 백일장이다. 만세운동 98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국 만해백일장에는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월 6~12일까지 대불청 홈페이지(www.kyba.org) 사전접수가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현장접수도 이어진다. 현장접수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분야는 시와 시조, 산문으로 만해대상에는 상금 100만원과 대통령상이, 만해상에는 50만원 상금과 국회의장상이 수여된다. 각 부문 장원과 우수상 등도 시상된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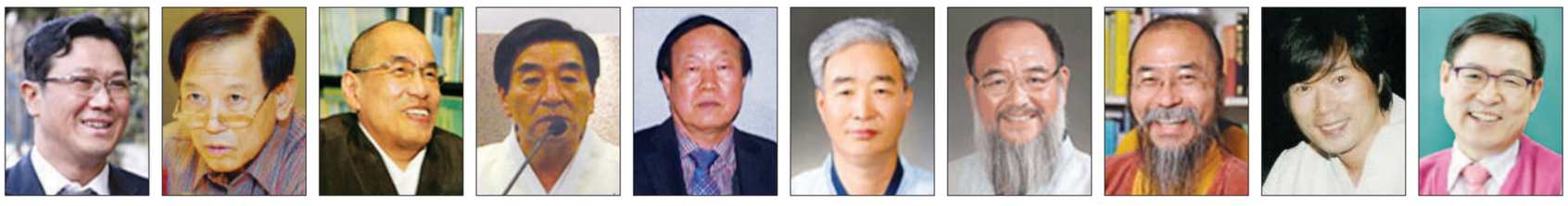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4기 모집



석하 소재학 박사 / 동양 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명리학자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주임교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글로벌융합인재포럼 회장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원장, 동양미래예측연구소장
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자문위원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 Earist University 학장 역임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최고 교수진!!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원우회와 동문회 활동 등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자신의 학문에 대한 현위치 파악 및 역학계 위상정립!! 더 이상 스승 찾아 헤멜 필요 없습니다.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박청화교수, 꼴관상 신기원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백민교수, 정창근교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이상광교수, 박성희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정경연교수, 신석우박사, 내정법 김인순박사, 명리학과 한의학의 만남 김민재박사, 박용남교수, 샤머니즘박물관장 양종승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가수 김태곤박사, 최면 NLP상담기법 설기문교수, 멘탈리스트 이진규소장 외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2월23일~6월 22일, 매주 목(木)18:40~21:30/수료 후 2학기 심화과정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3월 2일(목) 17:30~ 공개강좌 2월 23일 (목) 18:30 등록금 240만원
홈페이지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www.gfca.kr/
다음카페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http://cafe.daum.net/fca2
심화과정 FCA현대사주학석하명리 최고지도자과정 (원리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장소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www.gfca.kr ※문의 : 02-3443-4984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

일 주 문



선림원 11기 수행자 모집

지현 서울 조계사 주지 스님은 2월 28일까지 선림원 봄학기 11기 수행자를 모집한다. (02)768-8525



예불련 제3회 호국불교포럼

박정이 예비역불자연합회 회장은 2월 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제3회 호국불교포럼을 개최했다. 4차 포럼은 4월 중 열린다.

청와대 불자회장에 허원제 정무수석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사진〉이 2월 3일 제19대 청와대 불자회장에 선임됐다. 허원제 불자회장은 국제신문 · 경향신문 · KBS · SBS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18대 국회의원으로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돈관 스님, 은해사 주지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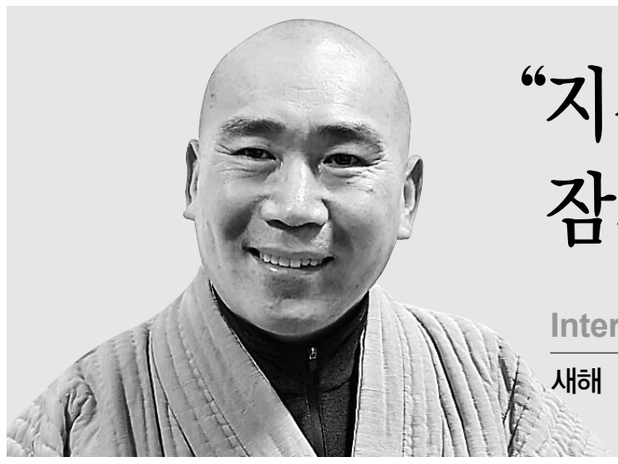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돈관 스님을 은해사 주지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돈관 스님은 일타 스님을 은사로 1978년 수계(사미계)했다. 하양포교당, 환성사, 불광사 주지와 제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2008년부터 은해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각평 스님, '아이연탄맨' 100만원 기부



장안사 주지 각평 스님은 2월 6일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100만원을 기부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연탄을 선물하는 아이연탄맨 활동에 동참했다. 한편 심택사 주지 효탄 스님은 아름다운동행에 성역화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승희 기자**



"지친 그 마음, 잠시 맡아 드립니다"

Interview

새해 '마음보관소' 운영하는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국민힐링멘토 마가 스님이 새해 현대인들의 마음치유를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물품을 맡기는 서울역 등의 물품보관소와 같이 마음을 잠시 맡길 수 있는 '마음보관소'가 바로 그것이다.

스님은 3월 23~26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7서울국제불교박람회를 통해 '마음보관소'를 대중에 처음 선보인다. '마음보관소'는 작은 유리병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쪽지를 넣고 봉인, 타임캡슐과 같은 형태로 법당에 보관하는 것이다. 보관한 쪽지는 스님들이 읽고 이에 맞는 마음상담도 진행한다.

스님은 "그동안 불교계에 소원을 적는 소원지는 있었지만, 고통스럽거나 행복한 마음을 적어 보관하고, 읽어 볼 수 있는 것은 없었다. 현대인들이 마음을 잠시나마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란 생각에 마음보관소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님에 따르면 고통은 고통스러워 하는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지난 시절의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여기에 보관소를 운영하는 스님들이 1:1 맞춤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상담효과도 배가된다는 것이다. 마음보관소는 일차적으로 스님이 창건한 안성 굴암사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후 복지관 등 다양한 시설에 설치가 추진된다.

고민 · 행복감 적은 쪽지 보관
스님이 읽고 개인상담도 진행
어린이명상 · 부모교육

스님은 이날 불자 인구 300만 감소라는 통계청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며 '마음보관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특히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다가가는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종립 초등학교만 해도 1군데에 불과할 정도로 그동안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은 미약했다. 지금부터라도 태교부터 유치원, 중고등학교, 대학교, 결혼, 부모, 직장인 등 각 분야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님이 운영하는 자비명상은 △방과 후 어린이명상지도자 과정 △부모교육 지도자 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해 진행한다.

'방과 후 어린이명상지도자 과정'은 각급 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명상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명상을 통한 감정조절과 정서적 안정 및 심신치유를 위한 교육이 이뤄진다. 4월 6일 개강하며, 유승윤 교수가 진행한다.

'부모교육 지도자 과정'은 부모와 자녀의 대화법을 비롯해 부모의 분노조절 및 자녀 발달과정 이해 등의 교육이 이뤄진다. 4월 7일 개강하며, 최원녕 교수가 진행한다. 각각 동국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가 진행된다.

이밖에 △마인드힐링지도사 △인성교육지도사 △자비명상지도자 △마인드힐링 · 명상 전문교육과정 등 기존 자비명상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된다. 또 스님들을 위한 개인상담도 3월 13일 안성 굴암사에서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오늘 배움이 평생의 힘이 되길"

서울불학승가대학원, 8일 마지막 졸업식



조계종 교육원 부설 서울불학승가대학원(원장 지안)이 2월 8일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보현실에서 제7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은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의 마지막 졸업식으로 7기 졸업 · 수료자 출 · 재가자 14명이 참석했다. 서울불학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은 "한순간에 터득한 힘이 평생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기도 한다. 2년 동안으로 공부가 포교와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2년 개근과 수업 우수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개근상인 정진상에는 담현 · 상륜 · 우견 · 정진 스님, 김진숙 씨가 교육원장 표창에는 대웅 스님이 각각 수상했다. **신성민 기자**

정우 스님, 네팔 유적 복원나서

엄홍길휴먼재단 불교사원 복원에 기금 전달



대지진 이후 파괴된 네팔 사찰 복원을 위해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이 나섰다.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홍법문화복지재단 이사장)은 2월 5일 구룡사 만불보전에서 엄홍길휴먼재단 측에 네팔 불교유적 복원 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네팔 지역은 지난 2015년 4월 대지진 이후 아직까지도 사찰과 학교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회를 앞두고 열린 기금 전달식에는 엄홍길 재단 상임이사가 직접 참석했다.

정우 스님은 "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네팔 국민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현지 스님들의 거처인 요사채가 조속히 복구되기를 발원한다"며 "나눔과 보시행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참된 불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인터넷 전법사' SNS전법단 떴다



사단법인 대한불교SNS전법단(이사장 엄재삼)은 2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사단법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SNS전법단은 지난 2015년 12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출범한 바 있다. 올해 초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150여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완비했다. 명예총재는 안홍준 前 국회의원이 추대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갑윤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재오 전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과 약수사 회주 화범 스님 등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노덕현 기자**

불우이웃 기금 '쾌척' 광동中



광동중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이 힘을 모아 취약계층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다.

광동중학교(교장 김석희)는 2월 2일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에 불이이웃을 위한 성금 135만원을 전달했다. 해당 성금 마련을 위해 지난해 8월 29일~11월 25일 기간 동안 학생들은 학생자치회의를 주축으로 모금활동 · 바자회를 개최했고, 교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았다.

일면 스님은 "불우이웃을 위해 정성껏 성금을 모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줘 감사하다. 성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환자 · 보호자 명상심리상담 지원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학회장 인경)는 2월 7일 성북웰니스요양병원서 병원 측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밝고 건강한 삶 실현'이라는 주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치료 및 간병과정서 겪을 수 있는 불안, 우울, 불면 등 심리적인 장애 극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우리사찰 문화강좌

日日是好日… 기타, 요가 등 '풍성'



조계사 불교대학 기타 강습에 참여한 불자들이 즐겁게 웃고 있다. 이제 사찰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니라 강좌가 가득한 문화중심지다.

시간은 빠르다. 월 화 수 목 금 이후 찾아오는 토 일. 주말 이틀은 빠르게 지나가고 다시 한주가 시작된다. 휴일이 되면 잠이나 TV시청으로 시간을 때우는 이들일 수록 주말 시간은 더욱 빨리 지나가기 마련이다. 주중도 마찬가지다. 생활에 어영부영 하다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간다.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보다 의미있게 보내고자 한다면 인근 사찰의 문화강좌를 찾아보자. 사찰음식 조리법부터 요가, 불화 및 단청 그리기, 연등 제작, 기타 및 사진촬영 강습 등 일반사회에서도 찾기 힘든 다양한 강좌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이 전문강사를 초빙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사찰에서 진행되는 만큼 외부 문화센터 등에 비해 가격 또한 저렴하다. 대부분의 강좌는 무료수강부터 10만원까지 부담없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제 사찰에 기도만 하러 간다는 고정관념은 버리자. 다양한 문화강좌가 운영되는 사찰로 가보자. 혹시 모르지 않는가? 문화강좌에서 평생의 도반을 만날지?

가장 먼저 한국불교 1번지를 자처하는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사마천의 〈사기〉를 주제로 인문학 강좌를 마련했다. 2월 10일 개강한 이후 3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총 8강이 진행된다. 고전인문학자인 우응순 씨가 강사로 나서 요순시대와 춘추오패, 제자백가 시대 등을 세밀하게 설명한다. 참가비는 10만원. 이와 함께 '몸과 마음의 수련 - 다도' 강좌가 수요일과 목요일, 명상요가가 월요일과 화요일, 커피 바리스타 교육이 목요일, 불화강좌가 수요일과 목요일, 장명스님에게 배우는 지화 강좌가 수요일 진행된다.

강남의 대표사찰인 **봉은사**(주지 원명)는 야생화LED수공예반이 인기다.

곽화숙 수공예연구소 대표가 진행하는 야생화LED수공예반은 LED와 크리스탈지를 활용해 야생화를 본뜬 조화를 만드는 공예 강좌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간씩 봉은사 교육관 펼쳐지며 참가비는 12만원이다. 이와 함께 매주 목요일에는 불화 강좌, 수요일에는 전통등 제작강좌가 열린다.

또 토요일에는 연화정사 정명 스님의 지도 하에 지화 만들기 강좌도 진행된다. (02)3218-4900

지역사찰 가운데 **수원 용주사**(주지 성월) 효행문화원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2시 30분 민화반을 운영하며,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다도명상을 하는 등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부산경남지역 불자들과 불교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지준)도 오는 3월부터 다양한 강좌를 운영한다. 5개월 과정의 드로잉소묘, 서각, 생활자수, 전통손누비, 전각 등 외에도 불교문화유적답사 등에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며 개강은 3월 2일이다. (055)384-0020

부산지역에서 참신한 포교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색소폰 강좌를 연다. 매주 월요일 한상헌 강사의 지도 하에 진행되는 색소폰 강좌는 직장인들을 고려해 오후 6시 30분 진행된다. 참가비는 4만원이다. 이밖에 깐따모레합창단, 사경반, 풀루트 교습 및 댄스 강좌 등도 함께 열린다.

노덕현 · 이승희 기자

지역	요일	내용	전화번호
서울 조계사	월	천연염색	(02)768-8600
	화	문인화	
	화	오카리나	
	수 · 목	다도	
	수	지화만들기	
	수	캘리그라피	
서울 봉은사	수	전통등 제작	(02)3218-4900
	목	불화 초급 교육	
	금	야생화 LED수공예	
	토	지화 교육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수 · 목 · 금	선재스님 사찰요리	(02)3411-8103
	화 · 금	혜성 스님 다도	
	화	민화	
	수	무애 스님 불화강좌	
	수	생활자수	
	목	보명 스님 꽃꽂이	
	목	요가	
	금	규방공예	
서울 길상사	화	서예	(02)3672-5945
	수	생활요가	
	금	꽃꽂이	
	금	초급 다도	
	금	불화	
서울 도선사	수	불교문화	(02)993-3161
	토	불화	
서울 개운사	일	독서토론회	(02)926-4069
서울 불광사	월 · 목	불광아카데미 참선입문반	(02)417-2551
	수	인문학강좌(프로이트)	

지역	요일	내용	전화번호
서울 국제선센터	수	참선입문반	(02)2650-2200
서울 진관사	목	산사음식 겨울특강	(02)388-7999
분당 대광사	매일	바리스타 교육	(031)715-3000
	일	인문학 특강	
안양 한마음선원	수	세무특강	(031)470-3100
	수	베란다서 방울토마토 키우기	
	수	대인관계 인문학 특강	
	목	생활한방	
	목	실버요가	
	금	EM특강	
	일	법률특강	
수원 용주사	월	만화반	(031)234-0040
예천 용문사	일	사찰음식 체험강좌	(054)655-1010
예산 수덕사	수	다도	(041)330-7700
양산 통도사	화	선다회	(055)382-7182
	수	단청반	
	목	불화	
	목	전통 손누비반	
	토	서각반	
경주 불국사	토	선차 및 사찰음식 강좌	(054)746-9913
부산 홍법사	월	색소폰 강좌	(051)508-0345
	화	깐따모레 합창단	
	수	사진반	
	목	다도	
	금	사경	
원주 명주사	매일	고판화 체험 강좌	(033)761-7885
광주 무각사	화	몸, 맘 알아차림	(062)383-0108
해남 대흥사	토	전통사찰음식 강좌	(061)535-5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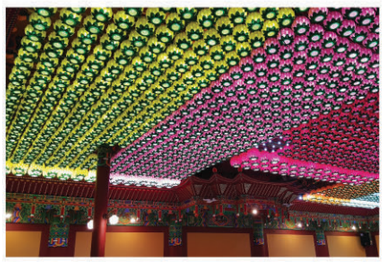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2017 카렌다 주문 접수
카렌다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화두 끊임없이 챙기고 의심하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마음의 청정(淸淨)한 그 자체를 깨달으면 그것이 곧 부처요, 마음의 청정한 광명(光明)을 임의자재(任意自在)하게 쓴다면 그것이 곧 법(法)이요, 승(僧)이니라. 마음을 깨달으면 진리가 그 가운데 다 있으니, 삼보(三寶)가 하나이고, 하나가 삼보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마음, 바로 이것을 깨달아 알 때에 팔만 사천 진리가 사람 사람의 마음속에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결제에 임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삼동구순(三冬九旬)의 결제가 지나고 해제일이 도래(到來)하였도다. 지난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고,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감이라. 중생의 일생도 또한 이와 다르지 않으니 의식이 있는 한 화두를 챙기고 의심함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됨이라. 화두를 타파한 진리의 세계에는 무시무처(無時無處)라, 즉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으니 일념(一念)이 무량겁(無量劫)이고 무량겁이 일념이라.

〈중략〉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참구하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일체처일체시(一體處一體時)에 챙기고 의심하고 챙기고 의심하여야 할 것이라.

중국의 당나라시대에 조주(趙州)선사께서 문수보살을 친견하려고 오대산을 향해 행각(行脚)에 오르셨다. 오대산(五臺山)은 문수보살(文殊菩薩)이 상주(常住)하고 계시는 곳으로 알려져 있음이라. 수백 리 길을 가다가 하룻밤 머물고자 어느 암자에 들르시니, 그 암자에 계시던 백발 노승(老僧)이 물었다.

"젊은 스님은 어디로 가는고?"

"오대산 문수보살을 친견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 말 끝에 노승이 게송을 읊기를,

何處靑山非道場(하처청산비도량)
何須策杖禮淸凉(하수책장예청량)
雲中縱有金毛現(운중종유금모현)
正眼觀時非吉祥(정안관시비길상)

어느 곳 청산(靑山)과 도량(道場) 아닌 곳이 없거늘 하필 책장(策杖)을 짚고 청량산(淸凉山)까지 예(禮)하러 가려는가. 가사 구름 가운데 금빛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나타난다 해도 바른 눈으로 보건대 길상(吉祥)한 것이 못되느니라.

하고, 조주 선사를 경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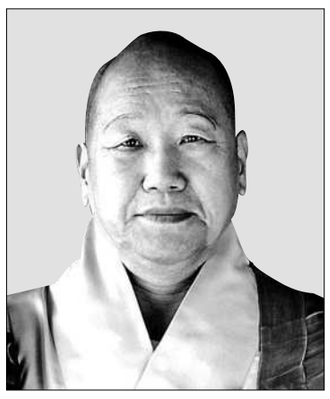
노승의 게송을 다 듣고 난 조주 선사께서 "어떤 것이 바른 눈[正眼]입니까?" 하고 물으시니, 노승은 그만 말이 막혀버렸다.

조주 선사께서 노승의 암자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다시 오대산을 향해 길을 나섰다. 가는 도중에 또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이 물었다.

"그대는 어느 곳을 향해 그렇게 가는고?"

"오대산 오백 나한승(五百羅漢僧)에게 예배하러 갑니다."

"어젯밤 오백 나한이 다 물빛 암소가 되어 갔다."



이 말 끝에 조주 선사께서 "아이고, 아이고!" 곡(哭)을 하셨다.

이것이야말로 천추만대(千秋萬代)에 귀감이 되는 진법문(眞法門)이로다. 우리가 이러한 법문에 확연명백(確然明白)한 법안(法眼)이 열려야만 비로소 사람 도리를 할 수가 있는 법이로다.

이와 같은 삼매(三昧)를 드러내 보인 법문이 또 있음이라.

남전(南泉) 선사께서 천태산(天台山)의 한산(寒山), 습득(拾得)께 예배드리러 와서 며칠 머물다가 하직 인사를 올리자, 한산께서 물으셨다.

"어디를 가려 하시오?"

"마을 아래 돌다리에 놀러 가고자 합니다."

"거기 가서 무엇을 하시려오?"

"가서 오백 나한승에게 예(禮)를 올리려 합니다."

그러자 한산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젯밤에 오백 나한이 다 물빛 암소가 되어 가버렸소." 하시는 것이었다.

여기에 모인 시회대중들은 이 말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소승과(小乘果)를 증득(證得)한 신통자재(神通自在)한 나한승들이 물빛 암소가 되어 가버렸다고 하니, 그 말에 남전 선사께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하시니, 한산께서 "비록 몸은 뒤에 받았지만 큰 종사(宗師)의 눈을 갖추었도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남전 선사께서는 "허허!"라고 허허성(噓噓聲)을 하시었다.

여기에 큰 뜻이 있음이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화두를 타파(打破)하여 자신의 성품을 바로 보게 되면, 왜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하며, 또 왜 "허허성"을 하는 것인지를 바로 알게 됨이로다. 그렇게 되면 조주, 남전 선사를 바로 알고, 한산, 습득의 살림살이를 다 알아서 그 분들과 척척 상통(相通)하게 되리라.

그러면 남전 선사께서 "허허!" 하시는 데는 한산, 습득 두 분 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산승(山僧)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던들, 손뼉을 치면서 "하하!"라고 한바탕 큰 웃음을 치리라.

여기에도 또한 큰 뜻이 있음이로다. 손뼉을 치면서 "하하!"라고 웃는 이 뜻을 안다면 모든 부처님의 은혜와 사사공양(四事供養), 시주(施主)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으리라. 필경에 진리의 한 마디는 어떠한 것인고?

衝落碧開松千尺(충락벽개송천척)
截斷紅塵水一溪(절단홍진수일계)

푸른 하늘을 찔러 여는 것은 천 길 푸른 소나무요, 세간의 먼지를 끊어내는 것은 흐르는 물이더라.

매순간 三毒心 경계하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그 어느 해보다 급변하는 격동의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서 어느덧 동안거 해제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화엄경〉에 일념은 무상찰나(無常刹那)이고, 일찰나 순간에 한량없는 세월을 꿰뚫어 보는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깨달음의 근본본체가 무엇인가?

불교의 유심론에서는 인간의 근본의식을 제8 아뢰야식(阿賴耶識)이라하고,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인간 마음의 주인인 동시에 인류문명의 주도적 견인역할을 한 것이라고 하지요.

해동성자(海東聖者)라고 불리는 원효는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에서 무명(無明)의 연으로 최초 마음이 일어나고[無明業相], 그 동요한 마음이 자신을 찾아 바라보려고 하는 인식작용 모습[能見相]과 그리고 인식작용 때문에 경계로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境界相]의 세 가지 무명인(無明因)의 근본번뇌를 현식(現識)인 아뢰야식과 연결하여 해설하였는데, 이는 깨달음을 얻어야만, 비로소 무의식의 변화현상인 번뇌를 끊을 수 있음을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의 마음과 행동들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의식이며, 이 무의식은 일반적으로 각성(覺醒)되지 않은 심적 상태로 순수한 본래마음 또는 지혜의 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인과성(非因果性), 무논리적인 다양한 본능 에너지의 저장소로서, 번뇌망상의 원인인자(原因因子)이며, 그 결과로 선업과 악업의 종자가 저장되어진다는 의미에서 아뢰야식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략〉

끝으로 납자 여러분은 해제법회를 마치면 만행에 나설 것인데, 선 수행은 일상에 항상 마주하고 있는데, 주유천하(周遊天下) 도중에 한 순간이라도 삼독심(三毒心)에 대한 경계(警戒)를 소홀히 하면, 곧 탁류(濁流)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항상 명심합니다. 따라서 수행의 끈을 잠시도 놓치지 말고, 훌륭한 스승을 찾아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인연으로 깨달음을 얻어 진광불휘(眞光不輝)할 것을 당부합니다.

불조 혜명 이어 무량중생 제도하라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曠劫明明無二相(광겁명명무이상)
淸閑一味最端然(청한일미최단연)
元來不被微塵轉(원래불피미진전)
兀兀騰騰劫外玄(올올등등겁외현)

오랜 세월 밝고 밝아 다른 모양 없으니, 맑고 고요한 한 맛 가장 단연하여라. 원래 티끌에 흔들림 없어서, 올올하고 등등하여 겁밖에 오묘하더라.

〈중략〉

오늘이 벌써 동안거 해제일(解制日)입니다.

진정한 해제라 하면 이 공부를 마쳐야 해제한다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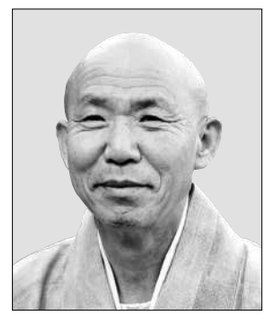
이 공부를 마치지 못했으면 해제했다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허송세월 하지 말고 힘 따라 애써 정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정진하는 것은 명리와 의식주와 안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생사일대사(生死一大事)를 해결하여 불조의 혜명(慧命)을 잇고 무량중생(無量衆生)을 제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제와 결제를 구분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과 같이 일시적으로 잘하는 것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정진을 애써 한다면 득력하고 공부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玉兎昇沈催老像(옥토승침최노상)
金烏出沒促年光(금오출몰촉년광)
求名求利如朝露(구명구리여조로)
或苦或榮似夕烟(혹고혹영사석연)
勸汝慇懃修善道(권여은근수선도)
速成佛果濟迷倫(속성불과제미륜)



今生若不從斯語(금생약부종사어)
後世當然恨萬端(후세당연한만단)

달이 뜨고 지는 것은 늙음을 재촉하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세월을 재촉함이로다. 명예와 재물을 구하는 것은 아침 이슬 같고 혹은 괴롭고 혹은 영화스러운 것은 저녁 연기와 같음이로다.

그대에게 간절히 도 닦기를 권하노니, 빨리 불과를 이루어 중생을 건질지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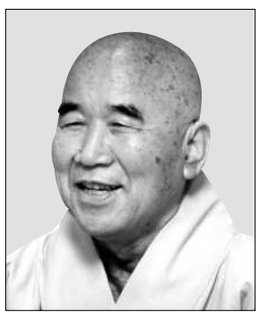
금생에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후세에 반드시 한이 만 갈래나 되리라.

굳은 원력은 보리수요, 인욕은 방석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一株無影樹(일주무영수)
移就火中栽(이취화중재)
不假三春雨(불가삼춘우)
紅花爛漫開(홍화난만개)

한 그루 그림자 없는 나무를 불속에 옮겨다 심어놓았네. 삼춘의 봄비를 빌리지 않아도 붉은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구나.



시간과 공간의 범주를 벗어난 겁외의 꽃을 피운 사람만이 두 팔을 휘저으며 산문을 나서는 날입니다. 승속을 막론하고 수행이란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접어두고 한 철을 기약했습니다. 냉정하게 자신의 살림살이를 계산해 득과 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수행자가 삭발하고 염의를 입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삭발은 머리만을 깎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근본인 욕망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염의는 남이 쓰다 버린 천 조각을 기워서 만든 옷입니다. 비록 쓰다버린 더러운 천으로 만든 옷을 걸쳤지만 결코 마음은 세파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는 사부대중이 다 모였습니다. 질긴 욕망의 머리를 자르고 세상의 온갖 시비에 물들지 않는 용맹심과 믿음이 갖추어졌습니까? 온 세상이 불길에 휩싸이게 하는 것도 욕망이요 생사에 윤회하게 하는 것도 욕망입니다. 중생의 욕망이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은 또다시 욕망이라는 자식을 낳아 윤회의 수레바퀴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돌게 합니다. 〈중략〉

성성한 화두의 칼로 불꽃처럼 치솟는 욕망을 끊어낸다면 그는 욕망의 불길 속에서 겁외꽃을 피워내는 참 수행자입니다. 번잡한 세상 속에 있으면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마음이 여여 하다면 비록 염의를 입지 않았어도 출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수행과 출가는 겉모습에 있지 않고 올바른 통찰과 정신에 있습니다.

스스로 들어선 길에 그 끝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보리수아래에서 해제를 하셨습니다. 수행자는 굳은 원력이 보리수요 인욕이 방석입니다. 오늘 그 보리수에서 그 방석에서 떨치고 일어설 자신이 있다면 산문을 나서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결제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중략〉

白雲兒向萬里飄(백운아향만리표)
從來不忘靑山父(종래불망청산부)
乃何遊子不知反(내하유자부지반)
累他慈父送人尋(누타자부송인심)

백운은 바람 따라 만리 허공을 표류하지만 여태까지 청산의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다네. 그런데 어찌해 집 떠난 자식은 돌아올 줄 모르고 자부가 누누이 사람을 보내 찾으며 애타게 하는가!

용맹심 더해 활구 참구를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出格丈夫意 縱橫(출격장부의 종횡)하니 任運自在 快活人(임운자배 쾌활인)이로다. 黃金白玉未爲貴(황금백옥미위기)요. 識心見性是爲貴(식심견성시위귀)로다.

격식에 뛰어난 장부의 뜻은 자유로우니 뜻대로 걸림없는 쾌활한 사람이로다. 황금백옥이 귀함이 되지 못하고 마음을 알아 견성함이 이것이 귀함이 됨이로다.

오늘은 정월 십오일이라 감히 대중에게 묻노니 맑은 하늘에 밝은 달이 못물에 비치는데 수중월이라 해야 옳은가? 달그림자라 해야 옳은가? 만약 수중월이라할진댄 경계에 떨어진 사람이요, 달그림자라할진댄 물을 저버린 사람이 될 것이다. 경계와 물에 구애치 말고 대중은 한마디 일러라!

良久(양구) 에 "一喝(일할)" 云(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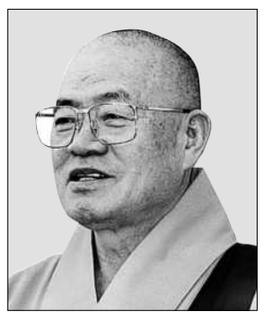
若道不得(약도부득)인댄 云何解制(운하해제)리요 卽非他事(즉비타사)라 分明自己事(분명자기사)어늘 何敢放逸(하감방일)하야 各分東西(각분동서)하며 之南之北(지남지북)가 更可勇猛(갱가용맹)하야 參詳活句(참상활구) 하고 直了大事(직요대사)어다.

잠깐 있다가 "할"을 한번하고 이르시되

一拳打倒 須彌山(일권타도 수미산)하고 建立心王 法王宮(건립심왕 법왕궁)이로다. 平正六國安溫界(평정육국안온계)에 普供十方諸刹海(보공시방제찰해)로다.

한주먹으로 수미산을 쳐서 꺼꾸러트리고 자기마음부처의 법왕궁을 건립할 만약 이르지 못할진댄 이를 어찌 해제라 하리요 곧 다른 이의 일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 일이거늘 어찌 감히 방일해서 각각 동서로 나누며 남으로 가고 북으로 가겠는가? 다시 용맹심을 더해서 활구를 참구하고 바로 일대사를 마칠지어다.

頌曰(송왈) 게송으로 이르시되



지로다. 육근의 여섯 도적을 황복받아 평정함에 널리 시방의 모든 찰해에 공양할지로다.

一念頓亡生死心(일념돈망생사심)하면 息心當處卽菩提(식심당처즉보리)로다.

한 생각에 몰록 생사심만 쉬어버리면 한 생각 쉰 당처가 곧 정각이로다.

자성 증득만이 진정한 해탈이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선(禪)은 깨달음의 역사다. 깨달음 역사는 참 교육의 역사요 참 교육의 역사라는 것은 참 생명의 등불을 전해주는 전등(傳燈)의 역사다. 전등의 역사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보광삼매에 드시어 문자와 언어가 아닌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마가가섭(摩訶迦葉)에게 부촉하셨다. 그것은 무아(無我)요 자타일여(自他一如)의 세계다. 우주와 자아가 혼연일체(渾然一切)가 된 경지며, 그것은 자유자재의 세계다. 무애(無碍)요 원융(圓融)의 세계며 그것은 안심입명(安心立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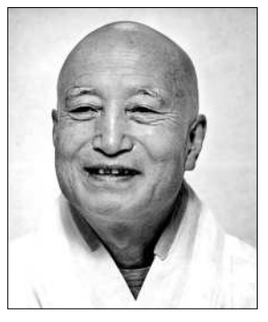
조용(照用)을 동시(同時)로 하되 역순(逆順)에 걸림 없고 어떠한 티끌에도 물들지 않으며 시방세계에 올올(兀兀)히 자재하고 청정하며 당당하고 활발발하기가 짝 할 자가 없더라. 두두물물(頭頭物物)이 본래로 보제(菩提)의 세계요 항하사(恒河沙)와 같은 세계가 그대로 청정한 적멸도장(寂滅道場)이더라.

이것이 영원토록 자재하며 영원토록 고요하고 밝으며 영원토록 신령스러우며 영원토록 원만히 통하고 광대하더라.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으며, 거래(去來)도 없어서 어떠한 명상(名相)과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더라.

이것을 부처님과 역대조사와 역대 선지식이 깨달아 성취하시고 중생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도 노심초사 애쓰신 것이더라.

이것은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중생, 아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이 도리를 깨달아 영원토록 자유스러워야 되고 무위자성진실락(無爲自性眞實樂)을 미래세가 다하도록 향유해야 하는 것이더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이념 · 사상 또는 철학 그리고 종교까지도 그것은 인간을 위한 방편이지 구경(究竟)은 아니다. 청정한 자성 자리를 증득했을 때만이 진정한 해탈이다. 모든 명상은 다 떨어지고 능(能)과 소(所)도 잊어버리고 주(主)와 객(客)이 끊어진 자리가 영원



한 무주(無住)요 무애요 무상(無相)이다. 진정한 무위진락(無爲眞樂)의 세계요 우리 모두 가야할 구경이다.

靈光獨照脫根塵(영광독조탈근진)
坐臥經行現妙眞(좌와경행현묘진)
有時不覺 身轉(유시부각번신전)
山河大地獅子吼(산하대지사자후)

〈하략〉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生死는 하룻밤 꿈…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다"

정휴 스님의
백담사 무문관
'是甚　日記' ①



강원도 화암사 산내암자 영은암에 주석중인 정휴 스님은 현재 조계종의 종헌 · 종법 기틀을 만든 장본인이자 승려 시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14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을 끝으로 일체 공직을 맡지 않은 스님은 2010년 3월 법정 스님의 입적으로 마음의 큰 변화를 겪고, 그해 11월 동안거에 백담사 무문관으로 들어간다.

2017년 정유년 동안거 해제를 맞아 정휴 스님은 본지에 무문관 입방 계기와 그 안에서의 사유와 성찰, 깨달음을 담은 글 일부를 보내왔다. 스님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백담사 문무관 是甚　日記(가칭)〉를 발간할 예정이다. 정휴 스님이 무문관에서 이룬 성찰과 깨달음의 궤적들을 5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 주〉



'무문관' 안으로 들어가 치열한 수행을 하는 것은 '문없는 문'을 열고 대자유를 누리기 위함이다. 사진은 정휴 스님이 2010년 동안거를 보낸 백담사 '무금선원 무문관' 전경.

눈앞에 있는 만물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해마다 새롭게 태어난다.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움직이면서 변화의 운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묵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진통을 치뤄야 한다.

집착의 늪에 갇혀서 깨어나지 못하면 흐름이 멈추고 정체에 빠져 퇴행을 면할 수 없다. 언제나 편안함 속에는 정체와 타성이 들어있다.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이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깨어 있는 정신이 있어야 하고 그 동안 몸과 마음으로 익혀온 그릇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

우리의 정신은 새로운 것을 추구할 때 삶은 향상되고 심화되었다. 솔직히 말해 나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 갇혀 있었고 몸에 익힌 그릇된 습관과 인습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다. 나를 정신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고는 끝없는 나락으로 침몰될 것 같았다. 새로운 변화를 통해 잠재 있는 나를 일깨우지 않고는 번뇌 속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았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자기 안에 있다. 자기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것도 마음이고 자기 자신이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선적(禪的) 가치가 필요했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방(禪房)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내적 성찰과 자기를 탐구하는 화두를 들고 비본질적인 것을 털어내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내 삶의 일몰(日沒)이 시작되고 있었다. 육십을 넘기고 칠십을 바라보는 나이를 생각할 때 죽음이 어느 날 천둥처럼 찾아올지 알 수 없었다.

살아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법정 스님의 입적을 듣고서이다. 스님은 한국불교 정신을 이끌었던 분이고 수행 생활도 깔끔하고 독특하였다. 스님이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문은 절친한 지인을 통해 들었고, 미국으로 건너가 수술을 하고 건강이 호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끝내 버티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름다운 마무리〉란 책을 편찬 한 것을 보고 그의 생애가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랫동안 스님을 모셨던 청학 스님이 전화를 통해 스님을 면회하고 나온다면서 한 마디 말도 할 수 없는 기력을 잃고 종이에다가 '생사는 하나이다'라고 적어준 쪽지를 받았다고 전해주었다. 직감적으로 그의 임종이 다가왔음을 직감하였고 스님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

그 뒷날 길상사로 운구를 했다는 전갈을 받고 그가 거처하던 방으로 문상을 갔을 때 스님은 승복을 입은 채 대나무 돗자리 위에 편안히 누워있었다.

숨을 거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었다. 너무 편안하고 평화스러워 보였고 삶과 죽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 버리고 죽음보다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다른 선사들과 달리 자기 마무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입적을 한 대표적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일의 과정에서 길의 도중에서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근원적인 물음 '나는 누구인가'하고 묻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음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든 떠날 채비를 갖춘다. 언제든 빈손으로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빈 가지도 때가오면 또 다시 새잎이 돋아날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가 남긴 '아름다운 마무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깊은 성찰이 묻어나고 오랫동안 정진을 통해 체득한 지혜가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깨달음을 주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 모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철학적 화두를 던지고 있다.

첫 마음으로 돌아가고 초심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자기 본래 면목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하고 근원적 물음을 놓지 말아야 함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내려놓고 비워야 빈손으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떠날 수 있음을 깨우쳐 주고 있다.

문상을 하고 나오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직시하고 성찰해야겠다는 각오를 했고 '이규보'가 이야기 했듯이 '삶과 죽음이 하룻밤 꿈' 같았다.

그는 누구보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환경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사유와 명상을 바탕으로 저술한 50여권의 책을 다시 출판하지 말라고 하였다. 마치 부처님이 49년간 설법을 해놓고 한 마디도 설 한 것이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 한다. 훗날 책을 통해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을 미리 차단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인간 내면을 살피는 깊은 성찰과 피나는 정진과 사유를 통해 제시한 깨달음의 가치는 오랫동안 평가 받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 그는 대중과 어울리는 수행인이 아니라 독거(獨居)를 좋아했고 괴팍하고 깔끔한 성격 때문에 동료 스님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았다. 그리고 한 번도 솔직하고 진솔한 자기내면을 드려낸 일이 없었다.

그가 처음으로 인간적 면모를 밝히고 드려낸 것은 '아름다운 마무리'란 수상집에서였다.

'병을 치료하면서 나는 속으로 염원했다. 이 병고를 거치면서 보다 너그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고 자애로운 사람이 되고자 했다. 인간적으로나 수행자로서 보다 성숙해질 계기로 삼고자 했다. 지나온 내 삶의 자취를 돌이켜 보니 건성으로 살아온 것 같다. 이웃에 필요한 존재로 채워져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묵은 껍질 벗고 새롭게 태어나자

법정 스님 입적 계기… 삶과 죽음 성찰
내설악 입구부터 깨달음 세계 가득

2010년 11월 19일 무문관 입실

새로운 변화 위해선 禪的 가치가 중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자기안에 존재
"내면 통로 열면 자성 근저 이르게 해"

스스로 모난 부분을 살피고 부족했던 점을 자책하고 자성하는 법정 스님의 적나라한 인간적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나는 끝내 법정의 영결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백담사 무문관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였다. 겨울 한 철 내 몸에 배어있는 묵은 껍질을 걷어내고 본래 자아로부터 일탈해 있는 자신을 본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탐구를 해야겠다고 조철한 서원을 세웠다.

서울을 출발 할 때만해도 가벼운 마음이었다. 독방에 갇혀 그것도 문을 잠군다고 하니까 남들의 시선을 의식 할 필요가 없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화두를 들 수 있다는 것이 안도감을 주었다.

왜냐하면 자고 싶으면 자고 책보고 싶으면 책을 읽고 좌선할 생각에 사로잡히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으면 된다.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방에서 만큼은 제도나 규율, 규칙이 없어 독방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나를 안정시켰다.

2010년 11월 19일 백담사로 들어가는 첫 입구인 용대리에서 부터 새로운 체험이 시작되었다. 내가 탐구하여 찾고자 하는 것 그리고 깨닫고자 하는 것이 눈앞에 드러나 있었다. 그 동안 책을 통해 깨닫고 있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이 깨달음으로 다가서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촉목보리(觸目菩提)'의 세계였고 '목격도존(目擊道存)'의 진리였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깨달음이요. 눈앞에 있는 것이 그대로 진리란 뜻이다. 여기 오기 전에 나는 없는 것을 새롭게 이루고 만들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숨겨놓은 것을 찾아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선(禪)이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숨겨놓은 것을 찾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본래 이루어진 것을 내심을 통해 확인하고 증득하면 되는 것이다.

눈앞에 펼쳐진 내설악(內雪岳)풍광은 모든 것을 드러내 놓고 있었다. 하나도 숨김이 없었고 일기일경(一機一境)을 통해 실상의 묘용을 나타내고 있었다. 울창하게 서있는 나무를 통해 배움은 시작되었다.

푸르고 푸르던 나뭇잎들은 오색물감으로 변했다가 낙하를 통해 나목으로 서 있었다. 다만 제 몸을 떠나지 않은 잎들만이 바람이 불면 전지(剪枝)를 하듯 제 몸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세찬바람이 불 때면 소나기가 쏟아지듯 떨어지고 꽃잎처럼 휘날리며 낙하하는 것을 눈여겨 보았다.

늦가을은 침묵을 익히고 공적(空寂)을 체험하는 계절이다. 스스로 전지(剪枝)와 낙하를 거듭하면서 벗을 것 다 벗어버리고 침묵과 공적을 이루는 계절이 늦가을 풍경이다

침묵은 인간의 내면의 통로를 열어 근본을 사색케 하고 공적(空寂)은 내심자증(內心自證.)을 통해 우리를 자성의 근저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초겨울 산천은 모든 장식을 제거하고 본체의 아름다움만 드려낸다.

그리고 자연은 수행자에게 위대한 선지식이다.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 열고 닫는 섭리를 깨닫게 하고 조락을 통해 인생의 부침과 영고성쇠를 깨닫게 한다.

일초일목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대로 부처요 법신불이다. 그리고 설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바람이 무정설법을 전해주고 물소리가 그대로 깨달음의 법음이다.

강원도 고성 영은암 회주

정휴 스님은?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1963년 밀양 표충사로 출가했다. 불교신문 · 법보신문 편집국장 및 주필을 지냈으며 불교방송 상무,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동국학원 감사, 치악산 구룡사 주지, 불교신문 사장을 역임했다. 197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조부문에 당선돼 문단에 데뷔했으며 선사들의 삶과 사상을 다룬 글들을 선보였다.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불교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열반제〉를 비롯해, 해탈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경허스님의 생애를 다룬 장편소설 〈슬플 때마다 우리 곁에 오는 초인〉을 발표했다.

이밖에 저서로는 〈깨친 사람을 찾아서〉 〈선재의 천수천안〉, 역대종정법어집인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나〉 〈걸레중광평전〉 등이 있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제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3월 9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시련 이겨 안락 이르니 인생은 한바탕 꿈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① 안락국태자 이야기 ㊦

"불쌍하구나. 안락국이여. 유복자로 태어나 아버지가 그리워 천리만리 찾아가더니, 돌아와서는 이번엔 어머니를 잃었구나." 소치는 아이의 처량한 노래를 듣고 안락국이 깜짝 놀라 연유를 묻습니다.

"아버지를 보겠다는 그 아이가 하도 가여워서 잠시 보고 오라고 한 것이지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꼭 돌아올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원앙부인이 간곡히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노발대발한 장자는 "내가 돈을 주고 네 뱃속에 있는 것을 샀으니 내 소유이지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하고 부인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보리수나무 밑으로 가서 칼로 세 동강을 내어 베어 던져버렸습니다.

무지와 갈애의 한바탕 꿈

안락국이 아버지를 찾아 도망갔기 때문에 장자가 분노하여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칼로 메어쳤다는 것입니다. '아, 모두 나 때문이다.' 안락국은 이런 사정을 듣고 눈앞이 캄캄하여 울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안락국이 비틀거리며 보리수 아래로 가보니, 과연 어머니의 시체가 세 동강 나서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습니다.

안락국이 이를 주섬주섬 주워다가 차례로 이어 놓고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뒹굴며 쓰러져 우니, 하늘이 진동하였습니다. 서쪽을 향하여 앉아 합장하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왕생게를 외우며 게송을 지어 불렀습니다.

원컨대 내가 장차 목숨을 마칠 때에
(願我欲臨終時)
일체 업장 다 버리고(盡除一切諸障碍)
면전에 아미타불을 보아(面見彼佛阿彌陀)
즉시 안락찰(극락)에 태어나게 하소서
(卽得往生安樂刹)

염불삼매로 열리는 극락세계

꿈과 같이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온 안락국에게는 더욱 잔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혹한 모습의 어머니 주검입니다. '고운 님 못 보아 사르듯 울며 지내더니, 임이시여, 오늘날 넋이라고 하지 말 것이다.' 비명에 간 원앙부인의 마지막 말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에 없는 이상, 안락국 역시 살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아들 안락국의 간절한 염원은 피안에 가 닿습니다. 게송을 지어 부르자, 즉시 극락세계에서 48용선이 진리의 바다(眞如大海)에 둥둥 떠내려 옵니다. 용선 속의 큰 보살님들이 태자에게 이르되, '너의 부모님은 벌써 극락세계에 가셔서 부처가 되셨거늘, 네가 이를 모르고 있어서 길을 인도하러 왔다.' 태자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사자좌에 올라 허공을 타고 극락세계로 향합니다.

아미타용선이 나타나 안락국과 원앙부인을 태워 극락으로 가는 모습. 생사의 바다를 건넌 안락국태자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원앙부인 품 속에서 함께 합장하는 안락국.

안락국 도주를 안 자현장자
원앙부인 세 토막 내서 죽여
돌아온 안락국, 왕생게 염송
간절한 염원으로 모두 왕생



"불쌍하구나, 안락국이여"라는 노랫소리에 깜짝 놀라 뒤돌아보는 안락국.

'업장소멸' 또는 '공덕장엄' 드라마

이리하여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원앙부인극락왕생기〉의 마지막 대목에는 "광유성인은 지금의 석가모니불이시고, 사라수대왕은 지금의 아미타불이시고, 원앙부인은 지금의 관세음보살이시고, 안락국은 지금의 대세지보살이시고, 승열바라문은 지금의 문수보살이시고, 여덟 궁녀는 지금의 8대보살이시고, 5백 제자는 지금의 5백 나한이시다. 자현장자는 무간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광유성인의 정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그가 데리고 있는 5백 제자는 5백 나한이라고 하니, 임정사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승가입니다. 사라수대왕 · 원앙부인 · 안락국은 아미타불 · 관세음보살 · 대세지보살이라고 하니 '아미타삼존'이 됩니다. 원앙부인은, 아니나 다를까,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입니다. 안락국태자는 '안락국(安樂國)'이라는 그 이름부터 '극락'을 지칭합니다. 안락찰(安樂刹), 안락국(安樂國), 안국(安國), 안양(安養)은 모두 극락(極樂)과 동일한 어원인 산스크리트 'Sukhavati'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지극히 즐겁고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정토가 바로 서방극락정토(西方極樂淨土) 또는 미타찰(彌陀刹)입니다. 자현장자는 항상 석가모니를 음해했던 사악한 사촌 데바닷타와 같은 존재입니다. 삼역죄를 지어 산채로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졌다는 데바닷타의 종말과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해당하는 아미타용선의 모습은 환상적이고도 아름답습니다. 생사(生死)의 바다를 건넌 안락국태자는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듬직하고도 늠름하게 노를 젓고 있는 아미타불은 바로 아버지 사라수대왕입니다. 아버지가 노를 젓고, 어머니가 왕생게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안락국은 극락으로 나아갑니다.

불교를 모르면 놓치는 것들

이러한 마지막 대목으로 인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주인공들이 부처님과 보살님의 화신이라는 것은, 대승불교의 전형적인 불신관을 반영합니다. 즉, 세상을 공덕장엄하기 위해 몸 받아 속세에 나투신 화신 또는 응신의 개념을 말합니다. 이 같은 불교적 관점을 모르고 보았을 때,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비참한 몰살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해석이 됩니다. '한(恨)'의 불교적 승화라는 둥, 소극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왕이 왕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사찰의 허드렛일을 하러 떠났다는 것, 그리고 여왕이 몸종으로 자신을 팔았다는 것 등의 행위들은, 속세적 욕망과 이기적 독선이 판치는 현대사회의 풍토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세속적 관점의 부귀영화나 명예와 사랑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왕은 명예를 버리고 자신을 맑히는 청정한 '수행'을 택했고, 여왕은 세속적 사랑과 부귀영화를 버리고 힘겨운 '보시행'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발원을 세우고 나아가는 과정에 닥쳐오는 시련들은 나와 타인의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 됩니다. 마치, 부처 · 보살님이 우리에게 인생무상을 가르쳐주려고 한 판의 연극을 펼쳐 보여주고 사라진 듯한 느낌입니다.

위에서 아래, 자아를 버리는 여정

작품 속 이야기의 전개 과정은, (정면에서 보아) 하단 우측에는 상단 좌측으로 펼쳐집니다. 아래에는 사랑과 명예가 있는 왕궁(속세)이 있고, 위쪽은 법계와 속계를 잇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 수행 공간으로서의 임정사가 있습니다. 극락으로 진입하는 초입과도 같습니다. 화면의 가운데에는 주인공들의 험난한 여정이 펼쳐집니다. 먼 길을 떠나는 왕과 왕비, 애정과 혈육의 정마저 끊고 떠나는 왕, 여종으로 팔려가는 왕비, 목숨을 걸고 죽림국과 범마라국을 오가는 안락국 등. 이들 내용들의 공통점은 주인공들이 모두 자신의 마지막 보루, 즉 자기 자신마저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련들이 닥쳤을 때 주인공들의 행위는, 단순한 업장소멸에서, 공덕장엄의 스토리로 전환됩니다. 인생이 그저 전생 과보의 또 하나의 윤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아를 버리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여정이 될 것인가. 보리발심하는 마음을 내고, 이타적인 마음을 내고, 자신의 업보를 달게 받고, 제각기 나름의 용맹정진을 통해 모두 극락세계로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 묘한 비애미 뒤에 숨겨진 영롱한 보석 같은 내용입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 불교문화재학

작품 속으로 안락국태자경변상도

〈안락국태자경변상도〉 전도, 비단에 채색, 105.8×56.8cm, 조선 전기 1576년, 일본 고지 청산문고 소장

이야기와 함께 소개하는 〈안락국태자경변상도〉(크기 105.8×56.8cm)는 비단 바탕에 채색으로 그려진 조선 전기(1576년) 왕실 발원 작품입니다. 작품은 현재 일본 시코쿠 고치에 있는 '청산문고'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화폭 속에는 장면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이들이 시간적 이동을 하며 이야기가 전개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한글로 기입된 각 장면의 설명이 보입니다. 화면에 적힌 문구를 보면 아래 아 방점, 세모 모양이 표기된 반잇소리, 아음과 후음이 구별되는 이응 표기도 보여, 자못 귀중한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림 상단의 화기(畵記) 내용입니다. "주상전하 성수만세 왕비전하 성수재년 속탄천종/ 공의왕대비전하 성수산고 자심해활 제세여원/ 덕빈저하 수명무진 복덕무량/ 혜빈정씨 보체 무재무장 수명무궁 … (主上殿下聖壽萬歲 王妃殿下聖壽齊年速誕天縱 恭懿王大妃殿下聖壽山高慈心海濶 濟世如願 度生如心 德嬪邸下壽命無盡 福德無量 惠嬪鄭氏寶體無無障 壽命無窮 …)" 당시 왕실의 최고 권력자들의 보체 안녕을 위한 발원문입니다.

본 작품은 조선 전기 궁궐 안에 특별한 공간에 모셔졌을 것이고, 이 앞에서는 해당 왕실 인물들을 위한 예불이 올려졌을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우리나라 조선왕실의 작품이 어떻게 해서 일본의 작은 마을, 문고박물관에 소장되게 되었을까요. 직접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 연유를 알아보니, 본 작품은 임진왜란 때 왜장으로 출전했던 쵸소카베 모토치카(長曾我部元親)가 조선으로부터 가지고 온 유품이라고 합니다. 전쟁 때 조선 왕실 또는 관련 원찰에서 유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였습니다. 당시의 채색이 그대로 남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매우 만족 - 99%"
◆전국 어디서에나 실시간으로 사용가능
◆저렴한 비용과 사용의 편의성
◆사찰관리업무 간편화
◆연등, 인등, 축원문 등의 간편 출력 가능
◆문자서비스, 우편라벨 등의 부가서비스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부가서비스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일정관리, 신도영가 기일 자동 알림,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의 다운로드 가능, 물품관리 등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탈종교 진단 등 다룬 〈전법학연구〉 11호 발간



불광사 산하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지난 1월 30일 〈전법학연구〉 11호를 발간했다. 11호에는 제5회 전법학술상 수상논문 3편과 탈종교화의 현상을 분석하고 종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은 4편의 논문 등 총 13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특히 제5회 전법학술상 수상작인 김진무(원광대 강사) 박사의 '청대(淸代) 팽제청(彭際淸)의 불교부흥과 거사불교', 조현봉(동국대 강사) 박사의 '협조적 전법교화 체제 활성화를 위한 재가 포교사 리더십에 관한 연구', 최원섭(동국대 외래강사) 박사의 '방송 매개 전법을 위한 불교 콘텐츠 구성 방향' 3편은 눈여겨 볼만 하다.

김진무 박사의 논문은 불교 침체기였던 중국 청나라 때 재가자 중심의 거사불교를 제창해 불교 부흥의 토대를 마련한 팽제청의 활동을 전법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조현봉 박사의 논문은 전법교화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스님과 재가 포교사의 협조적 전법교화 모델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11호부터 서평 코너가 신설되고 불광운동을 이끌어왔던 광덕 스님의 삶과 전법행을 돌아보는 구술 인터뷰 등이 보완되면서 내용이 풍성해졌다. 신성민 기자

한국 · 일본 茶문화는 어떻게 같고 다르나

불교평론, 16일 열린논단 개최

한국과 일본의 차문화를 비교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는 2월 16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한국과 일본의 차문화 비교'를 주제로 제80회 열린논단을 개최한다. 이날 발제는 초의와 리큐로 대표되는 한국과 일본의 차문화를 비교 · 연구해온 전문가인 정영희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 교수가 진행한다.

이날 열린논단은 한일양국의 차문화 비교를 통해 차에 깃든 불교정신을 살펴보고 차문화의 중흥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논의한다.

(02)739-5781 신성민 기자

'허왕후 설화'는 어떻게 '실재적 역사'가 됐나

이광수 교수, 허왕후 설화 비판 연구서 발간

가야불교를 이야기하며 제기되는 학설은 '남방불교도래설'이며, 이 중심에는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다는 허왕후가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그녀는 김수로왕에게 시집을 갔고, 태자 거등공을 낳았다. 가야불교를 긍정하는 한국불교계는 허왕후의 설화를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인정한다. 하지만, 이면에는 '설화를 하나의 상징체계 아닌 역사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타당한가'라는 의문도 존재한다.

역사의 국가주의화를 지적해 온 이광수 부산외대 인도학부 교수의 연구서 〈인도에서 온 허왕후, 그 만들어진 신화〉는 허왕후 설화에 대한 비판적 질문의 답을 던진다.

이 교수 주장의 핵심은 허왕후 설화에 담긴 민족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에 있다. 허왕후 설화는 시대를 거치면서 기본 뼈대에 새로운 살이 붙으면서 1000년 동안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삼국유사〉의 '금관성 파사석탑'이다. 이 교수는 허왕후가 파사석탑을 배에 싣고 왔다거나 허왕후의 오빠인 장유화상이 불교를 한반도에 들여왔다는 것도 모두 '날조된 신화'라고 강조한다. 당시 인도에서는 탑을 배에 탑재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고대에 돌무더기를 실은 배가 인도에서 한국까지 항해하기는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허왕후 설화 중 금관성 파사석탑은 '가락국기' 편찬 후부터 〈삼국유사〉가 편찬되던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주목할 점은 호계사 등 사찰에서 허왕후의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역사를 사실보다 해석으로 보는 불교사관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인도서 건너왔단 허왕후 설화
1천년 걸쳐 만든 허구적 신화
'국민 신화화' 과정 비판 · 분석

지자체 · 인도 교류서 활용하며
설화의 역사화, 확대재생산 중

사찰에서 확장된 허왕후 신화는 조선시대 유림들의 가문정치와 만나며 허왕후를 실재적 역사 인물로 만든다. 이 교수는 "양천허씨가 신화 속의 허왕후를 실제 인물로 여겨 허왕후릉을 비정하고 족보와 연계시키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허왕후가 역사 속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허황후는 '보주태후'라는 시호를 받게 되고, 족보에까지 등장하게 된다.

저자가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허왕후 설화가 날조되고 역사적 인물이 되면서 현대에서까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설화의 확대 재생산에는 정치 · 지방자치단체 · 사이비 역사학자 · 언론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실제, 한국과 인도 교류가 허왕후 설화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인도 우파 민족주의 세력이 활용해 자신들의 역사 만들기에 일조하는 점은 '민족주의적 신화 만들기'가 보여주는 단적인 폐해다.

그러면서 저자는 오로지 '우리는 우수한 민족'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국민들의 역사적 몰이해와 무비판적 인용이 결국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을 만들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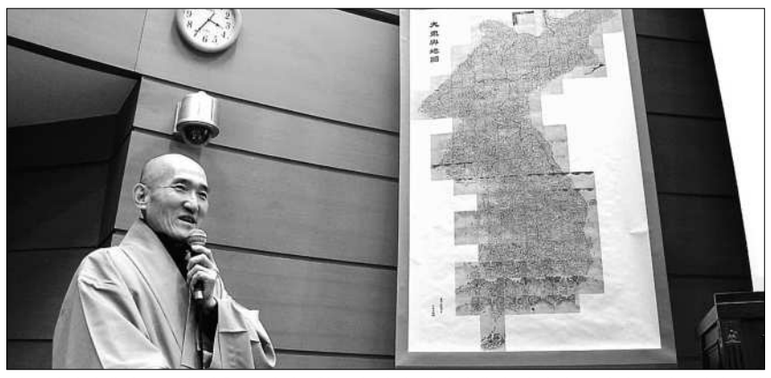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허왕후 신화는 민족주의와 국민 콤플렉스가 존재하는 한, 역사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분야 외에 관심을 쏟지 않거나 남이 한 연구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면서 의심의 눈초리와 비판력을 상실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살아서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화서 실재하는 역사적 사실을 추출하려면 매우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신화를 실제 역사로 이해하고 실재하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이는 명백한 역사왜곡이자 사이비 학문"이라고 성토했다. 신성민 기자

"대동여지도, 기존 지도·읍지 참고 제작"

불교사회정책硏 2월 6일 '대동여지도' 관련 세미나

지도 內 사찰 238개 집계
기존 지도들 오류 바로잡아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이 2월 6일 열린 세미나에서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대동여지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산자 김정호가 일생에 걸쳐 제작한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사찰 지명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법응)은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동여지도와 사찰지명'을 주제로 전문학자 초청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류명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과 김기혁 부산대 교수는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사찰 지명에 대해 고찰했다.

대표 발제한 류 연구원에 따르면 〈대동여지도〉에는 1만1000~1만3000여 개의 지명이 수록돼 있는 데 사찰의 경우 표기 한자를 기준으로 사(寺) 222개, 암(庵) 17개, 굴(屈) 2개, 대(臺) 1개 등 242개가 확인된다.

지역별로는 함경도 57개, 경상도 35개, 전라도 32개, 강원도 31개 순으로 수록되는 데, 이는 조선 중후기 사찰지도인 〈가람고〉와 비교했을 때 함경도와 강원도에 편중돼 사찰이 게재됐다. 또한 〈가람고〉에는 10개 이상의 사찰이 기록된 경주부, 양동대도호부, 평안도 순천군 등은 대동여지도에는 한 곳도 사찰이 나오지 않는다.

이에 대해 류 연구원은 "〈대동여지도〉는 당시 한성부를 포함한 335개 군현 중 115개 군현에만 사찰 지명이 기록돼 있다"면서 "함경도와 강원도에 사찰이 많이 수록된 것은 두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지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좀 더 많은 사찰 지명을 수록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류 연구원은 "〈대동여지도〉가 기존의 〈조선지도〉 · 〈해동여지도〉 · 〈청구도〉 등 기존에 편찬된 지도와 여러 종류의 읍지와 지리지를 참고해 간행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사례가 기존 지도에 나타난 오류들을 바로 잡고 있는 것이다. 실제 김정호는 〈청구도〉에 표기된 사찰지명을 〈대동여지도〉에 수용하면서 산지명을 사찰 지명으로, 사찰지명을 행정지명으로 수정했으며 중복 기록한 사찰은 삭제하기도 했다.

류 연구원은 "이 같은 사례들을 종합하면 〈대동여지도〉에 기록된 242개 사찰 중 출처가 분명한 곤양 고점사와 장흥 선암사, 중복 사찰 2곳을 제외하면 대략 238개 내외의 사찰이 수록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동여지도〉는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융섭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은 불교의 대승사상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남산 용장계 제3사지 석탑' 보물된다

문화재청, 7일 보물 지정예고… "전탑형 석탑 계보"

경주 남산 용장계 제3사지 삼층석탑〈사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북 경주시에 있는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월 7일 밝혔다.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에 관한 문헌기록이 없어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이 언제 건립됐는지 확인할 만한 근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탑지 주변에서 '용(茸)' 자명을 비롯한 9점의 명문와(名文瓦)가 출토돼 용장사(茸長寺)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용장사지(탑상곡 제1사지)에는 삼층석탑과 마애불좌상, 석불좌상이 전해오며, 그 일대에 여러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은 무너져 있던 것을 2000~2001년까지 2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거쳐, 석탑 부재를 모아 2002년에 복원하였는데 노반석(露盤石) 아래의 부재는 남아있는 원 부재를 사용했다.

이 탑은 전탑형 석탑으로 8개의 커다란 사각석재를 기단으로 구축하고 옥개석(屋蓋石, 지붕돌)이 하나의 석재로 이루어졌으며 별다른 장엄장식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통일신라 석탑과는 다르다.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은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보물 제65호)과 경주 남산동 동삼층석탑(보물 제124호) 등과 함께 경주지역, 특히 남산 주변의 산록에서 만들어진 장소적인 특징도 있어 한국석탑에서 또 다른 '전탑형 석탑'의 계보를 이룬다.

경주지역에 유사한 형태로 남아있는 서악동 삼층석탑과 남산동 동삼층석탑이 9세기경으로 편년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용장계 지곡 석탑의 건립 시기 또한, 9세기경으로 편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파손되었으나 상륜부가 남아있고,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외관이 양호한 편이라는 점도 보물 지정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출강 및 통신 2017학년도 제26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 교육 신입생 모집

탁월한 불교교육과 정명한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은 정통한 법사교육으로 26년의 전통과 신뢰로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습니다.

①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인증하는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7년 2월 23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2017년 불교대학 50기 신입생모집[2년과정]

불교학과 3월 4일(토) 오후 5시 입학식

•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CD 배송]

1년차	과목	1. 인도불교 2 중국·한국불교 3 법화경 4.대승불교와 밀교 5. 정토경 6.화엄경
	교수진	법산 경일스님(학장)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김경집교수 차차석교수 박종교수 종석스님 주명철교수 정성준교수 정엄스님
2년차	과목	7. 불교의 체계적 이해(아함경 1) 8 불교문화와 포교 9. 선불교 10. 근본불교(아함경 2) 11. 반야심경 12 유식불교
	교수진	이미령교수 최종석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김호귀교수 활안스님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 모집인원(불교학과) 120명(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각 40명)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2017년 1월 2일부터
■ 문의 02)732~1206~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한불련)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 선·명상학과(위빠사나) [3월 9일(목) 개강] ● 불교다도학과 [3월 7일(화) 개강] ● 불교미술학과 [3월 9일(목) 개강]
● 한글불교의식반 [3월 11일(토) 개강] ● 전통범패의식반 [3월 8일(수) 개강]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T. 02)732-1206~8 F. 02)732-1207 http://www.dongsanbud.net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如來四智에 대해

해제일이 지나자 스님 몇이서 찾아왔다. 이들은 학문수행과 심성수행으로 기본이 튼튼히 다져진 종단의 희망으로 보이는 스님들이었다. 그들 중 한 스님이 내게 물었다. "여래사지(如來四智)에 대한 스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하여, 내가 말하였다.

"대원경지(大圓鏡智)와 평등성지(平等性智)그리고 묘관찰지(妙觀察智)에 대해선 묻지 않겠습니다. 스님들 중 누구라도 좋으니 성소작지(成所作智)에 대해 간단하게 무엇이 성(成)이고 무엇이 작(作)인지 먼저 설명해 보시지요." 대중이 쉽게 답을 못하자 내가 말하였다.

"불교의 핵심사상은 중도(中道)와 연기(緣起)입니다. 종단의 한 원로 스님께서 자주 중도사상에 대해 언급하시는데 반쪽 설명에 그치고 있으며 일생을 수행해 오신 어느 수좌 스님도 연기법칙(緣起法則)을 이해하는데 있어 연기(緣起)와 무아(無我)를 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기와 무아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연기(緣起)는 (Brahman)을 인정할 수 없듯 아트만(Atman)의 존재도 부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기(緣起)와 무아(無我)를 둘로 나누어 설명함은 연기의 참뜻을 사무치게 녹이지 못한 탓입니다.

이쯤해서 질문하신 여래사지(如來四智)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래에겐 사지(四智)도 군더더기 사족(蛇足)일터이나 중생을 위해 마지못해 부쳐진 이름일 터입니다. 부처(如來)가 되면 네 가지 지혜(四智)가 나타나는데 첫째가 대원경지(大圓鏡智)입니다. 모든 인연과 경계가 끝이 없으나 묘법정안(妙法正眼)으로 친소(親疎)가 둘이 아니요 피아(彼我)의 구분 없이 만 가지 덕(德)의 근본으로 중생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모서리와 변두리가 없어 우주공간 그대로가 틀이 없는 맑은 거울과 같아 부쳐진 이름입니다.

둘째는 평등성지(平等性智)입니다. 미(迷)와 사(邪)가 낄 수 없는, 우월과 열등의 높낮음 없이 유(有)와 무(無)의 차별과 집착도 없이 범성(凡聖)이 둘이 아니요 거래(去來)와 생멸(生滅) 단상(斷常) 등이 둘이 아닌 하나로 어우러진 세계입니다. 이는 팔불중도(八不中道)의 평등성을 강조해 부쳐진 이름입니다.

셋째는 묘관찰지(妙觀察智)입니다.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에서 벗어나 온갖 미(迷)와 의(疑)에서 자유롭습니다. 진공(眞空)이나 묘유(妙有)인 것이 묘관찰지(妙觀察智)입니다.

네 번째는 성소작지(成所作智)입니다. 수행의 목적은 성불(成佛)에 있고 성불의 완성은 중생구제의 실천에 있습니다. 중생들을 대함에 있어 무연대비(無緣大悲)의 실천으로 중생을 위해 중생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작(作)이요 중생의 소원하는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보시(布施)를 실천하는 것이 성(成)입니다.

종교와 신앙의 존재 이유는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데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수행을 완성한 부처(如來)라면 중생을 위한 무연대비(無緣大悲)의 다함이 없는 행동의 실천, 이타행(利他行)을 생활화하는 보살정신의 실현(實現)이 성소작지(成所作智)입니다."

행복·자유를 누림이 종교의 생명력
이타행·보살정신 실현이 '成所作智'

존재론적 실상의 우주법계를 원인과 결과로 실체를 밝힌 것입니다. 중도(中道)는 시간과 공간의 주인공임을 일깨워주는 존재의 덕목을 중(中)과 정(正)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여래의 사지(四智)를 설명하자면 중도(中道)의 정의에 대해 간단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중(中)은 정(正)인데 중(中)에서는 대(對)와 변(邊)에서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함을 의미하며 정(正)에서는 미(迷)와 사(邪)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머묾 없이 자유로워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중도(中道)는 유교의 중용(中庸)과 달라 양변불락(兩邊不落)이 아닌 양변무애(兩邊無碍)이며 무변중심(無邊中心)인 것입니다. 임제선사의 수처작주(隨處作主) 또한 중도를 드러낸 말입니다. 불교의 중도에는 대(對)와 변(邊), 미(迷)와 사(邪)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를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기법칙의 원리는 원인이 없는 결과 없고 결과에는 필연적인 원인이 있어 돌연변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인 브라흐만

본성 직시하는 화두법 제시하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육조 혜능 선사로부터 법을 이은 사람이 모두 43인이 있지만 이 가운데 5대 제자라 하여 다섯 사람을 꼽는다. 남악 회양(南嶽懷讓), 청원행사(靑原行思), 영가진각(永嘉眞覺), 남양혜충(南陽慧忠), 하택신회(荷澤神會)이다.

이 가운데 육조 혜능 선사의 수제자가 되어 남악파(南嶽派)를 이루어 육조 사후 정맥(正脈)을 이어 선법을 크게 드날린 이가 남악 회양 선사(677~744)이다.

그가 처음 육조를 배알했을 때 있었던 일을 〈선문염송설화〉 119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육조 혜능 선사가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남악 회양 선사가 대답했다. "숭산(嵩山)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어떤 한 물건이라 말하여도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수증(修證:방편을 닦아 깨닫는 것)을 필요로 하는가?"

"수증이 없지는 않지만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염되지 않는 그것이 부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그대도 이미 그렇고 나도 또한 그렇다."

이 이야기는 후에 '남악설사일물(南嶽說似一物)'이라는 말로 널리 알려졌다.

선사(禪師)들의 질문을 직설(直說)이라고 한다. 인사하러 온 사람에게 대뜸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고 묻는 것은 예의범절과 상관없이 깨달음의 본성을 직시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의심 덩어리(疑團)인 화두 하나를 안겨주는 것이다.

〈선가귀감(禪家龜鑑)〉에 나오는 말에 "부처님은 활(弓)을 설하시고 조사는 줄(絃)을 설하신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곡담(曲談)과 직설(直說)을 활등과 활줄에 비유해 한 말이다. 활은 등이 굽고 줄은 곧다. 부처님 말씀은 활등과 같고 조사의 말씀은 활줄과 같다는 뜻으로 활을 설하고 줄을 설한다 한 것이다. 자상한 설명은 활등이고 격외선지는 활줄이다.

어떤 스님이 조주(趙州) 스님에게 물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如何是祖師西來意)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뜰 앞의 잣나무니라."(庭前栢樹子)

'뜰 앞의 잣나무가' 바로 활줄과 같은 격외선지(格外禪旨)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어느 선사를 찾아간 거사 한 분이 선사에게 지옥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지옥을 알고 싶은가?" "예 스님."

선사가 주장자로 거사의 이마를 한 대 때렸다. "아니, 왜 갑자기 사람을 때리십니까?"

거사가 아파서 화를 내었다. 선사가 껄껄 웃으면서 "자네에게 지옥을 가르쳐 주었네. 화를 내는 그것이 지옥일세." 묘한 뉘앙스가 남는 말이다.

남악 회양 선사의 문하에서 걸출한 선승들이 많이 배출 되었다. 마조도일에 이어 백장 회해, 황벽희운, 임제의현 등은 남악의 적손으로 중국 선종사에서 큰 산봉우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다. 남악 회양 선사의 법통을 이어 후에 임제종과 위앙종이 탄생하여 종파를 이루었다.

특히 돈오돈수(頓悟頓修)의 종지를 선양한 임제종의 가풍이 조사선(祖師禪)을 형성하고 간화선(看話禪)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선종의 5종7가 가운데 임제의 종풍이 가장 널리 드날려지게 되었다.

〈전등록〉 '남악회양전'에는 그가 제자 마조 도일 선사가 좌선에만 집착하는 것을 타이르는 말이 나온다.

"그대가 좌선(坐禪)을 배우는 것인가? 앉은뱅이 부처(坐佛)를 배우는 것인가? 만약 좌선을 배운다면 선은 앉고 눕는데 있지 않고, 만약 앉은뱅이 부처를 배운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아니다. 머무름이 없는 법(無住法)에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인연이 맞아야 도를 본다고 말해준다. 도일 선사가 물었다.

"도는 형상이 아니거늘 어떻게 본다고 합니까?"

"심지(心地) 법안(法眼)이 있으면 도를 능히 본다."

好·不好 여의면 참모습 본다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⑦ 존재의 이유

한 그루의 나무에는 나무 몸통, 나무 줄기, 나무 잎, 나무 열매가 있다. 몸통, 줄기, 잎, 열매는 모두 나무의 다른 이름이므로, 우주 일체 존재에 붙여져 있는 모든 이름은 우주의 다른 이름 즉 별칭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허공과 그 수명이 같아서 설령 육도를 끊임없이 윤회하여 각양각색 형체로 바뀌어 태어나도, 그 마음 만은 결코 생겨나지도 멸하지도 않고 불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중생은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득 미혹한 마음을 일으켜 갖가지 업을 지어 그 과보를 받으며, 본성을 잃은 채 속세의 풍류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대(四大)로 이루어진 육신은 생멸하지만, 영각(靈覺)의 성품은 생멸하지 않는다."

중생은 어째서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가? 그것은 어리석고 미혹한 업(業)을 짓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미혹한 업이란, 보는 눈과 보이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생각, 즉 6근과 6진이 다르다는 미혹한 생각으로 인해서 '부처와 중생', '생과 사', '크다 작다', '있다 없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등의 분별망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일어나는 모든 생각 자체가 이분법인 분별망념이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혹한 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들이 어떤 훌륭한 풍경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드러납니다. 그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여, 좋아하는 마음과 구하려는 마음에 가로 막히게 됩니다.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만 좋아하는 나의 생각과 느낌을 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보잘 것이 없고 아름답지 못한 풍경이나 모습을 볼 때는, 그 모습을 싫어하여 벗어나려는 마음에 가로 막혀서 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싫어하는 생각과 느낌을 보기 때문에 자신의 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다 없다',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사대(四大)의 육신은 생멸하지만, 분별이 없는 영각의 성품인 참 마음은 생멸하지 않습니다.

"자네가 지금 이 본성을 깨닫게 되니, 우리는 이를 이름 하여 장수(長壽) 또는 여래무량(如來無量) 혹은 본공부동성(本空不動性)이라고 일컫는다. 과거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은 오직 이 성품을 도(道)라 하여 깨달았던 것이다. 지금 자네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작용은 자네의 본성 또는 본심이라고 이름 하는 것인데, 이 마음을 떠나 따로이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견문각지(見聞覺知)의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을 하는 것은 이 마음입니다. 5온의 색, 수, 상 행, 식에서 색과 수는 견문에 해당하고, 상과 행은 느낌에 해당하며 식은 앎과 같은 뜻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5온이 공하고 무(無)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5온이 본래 이 마음의 별칭이므로 '공하고 없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5온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5온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은 없는 것도 아니므로 5온이 마음이고, 마음이 5온이기 때문에 공한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응무소주(應無所住) 이생기심(而生其心)이니라. 마땅히 머물지 않으면 그 마음이 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불문하고 우리들이 일으키는 생각은 스스로 일어 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오직 대상에 의지해서 일어나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눈으로 보고, 보는 것이 눈이며, 스마트폰을 본다고 하여, 6근의 작용이 모두 이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보고, 보는 것이 눈이며,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실은 마음이 보고, 보는 것이 마음이며,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 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범패·작법무·의식과정 학인모집

▼ 아래와 같이 제15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기초범패-소리과정**(1년 과정 - 매주 목요일) : (오후 2시 ~ 3시 10분) 기본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천도재·장엄 및 제사 준비 등 전 과정

■ **기초작법-무용과정**(1년 과정 - 매주 목요일) : (오후 3시 30분 ~ 5시)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 **전문과정**(매주 수요일) : (오후 2시 ~ 4시) 기초과정 수료자(동 자격을 갖춘 분) - 영산재 전 과정 소리 및 작법무(바라무·나비무), 화청(회심곡)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전문과정 - 2017년 3월 15일(수요일) 오후 2시**
  기초과정 - 2017년 3월 16일(목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7년 2월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인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349-6)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2호
전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불교 철학 Essay
붓다 찾는 천로역정

깨달음와 자비, 함께 굴러가는 法輪

⑤ 자비의 꽃 피는 연기의 밭을

붓다의 연기법에서 불교의 자비 사상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 이 모든 존재는 시방삼세 존재자들의 상호적인 관계에서 나온 선물이다. 따라서 연기에 대한 깨달음은 자신의 존재와 삶이 우주적 연쇄의 존재가 주는 선물임을 깨닫고 다른 존재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비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사랑을 다른 형태의 모든 존재에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래즐로의 '자연시스템에 대한 존경(reverence for natural system)'과 마찬가지로 자비는 다른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에 열려 있다.

이런 우주적인 자비 구현의 모습은 초기 불교의 〈본생경(本生經)〉에서부터 대승불교의 보살정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촘촘히 표현되고 있다. 자비 구현은 이론과 관념으로는 어렵지 않게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궁극적으로 자비 없는 깨달음은 없으며, 자비 없는 불교는 없다고 본다.

한국불교계에서는 깨달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다. 깨달음에 대한 논의는 많은 경에도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여러 경전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깨달음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즉, △1단계 인지적(認知的) 깨달음 △2단계 수행적(修行的) 깨달음 △3단계 전일적(全一的) 깨달음으로 유형화해 보았다.

1단계 깨달음은 붓다의 핵심사상, 즉 연기법과 무아와 공사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깨달음의 첫 걸음이다. 2단계 깨달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가슴으로 품고 느끼면서 자비를 실천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와 의지를 행동으로 연결해 가는 단계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 바로 수행적 깨달음이라고 생각한다.

수행적 깨달음은 자비의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료를 주고 가꾸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계이다. 자비실천의 수행이 바로 열반으로 가는 길이며, 이것이 '탐진치貪瞋痴) 삼독(三毒)'을 녹이고 없애는 길이다. 아무리 선정의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삼독을 녹여 내지 못하면 사상누각이리라. 이 자비 수행은 '바로 여기'의 생활 마당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마지막 3단계 깨달음은 열반의 경지에 이른 깨달음이다. 이 단계는 탐진치에서 해방되어 대자유인으로서 높고 깊고 넓은 무량자비심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즉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3단계의 전일적 깨달음이 보통 불자들에게 깨달음의 표상으로 제시된다면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무엇으로 보일 수 있다. 동시에 불교가 현실과 먼 사념적인 종교로 평가 받을 위험성이 있다. 직관적인 사유의 성격인 선불교에서 그 위험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불교가 겪는 깨달음의 논쟁도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우리가 불자로서 바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2단계 깨달음, 즉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적 깨달음이라고 본다.

오늘날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현상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도록 아수라적이다. 개인의 도덕성 회복에서부터 사회구조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목청을 돋우고 있으나, 마치 찢어진 거미줄을 손가락으로 수리하려는 것과 같은 절망감이 든다. 공동체 붕괴, 종교와 인종의 갈등, 사회 양극화 등 사회 문제에서부터, 생태계의 교란과 파괴, 핵무기의 확산 등 인류의 생존과 지구별의 위기가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지구촌의 아수라적인 현실은 인간이 탐진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불교의 역할과 기능이 자명해진다. 붓다 다르마의 목적은 모든 존재가 행복하게 살게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 즉 '정토'를 만드는 것이다. 상구보리를 통해 지극한 행복을 얻고, 하화중생을 통해 바른 정토를 만드는 것이리라.

붓다의 연기법에서 생성된 윤리를 조안나 메이시(Joanna Macy)는 그의 저서 〈Mutual Causality in Buddhism & General Systems Theory〉에서 '상호윤리'(Mutual Ethics)라고 표현하고 있다. 상호윤리는 모든 존재와 현상을 의존적 상호 발생으로 보고 출발한다. 자아는 자신이 경험하는 세계와 경험을 해석하는 코드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상호윤리의 규범과 가치들은 개인적인 행복과 사회적인 변화 사이에 깊은 상호 의존관계가 있음을 말한다. 이에 상호윤리는 다른 존재에 대한 깊은 배려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확장하는 것이다.

> **깨달음에서 자비가 나오고**
> **자비에서 깨달음이 나온다**
> **자비가 경시되는 불교 없다**
> **불교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 **자비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붓다의 자비정신을 윤리이론으로 정립한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1906~1995)는 타자의 존재 자체를 '윤리'라고 생각한다. 타자 덕분에 나라는 존재가 성립한다고 보면서 '타자 윤리학'을 주장한다. 그의 타자 개념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현대인에게 자아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의 시각으로 생각할 것을 제안했다. 붓다의 연기론에서 나온 자비정신을 그대로 재현한 윤리이론이다.

이렇게 불교는 자비라는 큰 그릇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처럼 큰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강물을 뜰 생각은 안 하고 그릇 자랑만 하고 있지 않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제 자비의 규범적 명제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 현실에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가에 대한 진지하고 치열한 자세가 필요하다.

불교의 실천윤리로서 보살행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한국 불교는 상구보리를 먼저 이루고 하화중생 하는 보살행을 뒤로 미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고승들은 많은데 왜 큰 보살행을 한 스님들은 많지 않은가?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랑의 실천자를 왜 불교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가? 이에 대한 깊은 자성과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비의 구현은 공감과 연민의 마음과 함께 '지혜'의 힘도 많이 필요하다. 이 지혜의 힘은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까지 포함하는 종합 학문적 식견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즉 현대사회에서 작동할 자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섭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자비라는 중심 가치를 두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가치 위계에 대한 틀을 마련하고, 이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교한 이론과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 사회 윤리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자비의 구체화 작업과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자비 정의론', '자비 교육론', '자비 윤리론', '자비 정치론', '자비 복지론' 등 자비의 큰 그릇으로 연구하고 실천할 과제가 너무나 많다.

깨달음에서 자비가 나오고, 자비에서 깨달음이 나온다. 그래서 반야와 자비, 상구보리와 하화중생, 자아완성과 정토건설은 함께 굴러가는 바퀴가 아닌가. 깨달음만 강조되고 자비가 경시되는 불교는 없다. 오히려 한국불교의 현실에서는 깨달음보다는 자비가 강조되어야 한다. 불교가 현대사회와 인간 삶의 현장에서 생동감 있고 효율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비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근래에 '지구촌 공생회' 등 자비를 국내외적으로 실천하는 다양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자비 불교의 앞날에 빛이 보인다.

붓다는 고해에서 허우적거리는 중생을 위해 수행의 길을 걸었고 전법의 길을 걸었다. 붓다의 긴 여정은 대자대비의 길이다. 자비 없는 깨달음은 없다. 자비 없는 수행은 없다. 그래서 자비 없는 불교는 없다. 이제 나는 기복의 단계를 넘어 "나도 당신처럼 되게 해 주세요"하며 자비 수행의 관음기도를 해야겠다. 기복을 넘어 복을 짓는 작복의 관음 염송을 해야겠다. 그 기도로 나의 아뢰야식에 웅크리고 있는 업장을 녹이고, 이를 회향(回向)하여 타자의 업을 녹이고, 그러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것이다. 이러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것은 분명하리라. TV 다큐 '차마고도'에서 오체투지하며 라사의 성지를 찾아 가는 순례자들이 '지구의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것이 바로 붓다 다르마를 실천하는 자비 수행일 것이다.


물가에 놓여있는 나무배. 우리는 연기의 강가에서 이를 건너갈 뗏목을 찾고 있다. 언젠가는 버려야할 뗏목이지만.

글을 끝내면서

이제 여정을 마칠 때가 됐다. 존 버니언의 〈천로역정〉은 '크리스천'이라는 기독교 신자가 무거운 짐(죄)을 지고 성서 한권을 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찾아 '하늘의 도시'로 가는 내용이다. 크리스천은 여행 도중 '낙담의 늪', '죽음의 계곡', '허영의 거리' 등을 거치면서 천신만고 끝에 하늘의 도시에 도착한다. 그런데 나는 붓다 다르마를 따르는 수많은 도반의 도움을 받아 여기 강가에 왔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초등학교 시절 소풍가서 보물찾기 할 때처럼 두근거림의 여정이다. 존 버니언은 크리스천의 꿈에 의탁하여 소설을 전개해 나갔는데 나도 꿈같은 소리를 하면서 글을 마치고 싶다.

강가에 와 보니 여러 종류의 뗏목이 있다. 뗏목은 '붓다 동산'에서 조림된 나무를 재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노약자, 장애인, 운동 신경이 발달한 사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 등 다양한 용도의 뗏목이 있다. 서양 사람을 위한 새로운 뗏목도 만들고 있고, 노 젓는 방법을 붓다의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다. 이 강가가 바로 연기의 광장이다. 연기의 다양한 차원이 이 강가에 전개되고 있다. 2500년의 긴 불교 역사가 이 강가에 펼쳐지고 있다. 나는 이 장엄한 현장에서 나의 뗏목을 찾고 있다. 결국 버려야 할 뗏목이지만. 이 강을 건너 뗏목을 버리고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으로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 때는 가는 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콘즈는 현대사회와 문명이 불교에게 큰 도전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에 대한 새로운 응전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교의를 해석하는데 상당한 '적응'이 필요하며, 나아가 일대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전환이 세계 여러 곳에서 움트고 있다는 것이다. 붓다의 다르마는 항상 여실(如實)하면서 대상과 시절에 따라 연기한다. 붓다 다르마가 새로운 시절을 맞아 장엄한 모습으로 그 빛을 발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제 강을 건너 저 언덕으로 가야 한다. 탐진치(耽瞋痴) 삼독(三毒)의 파고를 넘어 뗏목이 전복되거나 좌초되지 않도록 항해해야 한다. 가슴에 정(釘)을 박는 아픔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하고 채찍질해야 하는데 그 길이 아득하다. 이제 경을 읽어야지. 강을 건너는데 흥을 돋우는 신나는 뱃노래가 되길 바라면서.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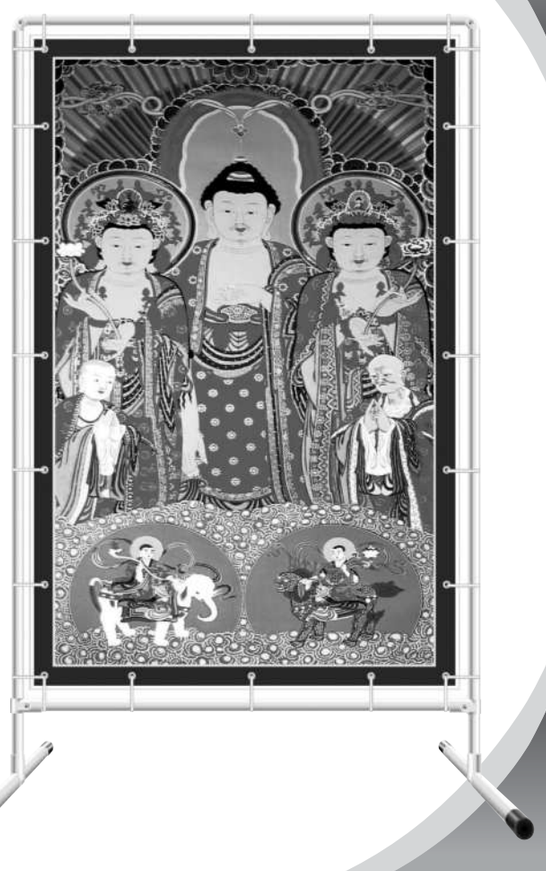


방영준(성신여대 명예교수)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품 설 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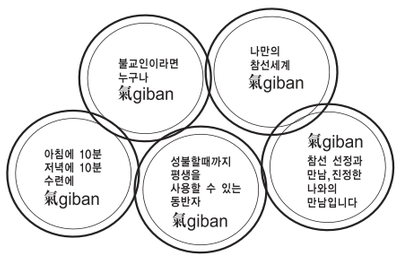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해운정사 "생명 위협하는 교통대란 NO!"

사찰 앞 고층 아파트 건립 교통대란 등 우려 논란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주석 사찰인 해운정사 앞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에 지상 39층 높이 아파트 3,030가구가 들어선다. 하지만 지자체 측은 진입 도로 확충 계획이 없어 교통대란 및 수행환경 훼손이 우려돼 논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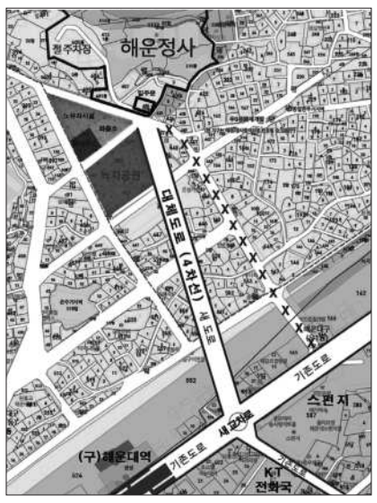
해운정사는 2월 8일 해운정사 경내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아파트 건립은 교통 대란을 유발할 뿐 아니라 주민 의사를 무시한 투기성 고층 아파트로, 조망권과 수행환경을 크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해운정사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재개발은 특정 집단 이익만을 추구하는 투기 활동임을 강조했다.

해운정사 총무 능원 스님은 "현재 조합안에 따라 좁은 2차선 기존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과 1만3000여 신도들이 불편할 뿐 아니라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일이다. 수많은 공사 차량이 드나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30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게 교통 대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능원 스님은 "기존 도로로 접근하기 전 만나는 삼거리를 사거리 교차로로 만들고, 새 도로 4차선을 만드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4차선 도로는 그동안 겪어 왔던 교통 불편을 해소해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 경제적 효과도 뛰어나다는 입장이다.


해운정사 총무 능원 스님이 2월 8일 경내에서 공사지역을 바라보며 건설 공사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새 교차로 개설안. 해운정사는 2차선 기존도로(사진 X표시)가 아닌 4차선 진입로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도로 폐쇄, 4차선 새도로 답"
사찰 조망·일조권 보장 요구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주석처
1만3000여 신도 불편 초래 우려

스님은 "새 도로는 해운대 지하철역 사거리 바로 옆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사람들 왕래가 월등히 좋아지고 해운대 시장 방면의 도로와도 연계돼 지역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계획안을 수많은 주민들과 지역 발전 편의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수정, 재개발 사업이 투기가 아닌 주민들과 신도들 삶에 도움 될 수 있길 바란다는 취지다.

특히 해운정사는 수행환경수호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능원 스님은 "해운정사는 한국 불교 최고 어른이신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대선사께서 주석하시는 종단 주요 사찰이며, 다수의 시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이라며 "전국서 모여든 스님들과 1만3,000여 신도들이 수행 및 신행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계각층 인사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부산 경남 지역 대표사찰"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스님은 "향후 수년 동안 공사 기간 내내 발생할 먼지와 소음은 물론, 거대한 병풍처럼 막아선 아파트로 인해 하루 종일 그림자가 지는 등 수행환경 훼손이 심각하다"고 대책을 강구했다.

이에 대해 주택재개발조합은 "기존 진입도로 대신 교차로에서 해운정사까지 직선도로를 개설하는 안은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 조합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밝힌 상황이다.

조합 측은 "해운정사 일조권과 조망권을 고려해 사찰 바로 앞 2개 동 건물은 39층에서 20층으로 낮추기로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한국·대만, 대학생들 불심으로 '한 마음'

홍법사, 제7회 한국·대만 대학생 문화교류 열어

한국과 대만 대학생들이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교류하며 우정을 나눴다.

2월 2~12일 대만 불광대와 남화대 학생 30여명이 한국을 방문했다.〈사진〉 홍법사(주지 심산)는 국제불광회 한국부산협회를 담당하며 매년 대만 대학생들을 초대하고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한국 대학생 불자들 간 교류의 장으로 확대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해에는 부산대, 동아대, 동국대 경주 캠퍼스, 계명대 등 19명의 한국 대학생들이 동참했다.

학생들은 홍법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한 사찰 문화 체험과 전통 놀이로 즐거움을 더했으며 해인사, 범어사, 불국사, 석굴암 등 사찰 순례로 전통 불교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산 스님은 "대만 학생들에게 한국 불교를 알리는 기회와 더불어 문화교류, 그리고 한국 대학생들과의 우정을 잇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젊은 학생들을 위한 국제 교류와 문화 포교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조계종부산聯, 동안거 재가안거 해제

"재가 수행문화 정착 위한 초석으로"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가 2월 8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병신년 동안거 재가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다.〈사진〉 90일 간 수행정진을 통해 성장을 발원한 불자들은 해제법회를 맞아 자신을 돌아보고 도반들의 격려 속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은 '행복을 불러오는 삶에 대한 8가지 깨달음'이란 제목으로 법문하며 참가자들에게 수행의 결과로 행복을 얻기를 당부했다.

회장 심산 스님은 "현재 '재가 안거'란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 단계를 넘어 내용면에서 더욱 충실하고 뿌리 깊게 발전시켜야한다"며 "재가안거는 조계종 신행문화를 바꾸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석자 모두 이 수행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병신년 동안거 재가안거에는 홍법사를 비롯한 16개 사찰 및 단체가 참여했으며 2,000여명의 재가 불자들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기장 장안사, 설법전 불사 1000일 기도

"창건주 원효 대사 뜻 펼칠 것"

천년고찰이자 신라 원효 대사가 창건한 부산 기장 장안사(주지 정오)가 설법전을 새롭게 불사한다. 앞으로 원효 대사의 창건정신인 화쟁 사상을 널리 알리고, 지역민들의 기도처는 물론 '정법이 살아 숨 쉬는 도량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안사는 2월 20일 오전 10시 경내 대웅전에서 '설법전 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1000일 다라니 관음기도'를 입재한다. 법사로 前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이 참석해 불사를 축하하고 법문을 통해 격려한다.

장안사는 앞으로 33개월 간 관음재일 마다 정기 관음기도로 정진한다. 아울러 불자들과 함께 전국의 33관음 성지를 순례하고 신심을 고취시키겠단 의지다.

하성미 기자

"모든 대구 지역민에 佛法 전파할 것"

2월 1일 대구 대성사 16대 주지 영제 스님 취임

천태종 대구 대성사는 2월 1일 제15대 주지 화산 스님의 이임식과 16대 주지 영제 스님의 진산식을 봉행했다.〈사진〉

육법공양과 함께 개식선언으로 시작된 법요식서 화산 스님은 "이 자리에 동참한 사부대중 모두는 부처님 마음씨를 닮은 착한 불자"라며 "새로 주석한 영제 스님께 더 큰 마음 내어주길 바란다. 매 순간 소중한 인연으로 만들기 위해선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고 떠나는 것 또한 아름답다"고 전했다.

영제 스님은 "화산 스님의 노고를 치하하고, 모든 대구 지역민이 부처님을 법으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화롭고 활기찬 대성사 공동체를 다함께 만들어가기 위하여 소임을 열심히 살겠다"고 인사했다.



천태종 원로위원 도산 스님(대구 동대사)은 "화산 스님의 이임과 영제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정유년 새해를 맞아 부지런히 수행하는 천태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구불교총연합회 이사장 성문 스님은 "대성사는 애국불교·생활불교·대중불교의 원력으로 50여년을 이어온 도심포교 도량이다. 새로 부임하신 영제 스님께서는 대구불교총연합회와 대구지역 불교 발전을 위하여 큰 힘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천태종 원로위원 도산 스님, 대구불교총연합회 이사장 성문 스님,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장 정효 정사, 대구불교사원연합회장 선지 스님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일 스님, 류병선 대구불교총연합회 신도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우동기 대구광역시 교육감, 이태훈 대구달서구청장, 윤수현 대성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새로 부임한 주지 영제 스님은 1975년 대충 대종사를 은사로 구인사에 출가, 평창 대흥사 주지를 시작으로 부산 삼양사·서울 관문사·대전 광수사 등 전국 천태종 주요사찰 주지와 제12·13대 천태종 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이웃에 자비 나누니 절로 '立春大吉'

광주 불교계, 입춘 맞아 소외계층에 쌀 전달

입춘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불자들의 정성이 모였다.

광주 지산동 **연화사**(주지 명신)는 2월 5일 광주전남지역 불교공동모금단체 '빛고을나눔나무'에 자비의 쌀 2,000kg을 전달했다.〈사진〉 자비의 쌀은 무료어르신식당을 운영 중인 자비신행회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 맑고향기롭게 광주본부, 광주외국인복지센터 등 불교 복지단체에 전달했다.

광산구 **비전사**(주지 보혜)도 2월 4일 입춘기도를 맞아 신도들이 기도비로 마련한 쌀 2,000kg을 월곡2동사무소 등에 전달했다. 또한 예년과 같이 10여 명의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입학금을 지급했다.



무등산 **동원사**(주지 지장)는 동구지역 양로원, 동구동사무소에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자비신행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등에 쌀 1,000kg을 2월 10일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7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

신입 및 수료 과정					
모 집		교수내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 1시 ~ 7시	30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 1시 ~ 7시	편입생 약간명
3학년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시 ~ 7시	편입생 약간명
4학년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 1시 ~ 7시	편입생 약간명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화	오후 1시 ~ 4시	*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 응시자격
❶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❷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❸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1부,
주민등록등본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 1부(해당자)
❹ **전형일정** : **2017년 1월 16일 ~ 2월 17일**
❺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❻ **특 전**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❼ **입학문의** :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모든 존재는 변화하기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네. 일어남과 사라짐이 사라진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네.

– 열반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 정신분열, 정신이상,
빙의, 환청, 환시, 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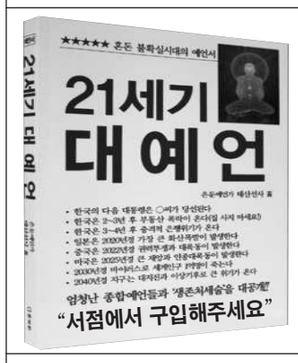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 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척추교정

비법전수
누구든지 가능
하루교육완성
출장가능
사찰경제에 큰 도움
010-3055-9000

관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배워야 산다

비법+명리+조상풀이법
포교당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 / 철학관 개업하실 분
/ 무속제자, 신선생 /
무한 책임지도 / 사주풀이
전화 상담 중
010-4540-0061
지리산 현담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노인 요양 복지시설 사업에 뜻이 있으신 분을 기다립니다.

파주시에 있는사찰내 부지
약 1000평 활용 가능함.
꼭 뜻이 있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010-4718-4123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빙의.퇴마.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세종시 소정면 운당 (대승암)
010-5269-4168

양평 암요양원 건강힐링캠프

공기 맑은 산, 황토집에서
건강을 / 체질음식, 천연조
미료, 유기농, 죽염식단으로
원장님 수시무료
건강상담, 체질감별.
네이버에서 양평 암요양원을 검색
010-9237-8599

벼락맞은 대추나무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소장하면요기장애가소멸되고
재수대통이뤄집니다. 벼락맞은
대추나무로 각종 염주, 도장,
차 열쇠고리를 제작합니다
017-257-6795 칠광

모십니다

위빠사나 명상 같이
지도하실 분을 모십니다
(스님 또는 재가자)
02-992-0110

토굴에 사실 스님 혹은 재가자 모십니다

055-271-9141

비구니 스님 모심

(사찰운영 맡김)
1. 인터넷 (1:1)포교
2. 추천서 (2人)
3. 면담 후
010-2159-0988 김탁

운전기사 채용

60대 전후, 절에서 숙식
하고 수행하면서 남은
여생을 같이 보내실 분
010-8640-0108

기도할 도량을 찾습니다

(비구 입니다)
010-3288-9406

문두루 기도비법?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10-3797-0068

'성명학'과 '도장'으로

월300~500만원 수입을 창출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연락 주세요.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가능
수강료 : 직접면담 후 결정
강의 : 덕인성명학 연구원 (원장 이상민)
010-4686-3588, 02-562-835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역 2호선 5번출구) 역삼하이츠 905호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전문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웅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포교원 인수 하실 분

– 비구, 비구니스님
– 초기경전 강의 및 수행지도 가능하신 분
– 사천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에게 상응할 수 있는 학식과 지식을 갖추신 분
– 반드시 보문정사 주지스님과 면담 후 결정됨
– 소재지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137-8번지 2층 보문정사 포교원
연락처 : 총무 010-5654-2148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협(정보석)

육임 직접강의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등을 직접 강의합니다.

육임의 대가 운암스님께서 1:1 직접 강의로 수강 완료 후 즉시 개별 상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 교 수 : 법연정사 운암스님
- 과 목 :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명리, 성명학
- 강의시간 : 1년 과정 (매주 5시간 강의)
- 수 강 료 : 대육임, 육임금구결, 월령도 } 각 60만원
주역, 명리, 성명학 – 각 40만원
- 강의장소 : 법연정사 (경기 구리시 교문동 233-15 2층)
- 연 락 처 : 031)554-3336 010-5931-3319

법연정사 운암 합장

2017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9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8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9기 수강생부터는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도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7년 3월 14일 ~ 9월 26일까지
②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7년 3월 14일(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해탈을 이루지 못한다면 끝내 번뇌를 끊을 수 없고 모든 번뇌를 끊지 못하면 진실한 지혜가 없다.

- 달마다라선경 -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직접 방문을 통한 정확한 권리분석 및 상담
- 전국 매물 수백건 보유/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70-8145-9393

예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인법당. 요사채 94㎡, 토지 443㎡
- 마을 사찰. 운영 잘되고 위치 좋음. 주차 가능함
- 양도가액 : 1억1천만원(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 (대표 : 이규철)

■ 비밀보장. 방문접수.전국사찰. 암자 급히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 (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 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60평 ◎ 면적 : 50평
◎ 법당 : 3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0평 ◎ 요사 : 30평
◎ 양도가 : 7억 ◎ 양도가 : 6억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 총부지 : 183평
- 건물 : 60평, 법당, 요사채(방 4개), 화장실2개
- 정원,주차장 위치 좋은 암자
- 양도 : 몽땅 2억 2천

010-2595-7752 전무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504호(만덕동3002 다산타워)

사찰(급)안내

- 충북 단양 암자 양도
- 토지 4400㎡. 건물면적 76㎡
- 주변산,민가없음,앞은 확 트임
- 포장도로 접, 조용한 암자나 토굴
- 가액 : 2억 8천만원(융자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서울에서 접수. 상담,안내가능합니다

(원주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신정시장 부근
- 평수 30평, 2종독채, 큰방3개, 거실, 욕실주방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 석가모니, 약사여래, 관세음보살
-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 가액 : 전세 1,0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금액은 1000만원

010-9902-396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기장
- 평수 40평, 3층 건물중 2층
- 교통 위치좋음
- 스님 건강상
- 가액 : 보 2,000만원 월 35만원 시설일체 500만원

010-8517-2357

경기도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 주택,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내 상가
- 2층 106㎡(약 32평)
- 방 2실 법당 거실 주방등
- 가액 : 보 1000만, 월 55만 시설비 500만

010-3426-9393 (포교원전문)

삼 보 사 찰 안 내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 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성지 금정산 등산로접
- 토지: 600여평 점유, 해발300m
- 건물: 법당10여평,창건80년
- 주지실, 요사채(건축물 대장)
- 기적같은 산신기도 암자
- 약수터, 주말 등산객 많음
- 가액 : 몽땅 2억 5천만원

010-9906-3631 혜관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504호(만덕동30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요지
- 1층 공양간 35평
  2층 법당 50평
- 가액 : 전 1,500만, 월 80만 시설비 절충

010-3112-0480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IC에서 10분거리
- 건물 3동, 대지 197평
- 법당, 삼존불 외 소불 150불
- 방 4개, 공양간, 화장실
- 가액 : 1억 4천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있음)
- 몸만 오시면 됨

010-3753-7844

사찰 하실 분

- 위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부여 IC 5분거리
- 대지 200평
- 건평 77평(등기면적) (40평 별도 공간)
- 임야 155평 산속별장(다용도 사용가능)
- 가액 : 3억 7천

010-5398-2523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 동해 앞바다 (전망좋음)
- 해수관음 도량(7자)
- 대지 230평
- 1층 요사채, 2층법당
- 가액 : 몽땅 4억 3천
- 몸만 오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절

010-7441-234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소재
- 부지 : 12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청기와 단청)
- 요사채: 35평(2층)
- 종무소 : 35평 (1층, 공양간포함)
- 가액 : 7억
- 특징 : 대덕산자락에 위치한 도심포교도량임

- 위치 : 경산시(갓바위 입구)
- 부지 : 35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2층, 목조, 단청)
- 요사채: 30평(1층))
- 상담소 : 25평(별채)
- 가액 : 6억원
- 특징: 계곡을 낀 대로변 (8차선)에 위치한 사찰임

좋은인연 될 수 있다 동진불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전국소재사찰 및 절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 평수 : 40평(3층 건물 2층)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산신, 칠성, 범종, 108소불,
- 큰방1,넓은공양실, 실내화장실, 냉난방시설, 주차하기 좋음 집기일체, 최고시설
- 가액: 보증금 500 월38만원 시설비 2,300만원

010-3152-2732

수양관 (암자) 안내

- 위치 : 대전시내 보문산
- 대지 : 98평, 건물 40평
- 약수 우물 있고, 국유지 텃밭 있음
- 대학병원 5분, 역전 10분거리
- 가액: 2억 7천만원 (전 월세 가능)

010-5407-80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 (댐 부근)
- 총 730평, 법당 50평 중 방2, 화장실1, 주방1, 요사채 방사4개, 부엌1,화장실2, 욕실1
- 산신각, 용왕당, 독성각, 할매당 각1
- Y자형 계곡, 사시사철 계곡물 졸졸, 계곡에 가재, 갈겨니(피라미), 다슬기 바글바글
- 앞뒤 산에 송이 버섯 다수, 법당은 동향 요사채는 정남향
- 서출동향수 완벽, 대형버스 진입
- 종찰도 들어가야할 입장이기에 부득이 안내 합니다
- 가액 : 3억 5천만원 (절충사절)

010-4466-3575 (주인 직)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만덕
- 지상2층, 법당 100평, 방3, 공양실1, 주방1, 화장실1, 유료주차장, 건물주인직접 운영
- 법당내 수미단, 신중단, 산신단, 칠성단, 설법단 설법상 각단 조각으로 단을 짬, 총1억 소요
- 부득이 옮겨야 하는 입장 때문에 싸게 드립니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70만원 (주인 불자임) 건물내 집기류 총 2천만원
- 급해서 싸게 드립니다.(절충은 안됩니다)

010-4466-3575

도심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대지 : 69평
- 1층: 27평(방3칸, 공양실, 요사) 2층: 25평, 법당, 스님 친견실
- 삼존불, 각단 탱화, 법당시설 완벽
- 종무소 3평, 도시가스, 주차가능
- 가액 : 3억 9천

010-7311-533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78-2 (성내리 35-4)
- 대지 60평, 건평 60평(2층건물에 1층)
- 마당 60평(잔디), 방4개(큰방2, 보통2)
- 주위에 무료공용주차장, 넓은 수세식 화장실
- 가액 : 보 500만, 월50만원 시설비 500만 별도

010-6667-8819

공기맑은산 황토 통나무 건물 안내

- 위치 : 양평
- 요양원 운영하고, 고시원, 절운영 하실분, 평생 직업
- 대지 333평, 실평수 400평, 건평 3동 142평 실평수 200평
- 산책, 등산, 교통 최고, 142m 암반수, 2년된 새집
- 가액 : 13억(조절가능, 주인직접)

010-9237-859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여산면 태성화산길 75
- 대 266평, 법당 21평, 요사채 22평(방3, 화 2)
- 종교법인등록, 집기 및 시설 양도
- 주차장 완비, 남향(탁 트인 전망)
- 가액 : 1억 6천만원

010-9918-7937

암 자 안 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 대지 100평, 아파트 대단지 뒷편
- 산과 계곡이 있는 절
- 오존불, 각단 탱화 법당 완벽
- 방4개, 다용도 거실 큼
- 가액 : 전세 500, 월 30만원 시설비 1,500만원 가격 절충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2565-72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 평수 : 약 50평 3층
- 방2, 부엌 몸만 오시면 됨 (본사 근무관계로)
- 가액 : 보 1,000만, 월 70만원 시설비(약간 절충)

010-4541-114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입구
- 평수 : 40평
- 가액 : 전세 보증금 2천만원 (임대료/월2십만원) 시설비. 방문 후 상담
- 시설 : 특급

010-9143-784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잔디. 조경전망 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 가액 : 5억 2천만원 대출 2억5천안고 양도2억7천 (현시세땅값 7억5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안내

010-5019-538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
- 대지 1,000평
- 전 1,300평, 임야 1,000평
- 법당 35평, 종각, 산신각, 각 3평씩
- 주지실 14평, 요사채 60평 주택 25평
- 화장실, 샤워실, 차고 25평
- 가액 : 13억

011-9324-4461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당신도 명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어주기 위해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본 책자는 초보도 만세력에서 일주만 찾으면 성격 및 당해년 운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포교를 하다보면 제가자들이 많은 것을 물어오는데 부록편에서는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우혜안 -



정가 : 90,000원
발행인 : 초암사 주지 혜안 스님
주문처 : 초암사 043-215-1569
010-9405-818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초정길 156-9)
입금계좌 : 농협 317-02-322143 (우복진)



태국 새 승왕 무니웡… 청정승풍 회복할까?

와치랄롱꼰 국왕, 2월 7일 프라마하 무니웡 승려 임명


2월 7일 태국 최고 불교지도자인 제20대 승왕으로 임명된 방콕 라자보핏 사원 주지 쏨뎃 프라마하 무니웡(89) 승려. 사진출처=pattayamail

최근까지 각종 비리로 얼룩지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온 태국불교계에 새 승왕(僧王)이 탄생하며, 청정승풍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hannel NewsAsis' 2월 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태국 최고 불교지도자인 제20대 승왕으로 방콕 라자보핏 사원 주지 쏨뎃 프라마하 무니웡(Somdet Phra Maha Muniwong · 89)이 임명됐다. 이는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추천한 5명의 승왕 후보 중 국왕 마하 와치랄롱꼰(Maha Vajiralongkorn)이 승인한 것이다. 이로써 무니웡은 약 30만 태국 승려들의 수장이 됐다.

이날 프라윳 총리는 기자들에게 "국왕의 의사에 따라 그간 공석이었던 승왕 자리에 무니웡 승려가 올랐다"며 "정치 결탁 및 부패 혐의로 얼룩졌던 태국 불교계 상황을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불교인구가 93%에 달하는 태국 불교계는 최근 4년 간 승왕의 공석 상태서 극심한 내홍을 겪어왔다. 원래 승왕은 승가최고위원회서 지명해왔지만, 승가최고위원회서 지명한 후보자들이 번번이 비리에 연루되며 지난해 12월 국가입법회의서 국왕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

특히 지난해 2월 승가최고위원회는 승왕 후보로 솜 뎃 프라마하 랏차망가라찬을 제안했다. 하지만 랏차망가라찬이 2013년부터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벤츠 등 고가의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 자질 논란이 빚어지며 태국 군부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군부는 승가최고위원회 대신 국왕에게 승왕 임명권을 부여했다.

테라바다 불교 고승으로 존경 받아

승왕대행 고가 차량 보유 논란 등 비리 속 4년간 공석이던 승왕 올라

"태국불교 혁신 계기될 것" 기대

또한 태국 최고 사원인 담마까야 주지 프라 담마차요를 비롯한 승려들의 잇따른 불법 행위도 군부가 승가최고위원회에 주어진 승왕 임명권을 철회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랏차망가라찬과 두터운 친분관계로 알려진 프라 담마차요는 지난해 6월 한화 약 470억의 돈세탁 혐의가 드러나 태국 법무부는 담마까야 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올해 1월 태국 당국은 범법을 저지른 파계승을 단속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겠다 밝히며 태국 불교 혁신에 나선 바 있다.

한편 무니웡 승려가 새 승왕으로 임명된 데 대해 승가최고위원회는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당국 관계자 및 전문가들만이 향후 태국 불교계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 칸 유잉 시암정보국 상무이사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서 "무니웡 새 승왕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태국 불교계를 이끌어나갈 것"이라 밝혔으며, 한 정치분석가는 'Channel NewsAsis'를 통해 "'담마까야파'로 대표됐던 태국불교계가 타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를 전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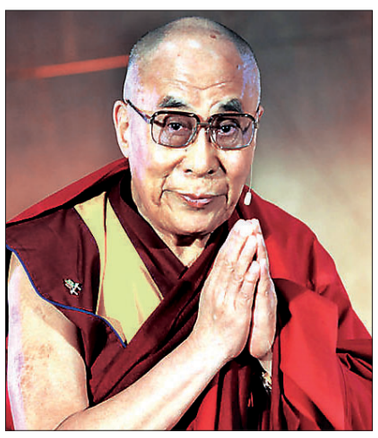
새 승왕 쏨뎃 프라마하 무니웡은 1927년 6월 26일 방콕 서쪽의 랏차부리서 출생, 방콕 마하 마쿳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인도 마나라스 힌두대학서 역사 · 고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테라바다 불교의 고승으로 호주 등 해외서 포교를 펼치며 태국 불교계에 큰 공을 세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승왕 즉위식은 전통에 따라 2월 12일 국왕 주재로 방콕 에메랄드 사원서 열렸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美 틸러슨 국무장관, 달라이라마 회동 가능성 내비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사진출처=abcnews


달라이 라마. 사진출처=Daily Express

"달라이라마 만날 건가" 질문에 "당연하다"

트럼프 '하나의 중국' 흔들기 이어 미중관계 악화 우려

달라이 라마에 대한 중국의 견제는 언제쯤 그칠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꾸려진 후 첫 국무장관으로 취임한 렉스 틸러슨이 달라이 라마와 회동을 시사한 것 관련 중국이 강한 반발을 표했다. 중국은 달라이 라마를 '반(反) 중국 분리주의 인사'로 규정하고 달라이 라마와 접촉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해왔다.

2월 4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틸러슨 국무장관은 국회 인준 과정서 상원 외교위원회가 '시짱(西藏; 티베트) 문제'를 질의하자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분이란 입장을 고수하지만,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 밝혔다.

또한 달라이 라마와 회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한 뒤 중국 정부와 티베트 망명정부 간 대화도 적극 주선할 것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타이완 문제로 '하나의 중국' 원칙 흔들기에 나섰다. 또한 무역 불균형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으로 미중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더해 틸러슨 국무장관이 달라이 라마와 회동 가능성을 내비추자 중국 정부는 불편한 내색을 표했다.

주웨이췬 (朱維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민종종교위원회 주임은 "티베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중미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며 "티베트를 중국의 일부분으로 인정한다면서 달라이라마를 금전적 · 여론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모순이다. 미국 정부의 이런 행동은 중미관계에 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이날 캘리포이나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서 올 6월 열리는 졸업식에 달라이 라마를 초청했단 소식과 함께 현지 중국 유학생 단체가 반대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달라이 라마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 1월 18일 "트럼프 당선인이 책임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 본다"며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몽골 방문 당시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후 적절한 시점에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만남을 요청했다.

박아름 기자

미얀마 불교계 420만錠 은폐 승려 발각

빈곤율 높은 라카인州 최근 마약 거래 급증

높아지는 마약 밀매 범죄율에 승려까지 가담하자 미얀마 경찰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국 일간지 'the guardian'은 2월 6일(현지시간) 미얀마 라카인주 지역 경찰들의 말을 빌려 "지난 5일 마웅다우시 슈바호 마을서 40만 정이 넘는 메스암페타민을 차에 싣고 운전하던 아르사라 승려를 현장서 체포, 승려의 근거지인 사찰을 조사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420만정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전했다.

캬우 먀 윈 경찰청장은 "조사 결과 아르사라 승려는 지난해 마약류 소지로 구금된 경력이 있었다"며 "늘어나는 마약류 거래의 마수가 승려에게까지 뻗쳤다"고 말했다.

라카인주 지역 언론이 인용한 경찰 당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같은 지역서 두 남성이 메스암페타민 620만 정을 밀매한 혐의로 붙잡힌 바 있다. 특히 라카인주서 마약 밀매가 급증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빈곤율과 상관관계가 있다.

캬우 먀 윈 경찰청장은 "라카인주는 방글라데쉬와 인접한 지역으로, 난민인 로힝야족이 100만 명정도 밀집해 미얀마서 최고 가난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생업을 위한 불법 마약밀매가 성행한 한편 'the guardian'은 미얀마가 전 세계 마약류 제조량 상위에 속하는 나라로, 메타암페타민을 비롯해 아편 · 대마초의 상당량을 생산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2015년 5,000만 정 분량의 마약류 압수에 이어 지난해에만 9,800만 정의 마약류 알약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마약 관련 기소도 2015년에 비해 50% 늘어난 1만3,500건을 기록한 바 있다.

이승희 기자


중국불교연합은 음력 설 첫 분향자에게 행운이 깃든다는 중국 내 미신이 불교전통이 아님을 단호히 주장했다. 사진출처=bbc.com

中불교, 음력설 분향 목메는 이들 '일침'

첫 분향자 되기 위해 베이징 옹화궁 7만 명 운집

중국불교연합이 불교전통과 동떨어진 기복 신앙적 분향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홍콩매체 'south china morning post(이하 SCMP)'는 1월 29일(현지시간) "음력 1일(28일) 불전에 첫 향을 피우려 중국 전역서 몰려든 인파 7만 명이 베이징 옹화궁(雍和宮)에 운집했다. 이들에겐 음력설에 가장 먼저 분향을 하는 사람에게 1년 동안 대운이 따른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중국불교연합은 불교와 전혀 상관없는 풍습이라고 못 박았다"고 보도했다.

중국불교연합은 "음력 첫날 처음으로 사원에 분향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깃든다는 생각은 명백한 미신"이라며 "분향 순서가 빠르거나 크고 비싼 향을 피운다고 특별히 영적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특히 기복을 바라고 사람들이 며칠씩 길에 서서 밤을 새거나, 안전선 없이 몰려든 7만 명을 제어하기 위해 경찰 2,000명이 동원된 사실 등을 두고 "불교 풍습도 아닐뿐더러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행동을 불교는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SCMP'에 따르면 올해 첫 옹화궁 분향자는 중국 허베이성에 거주하는 왕 모씨다.

왕 씨는 "옹화궁 앞에서 26시간을 기다렸다. 2014년부터 3년 연속 1등 배향자로 기록돼 기쁘다"며 "2014년엔 48시간을, 2015년엔 77시간을, 2016년엔 35시간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사찰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연등(등표)사다리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전선플러그 승하강장치 특허기술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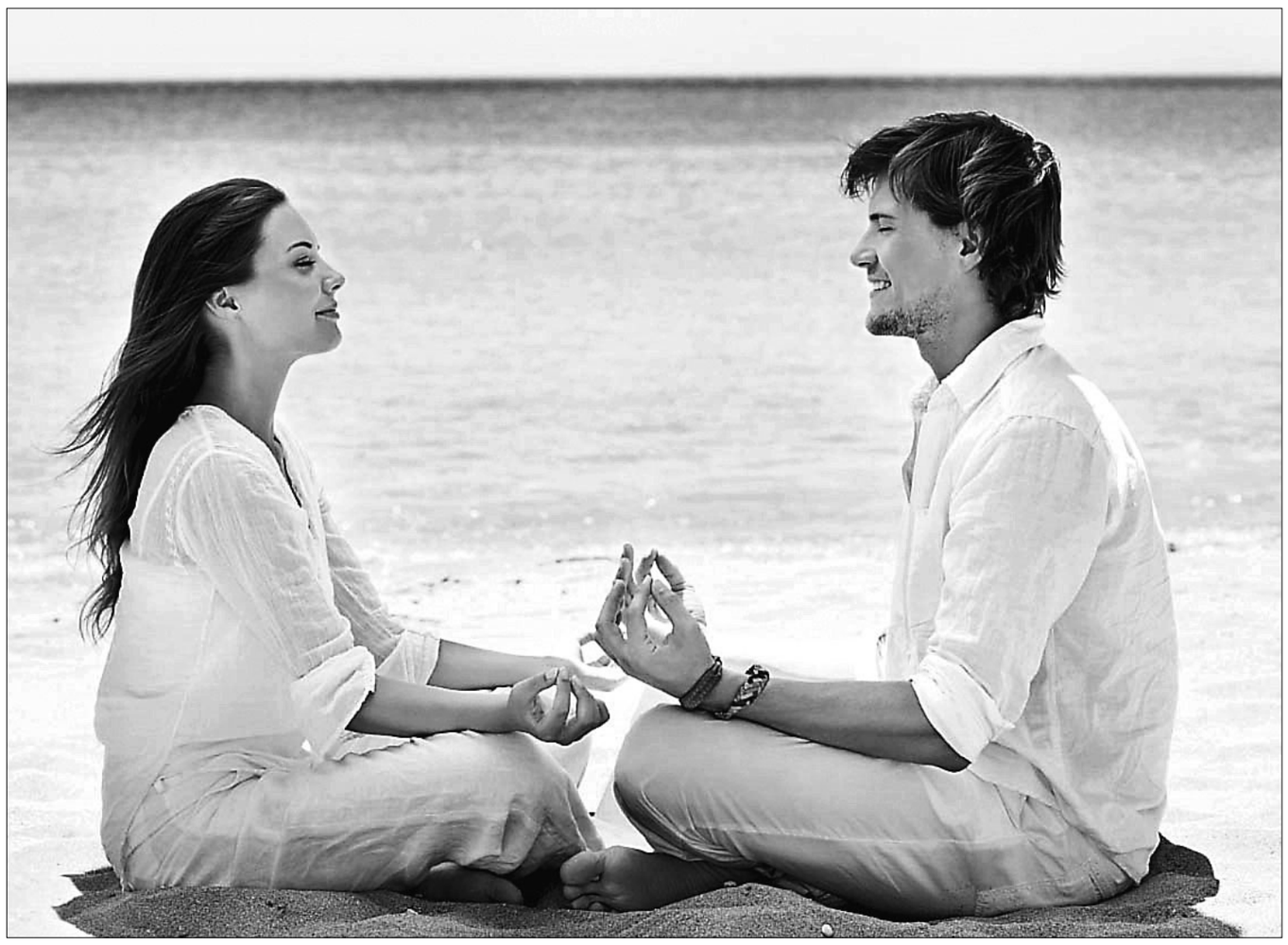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명상은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힘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④



존중은 사랑의 근원

필자는 나이 60을 넘기면서 종종 자신을 돌아보았다. '나는 이 나이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나이 값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자신에 대해 좀 더 겸허해지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이 귀중했지만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기엔 미흡함을 볼 수 있었다. 어쩐지 삶의 중심이 너무 나 자신에게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았다.

한 집단상담에서 구성원인 수녀가 우울한 모습을 보였다. 쉬는 시간에 다른 구성원인 스님이 수녀의 우울한 모습에 대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수녀는 집단에 오기 전 나무로 만든 새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것을 본 신자가 "수녀님은 그것이 필요 없잖아요. 저에게 주세요"라고 하였다. 그 순간 안주면 그런 물건에 욕심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까봐 주었고, 그 뒤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그렇다면 집단이 끝난 뒤 그 신자에게 가서 되돌려 받으세요. 그리고 주기 싫으면 주지 마세요"라고 일러주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녀의 얼굴은 활짝 피어났고 크게 웃었다. 스님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니 너무 기뻤고, 그 신자에 대한 무거웠던 감정이 가벼워지면서 나무새를 돌려받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다.

필자도 몇 년 전 국제학술행사에서 중국의 발표자로부터 빨간 넥타이를 선물 받았다. 한 번도 빨간 넥타이는 매어보지 않았지만 다음에 매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며칠 뒤 큰 아들이 와서 그 넥타이를 보더니 "이 빨간 넥타이 안 보던 거네요. 아버지는 넥타이가 많으니 이 넥타이를 저에게 주세요"라고 했다. 그 순간 안 된다고 하면 넥타이에 욕심이 많은 아버지라고 할까봐 주고 말았는데,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니 그 빨간 넥타이를 매고 싶었는데 매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듯하다. 내가 매어보고 나중에 줘도 될 텐데 너무 성급하게 주는 바람에 매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서 나를 불편하게 했던 것이다. 아직까지 빨간 넥타이는 매어보지 못했다.

위에서 보았듯이 수녀는 스님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존중받음으로써 나무새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되어 신자로부터 나무새를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그러나 필자의 경우는 아직까지 빨간 넥타이를 매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다. 아마도 수녀는 다음에 그와 유사한 상황이 되면 편안하게 자기의 것을 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선뜻 주지 못할 것이다. 자기 자신이 존중받게 되면 사랑의 힘이 생겨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인 마음이 생겨난다. 우리의 마음은 매 순간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으로 이끄는가 하면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으로 안내하기도 한다.

이미 사랑의 행위가 그의 삶이 된 사람도 있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가 어느 날 플랫폼에서 열차를 타려고 할 때 신발 한 짝이 벗겨져 열차 아래로 떨어졌다. 간디는 잠깐 생각하다가 다른 쪽 신발을 마저 떨어뜨렸다. 만일 우리가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아마도 그 신발을 줍거나, 떨어졌으니 그냥 버리거나 하지 않았을까? 간디는 그 상황에서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그 신발을 줍는 사람을 생각했다. 누군가 한 짝 신발만을 가졌을 때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다른 한쪽 신발도 떨어뜨린 것이다. 필자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 어느 날 시내에 있는 한 식당에 점심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그날따라 주차할 공간이 없었다.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마침 비어있는 한 공간을 보고 가는데 나와 똑같은 입장인 다른 차가 그쪽으로 재빨리 가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필자는 그 공간에 주차할 수도 있었지만 양보하고 더 먼 곳에 주차를 하였다.

> "
> **이기적 자아에 갇혔던 사람도 명상으로 관용 · 존중 일깨우면 초의식이 세상과 연결됨을 느껴 자기 행복이 세상으로 확대 가능**
> "

간디 관심의 초점 '他人'

간디는 그의 삶에서 주된 관심의 초점이 타인이요, 세상이다. Hawkins(2012)에 의하면 간디의 의식수준은 700이상이다. 이미 사랑과 평화를 넘어 깨어있는 삶의 의식을 갖고 있다. 명상을 하지 않을 때도 깨달음은 사라지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적절한 행위를 취한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라고 하는 에고가 없다.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때로는 자기를 넘어서는 초의식의 행위를 할 때가 있다. 이미 우리 안에 깨어있는 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인 환경의 자극이 너무 강해 내 안에 있는 초의식, 깨어있는 의식을 만나지 못할 따름이다.

명상을 하는 사람은 보다 높은 의식의 힘이 발휘되어 나와 세상이 함께하도록 한다. 몇 가지 의식을 들어보자. 하나는 관용(Tolerance)이다. 관용은 어려움을 잘 참으면 생겨나는 힘이다. 참는다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로부터 영향 받지 않는, 생각에서 조차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부동한 능력이다. 누가 나를 모욕하고 비난하거나 화를 낼 때, 혹은 육체적 고통이 있을 때에도 관용의 힘이 있으면 평화롭고 행복하게 머물 수 있다. 모진 풍랑에도 꿋꿋한 고목이나, 발로 차고 흔들고 돌을 던져도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 돌려주는 과일나무 같이, 관용이라는 영혼의식에 머물게 되면 언제나 사랑을 줄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 대표적인 예가 간디다. 간디의 관용의식은 사랑의 행위로 변용되어 세상을 만났다. 다른 하나는 협력(Cooperation)이다. 협력은 나의 시간,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는 힘이다.

나와 타인의 행복은 일치한다

명상을 통해 협력의식이 자연스러워지면 다른 사람을 형제로 보는 태도를 가지게 되고 공동체의 단결력이 형성된다. 요즈음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능기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실제로 우리 자신을 보면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지만 자기만을 위해 사용할 뿐 세상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 자기에게 너무 주의가 쏠려 있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를 더한다면 분별(Discrimination)이다. 명상을 하게 되면 거짓에서 진실을, 부정한 것에서 옳은 것을 순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생각은 간직해서 키우고, 부정적이며 해로운 생각은 즉각 버릴 수 있다. 세상은 부정적인 생각이 올바른 분별을 가로막는 일이 너무 많다. 우리는 매 순간 분별에 의해 선택을 하며 세상을 살아간다. 분별력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

세상을 사랑하는 힘은 내가 존중받을 때 더욱 확대된다. 부라마크마리스(2016.1)는 말한다. "마음은 눈이 가는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 이기적인 눈은 받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다. 자애로운 눈은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본다." 이러한 마음의 눈은 어디에서 오는가? 아무 조건 없이 존중받는 느낌을 경험할 때, 우리는 편안해지고 안전한 느낌을 가지며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발휘된다. 1997년 필자는 인도 비하르요가 대학의 부총장 일행을 모시고 '요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3박 4일간 필자는 부총장을 안내하는 일을 맡았다. 행사기간 중에 일정이나 식사, 숙박 등을 안내하며 그와 함께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그가 돌아간 뒤 지나간 3박 4일을 돌아봤는데 그 과정에서 필자는 서투른 영어를 통해 부총장을 잘 모실 수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대답은 명백했다. 부총장이 필자를 전적으로 존중해 주었기 때문이다. 사실 영어 단어나 어휘 등 안내 과정에서 보여준 필자의 영어 소통은 매우 미흡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총장은 필자가 하는 말과 행동을 100% 온전히 수용하였다. 늘 미소로 필자를 대해주었고 간간히 칭찬도 해 주었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자신감이 솟아올랐고 모든 것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며, 함께 하는 사람들 모두를 기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나의 행복은 세상의 행복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 영화 '버킷리스트(the bucketlist, 2007년)'는 나의 행복과 세상의 행복이 하나임을 알려주고 있다. 영화에 나오는 두 남자의 대화다.

A : 자네, 그거 알고 있는가?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멋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네. 영혼이 천국의 입구를 가면 말이야, 신이 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대. 그들의 대답에 따라 그 영혼이 천국에 갈지 말지가 결정되었다는군.B : 질문들이 무엇이었는데?A : 하나는 '너는 너의 인생에서 행복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너는 너의 인생이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주었는가?' 일세.

이 대화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가령 지금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입구에 갔을 때 신이 '너의 인생에서 행복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아니요'라고 답할 것인가? 아마도 '예'라고 답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 '너의 인생이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주었는가?'에도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이 두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때만이 천국행 티켓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과연 천국행 티켓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대화는 나와 타인이 함께 행복할 수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알려준다. 나만 행복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명상은 긍정적인 일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명상을 하다 보니 필자도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고, 긍정적인 행위가 점차 확대되어 세상을 사랑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 이제 70을 넘긴 나이에 세상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탈종공고

- 사찰명 : 용도사
- 법 명 : 보진(전근분)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506-10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법하

심우선원 選佛場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 장소란 뜻으로 禪門의 宗主인 마조선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본 도량은 20여년간 "돈오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를 독려, 견성해탈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락치듯 돈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 인 깊은 선정삼매를 통해 의정이 독로될 때 비로소 확철대오의 기연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법의 근원은 텅빈(空)의 자리에 있고 현대인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공도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침이란 "여실지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으로**(단지 중생의 눈으로 實相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 그것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의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고우스님이나 암도스님 같은 분들은 법문중에 자신의 경계를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분들의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성철스님은 지해종사(해오자)는 간판을 내려라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깨침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으로 올바로 깨치면 그 즉시 열반을 증득, 자기인가(證悟)를 체득하는 것이므로 최상승법을 다루는 일은 절대적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기 선지로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돈오견성, 해탈열반)체험으로의 여행에 수행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證悟" 왜 올바로 깨치면 自己認可 '究竟覺'를 성취하는 것인가 공부하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 깨달아 가는 전과정을... 특히 깨닫는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또한 깨달은 후에 성성함 "깊은선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험되는 현상경계를 참구자에게 자세히 설해 드립니다.

문의 傳法講主 釋眞性 010-3045-008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12번지 심우선원
☎ 031-255-0066

법당 상황따라!

마이크 단추 한 번 누름에서 장엄하고 위엄어린 소리!
청아하고 은은한 소리! 구슬프게 젖어드는 소리가
연출되어 '재'스님들에게는 평생 밥줄 마이크!

장사 수단

각종 염불시설을 갖추고 법당에서 소리만 비교 후 쌔엥! 가버리면 아! 그 소리 듣고나서 염불이 너무 힘들어! 안되겠어! 한 번 들러요!

백팔번지 이곳은 각종 시스템을 진열하고 많은 스님들을 모십니다. 구경 한번 오시지요!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주)염불소리 ☎ 055)343-1191, 010-9471-2026



대행 스님

그냥 하고 있고 뛰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냥 주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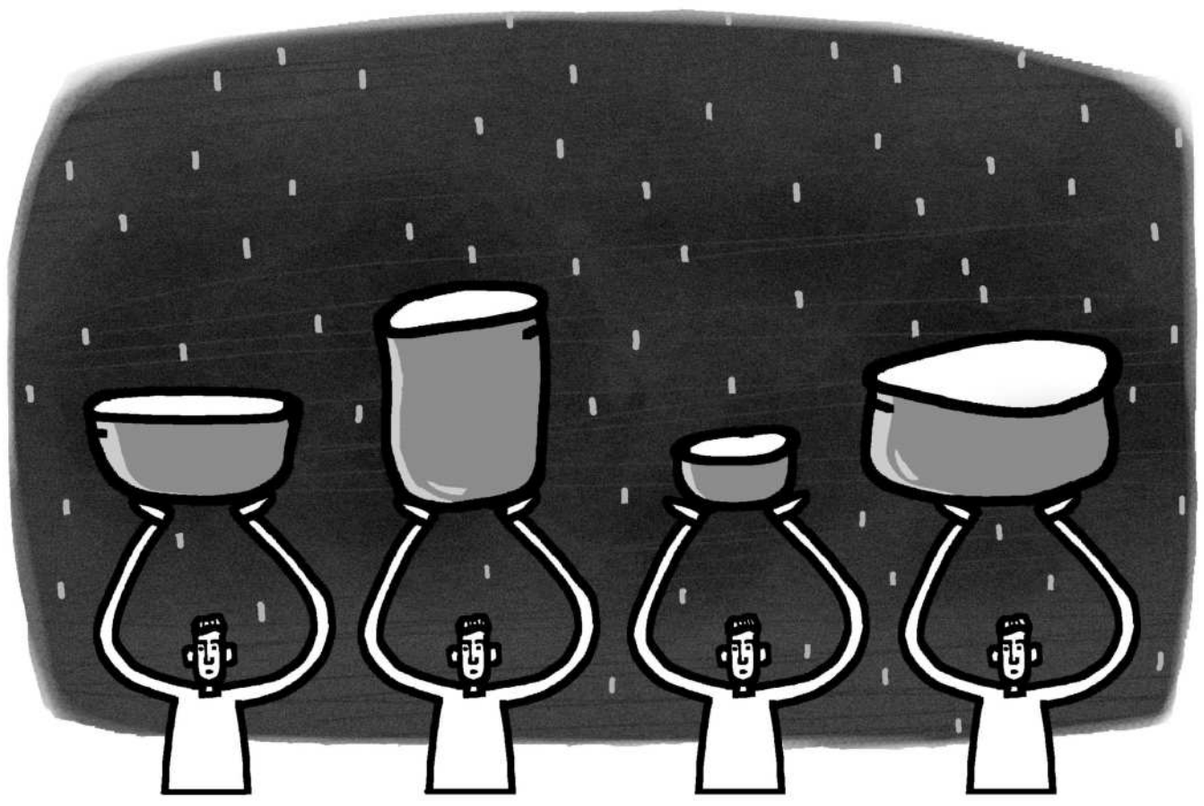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난 호에 이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지각색의 사생(四生)들이 다 내 아픔 아닌 게 없고, 내 몸 아닌 게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없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다 얻어서 전부 꺼내 줘도 줄지 않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서 어떠한 짐승이 원하고 벌레가 원한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그 벌레 속에 응신(應身)으로 드셔서 건져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리가 터져서 지혜가 생겨 가지고 진화가 되게 만드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어떤 거 될 때 부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벌레가 원했을 때 응신으로서 응(應)할 때에 '내가 요런 때 부처다' 이럴 수도 없고, 하하하,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이 됐을 때 '내가 요런 때 부처다' 이럴 수도 없고, 또 병자가 원했을 때에 약사(藥師)로 응신이 돼서 응해 주실 때에 '내 요런 때 부처다' 요럴 수도 없고 그래서 여래(如來)다 부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부처가 아닌 것이요, 부처가 아닌 것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작위(作爲) 없는 바로 자유인이 돼야 하는 거죠. 어떠한 집착을 한다면 그냥 가차 없이 허용치 않는다는 얘깁니다.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자기가 뭐 '이런 거는 잘못했으니깐 내가 이거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깨달은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자유스럽겠습니까. 좀 해 보세요, 어떤가. 뜨거운 물이다 찬 물이다 내가 말할 수는 없으니깐요. 먹어 봐야 알죠? 중생과 부처가 차이가 있는 것은 무(無)의 떡과 유(有)의 떡을 한데 겨서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거와, 유의 떡도 착이 끼어 가지고 요것은 요렇게 먹고 조건 조렇게 먹고 하며 그것도 집어삼키지 못하는 것과의 차이죠. 여러분 지금의 삶은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 이제 그만 할까요? 허허허.

이거를 잘 듣고 한번 뒤집어서 우리가 그대로 듣고 보는 그 자체가 그대로 여여함이다,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함이 없이 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은 그냥들 사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냥들 사는 거와 함이 없이 살림을 하는 거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도 여기저기다가 착을 두지 말고 무조건, 못났든 잘났든 자길 믿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자기한테 그냥 다 맡기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꼭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 없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질문자1(남) 스님께서는 이 공부를 해 가면서 잘해야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다 놓으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한편 그런 걸 놓으면서도 나름대로 욕심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큰스님 욕심이 있고 없고 간에 자기 분수대로, 자기 능력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자기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하고 덜함도 없겠죠. 지금 자기 능력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대로 살고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자기가 하고 있고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주인공, 자기한테 되놓는 겁니다. 현재 자기가 과거 자기한테 그냥 다 놓듯이, 현재 자기와 과거 자기가 둘이 아니게 바로 삼심(三心)이 일심(一心)으로 공(空)했으니까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고 가는 거 자기한테 다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자기가 그냥 하고 있는 자체, 자기가 공했으니까, 주인공이니까 그대로, 그대로 놓고 아주 편리하게, 편안하게 그대로 '네가, 네놈이 하는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가 있고, 너만이 잘못된 거를 다시 바꿀 수가 있고, 너만이 건강하게 이룰 수가 있고, 너만이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안 그렇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자기가 살고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고, 자기가 화목을 도모해야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인공을 얍삽하게 보진 마십시오. 포괄적인 자기니까요.

질문자1(남)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체를 주인공 자리에 맡겨 놓고 관하여 보는 그 수행에 있어서 어떤 대목에서 스님은 아주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라고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 관하는 것을 몸부림치듯이 하라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큰스님 그래요.

질문자1(남) 그 둘을 중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십시오.

큰스님 아이, 생각해 보세요, 글쎄. 몸부림 안 치게 생겼나? 아휴! '네놈으로 인해서, 네놈으로 해서 이게 전부 저질러진 일인데 네놈이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네놈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뭐 딴 놈이 거기 개재하는 게 아니니깐요. 과거에도 그놈이 살았고 현재에도 그놈이 지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놈이, 그놈이 지금 모두 하고 가는 거죠.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 부처님더러 요놈 조놈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하하. 제 놈이 한 거니까 제 놈한테다가 모든 걸 맡겨라! 요거 작업부터 해야만이 정말 신성한, 청정한 부처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도 안 해 놓고 밥을 먹어서 배부르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다 씻어서 밥을 해서 다 해 놓고 숟가락으로 떠먹을 때, 떠먹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떠먹을 때 맛을 알죠. 이건 해 놓지도 않고 먹으려고만 한다면 어찌 그게 먹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살아생전에, 어차피 이 세상에 나온 것을 한번 선의 칼을 뺀 거와 같이 생각하시고 절대로 그냥 낄 수는 없다고 모두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네가 일을 저질러서 전부 요렇게 살게 만들어 놓고 또 네가 그렇게 진화시켜서 이렇게 인간으로도 형성시킨 거는 감사하지만 물주머니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선 그냥 그저 제 놈한테다 제가 한 일 다 놓으세요. 그런데 안 놔진다고 그러죠? 사회에 나가서는 뭐 어떠니 저떠니 하고 안 놔진다고 그러죠?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소릴 들었는데 안 놔지는 게 뭐 있습니까? 그대로 하는 거지. 그대로 생각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그대로 해 나가라는 거지,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 따지고 살랍니까? 회답이 아주 말끔하게 씻어지진 않았지만 공부한 것도 말끔히 씻어져서 공부가 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잘 해 보신다면은 선생님 같은 분들은 잘될 겁니다. 하하하.

질문자2(남)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을 거울삼아서 습이 나오는 대로 되놓고 있습니다마는, 나의 습은 심야와 같이 깊어 청정한 나를 발견하려면 얼마만큼까지 가야 되는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큰스님께서는 수억겁 쌓인 죄업이라도 한생각에 다 녹일 수 있다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업이 녹는 도리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지금 말씀하고 마이크를 놓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를 그렇게 들었다가 놓고 제대로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질문자2(남) 저입니다.

큰스님 그렇죠? 그런데 자기인 거를 번연

☞ A18면으로 계속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사교과에서 활안큰스님 "석문의범" 특강이 있습니다.
◇ 원서교부 : 2017년 1월 15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7년 3월 7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김익순교수 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천도재의식 및 권공의식, 작법무
◇원서교부 : 2017년 1월 15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7년 3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
※3월부터 3개월간 예수재의식 특강이 있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그대로 생각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그대로 해 나가라

☞ A17면에서 계속

히 알면서 자기 탓이라고 할 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자기 탓이라고 합니까?

질문자2(남) 물론 큰스님께서는 테이프에 입력되어진 모든 습을 다 지우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그 부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힘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큰스님 힘들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요. 지워서 없애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생활하고 나한테 닥치는 것을 그대로 그 공부의 재료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냥 생활이 그걸 끊어 버렸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꾸 나와야 내가 습득을 하고 내가 알게 되고 내가 경험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목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습이 나온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습이라고 생각지도 마세요. 나오는 대로 그대로 거기 놓고 행하면 그대로 되는 거지 무슨 습이 이렇게 많아서 내가 이걸 없앤다, 이걸 끊어야 되겠다 합니까.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습인 것이지 습이라고 생각 안 하면 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그 습이란 말을 아주 쉽게, 자꾸 하는데요, 나는 그래요. 살아 있는 동물이라면 어떠한 거든지 보면은, 들으면은,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나쁘고 좋고 그것만 아니까, 정히 나쁜 거는 하지 않고 좋은 것만 합니다. 또 나쁜 거를, 불의를 당했을 때 그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모든 행하는 것을 그대로, 그대로 그냥 '아, 이 주인공 놈이 다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해결하고 그대로 넘어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편리하게 생각하세요. 그 이름에 그냥 막혀 가지고는 쩔쩔매지 말고요. 좋은 생각이 나와도 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허허허. 아니, 좋은 생각을 해서 습이라고 안 그랬더라면 좋은 행이 그대로 나오고 좋은 경사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요건 또 습이구나! 요거,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습이 되는 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죠. 그 뭡니까? 저 무학 대사가 꿈 해몽한 이치요. 이성계의 꿈 얘기 한 거 있죠? 만약에 무학 대사가 그 꿈을 그대로 나쁘게 해석을 했다면 나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좋게 해석을 하고 좋게 이끌어 주니까 그냥 지금 말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꽃이 활짝 피었다가 그냥 우수수 다 져 버리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면 '어이구, 이젠 죽었구나! 이젠 죽었어!' 하고 모두 탄식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꿈도 생시고 생시도 꿈이니 절대로 꿈이 이렇다고 해서 언짢아할 일이 없고 바꿔서 자꾸 써라. 구정물이 들어오면 바꿔서 새 물로 쓰고 이렇게 자꾸, 맛없는 걸로 들어오면 맛있는 걸로 바꿔 먹어라. 이게 자유자재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자재하질 못합니까? 돈이 들어서 자유자재 못합니까, 누가 막아서 자유자재 못합니까? 그렇게 하라는데도 그냥 어떤 양반들은 꿈을 꾸고선 "아이고, 꿈을 이렇게 꿨으니까 이거를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한생각이면 바꿔 쓸 거를, 글쎄! 하여튼 지금 말하고 지금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이 그 주인공 놈이니까, 하하, 그냥 주인공 놈이 과거도 살았고 현실도 살아나가니까 그저 과거 것이든 현실 것이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주인공, 네놈이 해결해!' 하고 다 거기다 맡기세요.

질문자2(남) 믿고 맡기고 되놓는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스님 예. 내가 있다고 세우지 말고요.

질문자3(남) 저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는 믿고 맡기고 이렇게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 생활하는 과정에서 늘 어떤 대상 인물이라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아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홍수가 났을 경우에는 둑이 무너질 걸 대비해서 밤새도록 안달을 하면서 둑을 쌓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저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상대방 경쟁사라든지 경쟁자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또 대비하고 사전에 사사건건 모든 것을 점검을 하면서 또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또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됨에 따라 오히려 가족들 간에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착이라는 것과 다소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맡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더더욱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가르침을 바라겠습니다.

큰스님 글쎄, 자식들 때문에 안달을 하든 또는 사업 때문에 안달을 하든, 둑이 무너져서 안달을 하든 그걸 자기가 왜 걱정을 해요? 그렇게 안달하고 사는 것이 바로 주인공 놈이 하는 거라니까요. 어때요?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게 하라는 사람이 었었나요? 닥치면 닥치는 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는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이 주인공을 믿고 하는 사람들은 열 번 뛸 거 한 서너 번밖에 안 뛰거든요. 그렇게 뛰면서 하는 것을 그대로 주인공이 하는 거야. 왜 자기가 괜히 끼어들어서 나는 이렇게 뛰고 이러는데 주인공 따로 또 두고…. 그럼 자기 따로 있고 주인공 따로 있는 게 되잖아. '자기가 하는 거 그대로 습이 돼서 이렇게 뛰는구나. 이거 주인공한테 다 놓지 않고 이렇게 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하고 있고 뛰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냥 주인공이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요? 응? 그냥 애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도 또 사업을 위해서 뛰는 것도 그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주인공 놈이 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인공 놈이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채찍으로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주인공, 이렇게 지금 하고 가는 일, 너만이 해결할 수 있고 잘 이끌어 갈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가 되놓는 것은 자기더러 자기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현재 자기를 주인공하고 둘로 보질 말아요. 둘로 본다면 '나는 이렇게 뛰는데, 주인공한테 이렇게 맡기지 않고 나는 뛰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인공이 그렇게 뛰고 지금 가고 있잖아! 몸뚱이는 주인공 시자니까. 마음의 시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뚱이와 생명과 셋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라고 했으니까 합쳐서 주인공이야. 주인공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해서 나는 착이 있고 이렇게 놓지를 못하고 뛴다고 생각질 말고 그대로 주인공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그냥 시인하고 넘어가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둘로 볼 것도 없고요.

> 구정물이 들어오면 바꿔서 새 물로 쓰고
> 맛없는 걸로 들어오면 맛있는 거로 바꿔 먹어라.
> 이게 자유자재입니다.



질문자4(남) 최근에 조상님과 큰스님, 주인공 자리 그리고 제가 둘이 아님을 간절히 느낄 수 있는 새해맞이 촛불재가 있었습니다. 저희 광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그야말로 마음의 촛불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람되지만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령 삼형제가 함께 이 공부를 해 나가는데 일반적으로는 촛불재를 모실 때 어떤 한 분만이, 예를 들어서 큰 형만 모신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촛불재도 백중이나 또는 개별적으로 재를 모시는 등 여러 번의 행사가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뜻깊은 행사를 어떤 형제가 대표로 하는가, 아니면은 한 번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큰스님의 법음을 받들고자 합니다.

큰스님 이 세상에 나올 때 제각기 다 혼자 나오죠? 갈 때도 혼자 가요. 대신 가 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밝히는 것도, 컴컴한 두뇌를 밝히는 것도 바로 제각기 각자 있는 거죠.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식구가 오지 못하고 하지 못할 때에 그 한마음으로서 대신하는 거지,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자 대표로 하면 되지.' 이러지는 마세요. 촛불재라는 것은 이 모든 유의 법이나 무의 법에서 내가 형성되고 살아나갈 때에 컴컴했던 일을 다시금, 내 깊은 마음으로 인해서 두뇌로 밝은 물리 지혜를 내기 위해서, 또 항상 뿌리가 깊은 밝음을 스스로서 밝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촛불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이건 들고 켜고 하는 데에 방편이라고 하지마는 방편이자 진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거나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안된다거나 이런 것도 업에 속하는 거니까, 그것도 본인이 촛불을 들고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거나 부모가 해 주거나 이래도 그건 훨씬 더 물리가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조건이죠. 내가 해 놓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받을 게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만이 한 것만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재라는 것이 아주 못났든 잘났든 또는 업보가 많든 업보가 적든 하여튼 누구나가 다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도 원주에서 이런 예가 있었지요. 아들이 뭐 둘이나 되나요? 단 하난데, 그냥 공부를 영 안 해서 남을 따라설 수가 없어요. 안 자고 공부를 하는데도 그렇대요. 그래서 해마다 이 촛불재를, 그때도 했는데 하여튼 그 어머니가 그 소릴 듣고 그냥 아들의 촛불을 저녁마다 자기가 켠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 년 내지 몇 개월 안 가서 물리가 터져 가지고 그 반에서 일등을 하더랍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한 것만큼 내 앞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뇌가 컴컴했던 것이 그렇게 밝아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끔들 촛불재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질문자4(남) 두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제 자신이 4년 전에 있었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실은 한마음 법을 알게 되었고 지금의 이 육은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부를 이 몸이 있을 때 그야말로 정진해야겠다는 것과 저 자신 또한 이렇게 덤으로 사는 마당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 부처님 회상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야 전부 다 아시겠지마는 저처럼 이렇게 우둔한 사람을 위해서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큰스님의 감로법을 청합니다.

큰스님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금속은 세계적으로 안 쓰이는 데가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금(金)이라는 것은 마음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마음의 에너지가 없으면 여러분을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는 순간 가고 옴이 없이 천 리라도 한 찰나고 요 대문 밖도 한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라는 얘기와 같이 만약에 내가 심부름꾼이라면 한 찰나에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 주인공에다 되놔라 하니깐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자기를. 하하하. 자기 주인공을 업신여기죠. '아이고, 나한테다 내가 놓으래?' 이러고 업신여긴단 말입니다. 그 업신여기는 버릇을 갖지 마세요. 항상, 자기의 자기한테다가 '주인공!' 하면은 겸해서 항상 에너지가 거기에 동참합니다. 즉 네 마음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동참이 되죠. 그러니까 그 주인공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죠? 업신여겨서도 안 되죠. 자기면서도 자기가 아니고 자기가 아니면서도 전체가 자기고 그러니 자기 주인공을 어떻게 업신여깁니까.

'자기 주인공이 일 저지른 걸 자기 주인공이 해결해야 된다' 하고 거기 믿고 놔라 이거죠. 놓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러 왔으니까 인연이 된 거죠. 인연이 됐으니까 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깐 천리만리라도 얘기 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가고 옴이 없이 갑니다. 하하하. 마다 안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힘이 없는데….'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힘이 없든 있든 막론하고 그냥 나투니깐요. 하하하. 그 믿음, 같이 한마음으로 나투어 준다는 믿음 때문에 다 나투는 거죠. 육안으로는 오고 가는 게 보이지 않겠지요. 너무 빛보다 더 빠르니깐요.

※위 법문은 1994년 2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불자 세상보기 |

불교, 포켓몬GO 활용방안 찾자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GO' 열풍
포켓스톱 · 체육관 사찰 등에 설치
사찰 내방객들 늘어… 明暗 존재

사찰 특성 무지, 게임 장소로 생각
분위기 혼란스럽게 만든 사례 발생
사찰도 비난보다는 친절한 안내를

사물인터넷 ·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불교계도 트렌드 인식 · 활용 고민해야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포켓몬GO'라는 게임 프로그램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이라는 개념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포켓몬GO 게임은 실제 지도에 표시된 위치에 가상의 포켓몬들을 배치하고, 그것을 게임 참여자들이 지도 상의 실제 위치에서 잡으면서 시작된다.

증강현실(AR)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가상현실은 전적으로 사이버 상에서만 구현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실재하는 상황과 혼합하여 만든 프로그램이 증강현실 게임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켓몬GO 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이 게임은 사회에서 중요하거나 의미가 부여된 장소에 포켓몬을 배치하여 흥미를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장소에 사찰이나 종교시설을 비롯하여 박물관이나 상징적인 공원 등 현실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둘째, 이 게임은 전적으로 사이버 상으로만 하는 게임이 아니라 직접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하고 있다. 대부분의 게임들은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반면에 포켓몬GO는 현실과 가상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게임 패러다임을 발전시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셋째, 이 게임은 포켓몬을 잡고, 힘을 키워 체육관을 장악하고, 세력을 넓혀가는 등 대결과 경쟁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매우 다양한 놀이 방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경험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빠져들 수 있는 묘미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게임 장소에 일부 사찰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역사적 장소나 기념물 등이 포함되면서 사찰도 포켓몬GO 게임 장소인 포켓스톱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포켓스톱은 몬스터 볼을 획득하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관공서, 병원, 공원, 체육관, 학교, 종교시설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게임에 몰두한 청소년들이 사찰의 특성이나 환경을 알지 못하고 게임의 장소로만 생각하여 예의에 어긋나거나 사찰의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찰을 찾지 않던 청소년들이 포켓몬GO 게임을 위해서라도 사찰을 찾는다면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게임을 위해서만 사찰을 찾는다면 자칫 사찰이 게임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사찰에서는 게임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비난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고도정보사회의 변화와 사회구성원들의 욕구와 활용도 등을 연구하고 이를 포교의 기회로 활용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불교인구가 급감하고, 청소년들이 거의 사찰을 찾지 않는 것은 새롭게 다가오는 사회 변화에 불교계가 관심과 대응이 부족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인공지능, 로봇의 대중화 등은 사회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트렌드가 되고 있다. 불교가 젊은 층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의 양태가 인간의 삶과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고통을 초래하는가를 관찰하고 적절한 해소방법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

社說

포교사 응시자 급감 대책 필요하다

포교사 고시 응시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조계종 포교사단에 따르면 올해 제22회 포교사 고시 응시자는 608명이다. 이는 2년 전인 2015년 제20회 고시 응시자인 1,002명 보다 390여 명이 줄어든 것이다. 비율로만 보면 40%가 급감했다. 지난해 응시자가 752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포교사 고시 응시율은 뚜렷한 감소 추세이다.

이 같은 고시 응시자 감소는 포교사 인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포교사 자격 갱신률은 약 70% 안팎인데, 지난해에는 35명 증가에 그쳤다. 응시자 감소에 따라 올해를 기점으로 포교사 인원은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포교사 고시 응시가 줄고, 인원 역시 감소하게 된 원인은 단순히 불교대학 수강생이 줄어드는 등 불자 인구 감소에만 원인이 있지는 않다. 더 면밀히 봐야 하는 것은 포교사가 가지는 지위와 활동 영역이다.

불교대학 졸업생이 포교사 고시의 필수 코스지만, 일선 사찰은 포교사 고시 응시를 독려치 않는다. 잘 가르친 신도가 사찰 활동을 하지 않고 외부 포교에 집중하는 것은 좋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 부담과 개인의 원력에만 기대는 현재 포교사 활동 구조와 사찰에서는 봉사자로서 인식되는 불안한 지위도 포교사 고시 응시율이 감소되는 이유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님과 포교사, 신도회와 포교사 간 유대관계가 끊기고 골만 깊어지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제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포교사 제도에 대한 발전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포교사는 불교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종단과 포교사가 변화에 나서야 한다.

서울불학승가대학원 폐교에 부쳐

서울 · 경기 인근 사부대중들이 전문적인 경전 강독을 할 수 있었던 전문 교육기관인 조계종 교육원 부설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이 2월 8일 7기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했다.

2003년 '불교서울전문강당'으로 시작된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초창기에는 서울 · 경기 지역 스님들이 앞 다퉈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었다. 신심 높은 재가불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청강생으로 전문적인 강독 수업을 제공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1년 조계종 교육원의 승가교육개편이 이뤄지며 불교서울전문강당은 서울불학승가대학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특성화된 전문대학원과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등이 만들어지면서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입학 수요자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실제 5기 이후에는 급격히 졸업생 수가 줄어들었다. 이에 교육원 역시 다양한 교육기회가 생긴 만큼 직영보다는 다른 교육기관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폐교 결정을 내렸다.

자연스러운 '퇴역'이지만 아쉬운 점은 남는다. 한문교육이 공교육 안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황에서 전문적인 한문교육기관에 대한 종단 차원의 지원과 관심은 필요하다.

일선 교수 스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문 교육을 받지 않아서 현재 출가자들은 한문 강독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한다. 한문은 어렵지만, 대승 경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혀야 하는 언어이다.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전문 한문불전을 공부할 수 있는 강좌와 관심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자칼럼
박아름 취재부 기자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미루지 말라

19대 국회서 무산되며 20대 국회 필수 입법과제로 주목받았던 차별금지법. 지난해 첫 정기국회와 2월 임시국회를 거친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이뤄졌을까. 안타깝게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8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이번 2월 임시국회서 바른정당이 학력차별금지법을 처리 대상에 포함시켰을 뿐 그 어디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달리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룬다.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 장애 · 병력 · 나이 · 성적지향 · 인종 · 피부색 · 용모 · 종교 · 학력 등 모든 영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이미 미국 · 독일 등 국가서 차별금지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9.8%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종교자유정책연구소, 2013년 7월 발표)

불교계는 오랜 기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그 누구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현 시대 불자들이 차별금지법에 쌍수를 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특히 조계종은 올해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갑시다'란 종무 기조 아래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해 적극 가담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했을까.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던 국회의원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혹 차별금지법 공동발의를 했던 국회의원이 특정종교 행사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차별금지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진 않은가. 또는 대선을 앞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특정종교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인권보호와 직결되는 차별금지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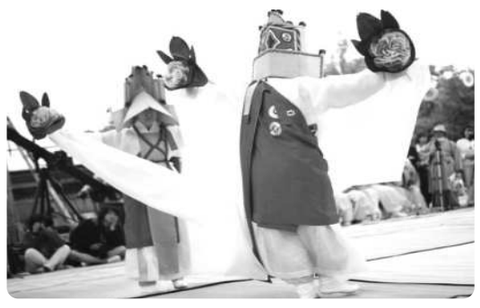
우리나라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정확히 10년 전인 2007년 시작됐다. 당시 법무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했으나 의회선교연합이 '성적지향' 포함 여부를 두고 "동성애가 확산되면 안 된다"고 반발하며 학력 · 성적지향 · 병력 등 7개항목이 삭제된 채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의미가 훼손됐다 주장하며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고, 2008년 5월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19대 국회에 들어서는 2012년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2013년 김한길 ·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 2016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나 그때마다 보수주의 개신교의 힐난이 국회를 압박했다.

국회가 특정종교 눈치를 보는 동안 무수히도 많은 차별로 인한 범죄가 발생했다. 주취 상태서 노인과 아동, 여성, 장애인, 이주민노동자에 대한 폭력 사태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 등장하곤 한다. 또 누군가는 죽어가기도 했다. 나이가 들었단 이유만으로,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또 성적 지향이 다르단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에 노출된 이들을 우리는 언제까지 방치해야할까.

물론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차일피일 늦춰지다 또다시 21대 국회를 기약해야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이 같은 걱정은 기우(杞憂)이길 바란다.

제11기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일시 :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제3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 6개월 과정

- 교육과정 -
불교의식 범음범패 6개월 과정
• 도량석, 종송, 향수헤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범음범패)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6개월 수련후 수료증, 1년과정 졸업후 이수증과 법사증 수여(숙식제공 가능)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개강일시 : 2017. 2. 28.(화)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
→ 준 비 물 : 목탁, 요령
→ 문 의 : 포항 보경사 종무소 054-262-1117
교육원 강주스님 010-9361-5566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LOTUS (연꽃香) 조연향



new

조연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 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조연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은 우리 나라에서 만든 우리향입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격 [장] 10,000원 (제조 : 국내산)
[단] 15,000원 (제조 : 국내산)

소이(SOY) 왁스양초
미국산 LOTUS 연꽃 향초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www.shcandle.com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YESGOOD CO.LTD
문의 전화 02-365-7747

천불천탑 황금사원의 부처님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오시는 길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앞 대불광빌딩 2층
www.mahayeon.com

인도/네팔/스리랑카
- 인도 8대 성지 11일
- 인도-네팔 15일
- 스리랑카 6일
-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티벳/부탄
- 티벳6일
- 티벳 하늘열차 8일
- 동티벳 9일
- 부탄-네팔 8일

중국
- [문수도량]오대산-북경 5일
- [보현도량]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지장도량]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영문석굴-소림사 5일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태항대협곡 5일
- 청도-곡부-태산 6일 훼리크루즈

바랑메고 떠나는 수행길

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태국/대만/홍콩
- 라오스 6일
-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7일
- 베트남-캄보디아 6일
- 대만 5일/대만-홍콩 5일
- 태국 5일

동유럽/발칸
- 동유럽4개국 9일
- 동유럽-발칸 6개국 9일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강산이 여섯 번 바뀌는 세월동안 노래한 불자가수 송춘희 씨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젊었을 때의 정열이 비쳐진다. 어느덧 팔순을 맞은 원로가수지만 그녀의 음성포교에 대한 열정은 시간을 거스르는 듯하다.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불음포교 평생 업”

산문 밖의 禪 불자가수 송춘희 (81 · 백련장학회 회장)

이역만리 미국서 만난 불교

미국 공연서 광옥 스님 인연

불교 입문하며 마음공부

숭산 스님 만나 수계 · 법명

백련화 불명으로 불교 귀의

찬불가 포교 본격 시작

1983년 귀국 후 수덕사 찾아

찬불가음반 1집 발매

‘수덕사의 여승’ 으로

스타 되고 불교 귀의 단초

음악이 없는 곳이 있을까. 노래가 없는 곳이 있을까. 글 말고 음악, 말(言) 말고 노래여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좋은 음악과 노래를 만들고 불러주는 사람들은 고마운 이들이다. 그리고 그 음악과 노래가 전법에 쓰인다면 더 할 나위 없이 고마운 일이다. 60여 년 동안 대중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고, 삼십 년 넘게 찬불가를 부르며 힘겨운 이들을 돕는 이가 있다. ‘수덕사의 여승’으로 한국가요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송춘희 씨다.

인생 바꾼 노래… ‘러브 미 텐더(Love me tender)’

1956년 가을, 서울 답십리 경미극장.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손엔 장바구니를 든 열아홉 살 소녀가 극장 벽에 붙은 벽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단원모집’, 소녀의 눈은 그 네 글자에 붙들렸다. 악극단 단원 모집 벽보였다. 소녀는 곧바로 악극단을 찾아간다. 소녀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여섯 째 동생인 한 살배기를 등에 업은 채 노래를 부른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러브 미 텐더(Love me tender).’ 교수가 꿈인 소녀는 대학을 가지 못했다. 부친의 사업이 실패했다. 가세는 급작스럽게 기울고 부모님은 충격으로 건강을 잃었다. 맏딸인 소녀는 졸지에 가장이 되었다. 꿈은 그야말로 ‘꿈’이 되어버렸고 눈앞엔 감당하기 힘든 현실뿐이었다. 평소 노래와 연극, 무용 등을 좋아하던 소녀에게 악극단 벽보는 한 줄기 빛이었다. 소녀는 일주일 뒤에 합격통지를 받고 3일 후에 첫 공연길에 오른다. 소녀의 이름은 송춘희.

또 한 번 인생 바꾼 노래… ‘수덕사의 여승’

수원으로 첫 공연을 떠나는 날. 소녀는 눈물로 쓴 편지 한 장을 부모님께 남기고 집을 떠난다. 꿈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소녀는 좌판을 열기 위해 시장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가슴에 품고 차가운 세상으로 나선다. 이별이었다. 기약은 없었다. 성공만이 기약이었다.

극단 생활은 쉽지 않았다. 건빵 하나로 3일을 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러 극단을 거치며 가수의 꿈을 키워간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녀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고 가수의 길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극단생활로는 가수의 꿈을 이루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리고 6년 만에 집으로 돌아간다.

1962년, 그녀는 마침내 ‘삼다도 편지’와 ‘울릉도 아가씨’라는 곡으로 첫 앨범을 발표한다. 하지만 앨범은 실패한다. 가수의 길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기로에 선다. 열아홉 꽃다운 나이에 한 살배기 동생을 업고 노래를 불렀던 송춘희였다. 가수의 꿈은 그녀의 전부였다.

간절한 뜻이 있는 곳엔 길이 있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녀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이듬해 그녀는 KBS 라디오 드라마 ‘남산골 샌님’의 주제곡을 부르게 된다. 마지막 기회였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이후로 각 방송사의 드라마와 영화 주제가 20여 곡을 부르며 자신의 이름을 가요계에 알린다. 그리고 꿈의 무대라는 시민회관(현 세종문화회관)무대에 서는 등 가수로서의 길을 시작한다. 이듬해인 1964년 그녀는 일본공연으로 교포와 일본 현지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2집 앨범 ‘영산강 처녀’가 히트하면서 대중에게 가수 송춘희를 확실하게 알린다. 송춘희의 ‘영산강 처녀’는 당시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와 함께 가장 많이 전파를 탔던 노래 중의 하나다.

1966년 봄, 가수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한 송춘희는 세 번째 앨범을 발표한다.

“인적 없는 수덕사에 밤은 깊은데~ ♬”

지금의 송춘희를 있게 한 ‘수덕사의 여승’이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흰 고깔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송춘희가 부르는 ‘수덕사의 여승’은 가요차트에서 10주 넘게 1위를 지켰다. 그해 송춘희는 10대 가수상을 수상한다. 송춘희는 이제 평범한 가수가 아니었다. 스타였다. ‘수덕사의 여승’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각종 무대와 방송이 송춘희를 찾았고 그녀는 바쁜 날들을 보낸다. 어느 날, 그녀가 무대에서 노래를 마치자 진행자가 그녀에게 물었다.

“수덕사에는 가보셨나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수덕사에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순간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TV를 보던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상황은 난센스였다. 수덕사는커녕 그녀는 불교의 ‘불’자도 몰랐다. 집안은 기독교 일색이었다. 외조부를 비롯해 다섯 명이 목사였다. ‘수덕사에 가보았냐’는 질문은 공연과 방송 때마다 그녀를 따라다녔다. 질문이 거듭되면서 그녀의 마음 속엔 짐이 쌓이기 시작한다. ‘수덕사의 여승’은 가수 송춘희를 스타의 반열에 올려놓은, 그야말로 송춘희에겐 소중한 노래였다. 송춘희 자신도 모르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수덕사는 ‘숙제’였다.

“그래, 수덕사에도 한 번 안 가보고 수덕사의 노래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녀는 수덕사를 다녀와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너무나 바쁜 나날이었다. 스타 송춘희의 일정에서 당시 예산의 수덕사를 다녀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마음의 짐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녀는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서울에 있는 작은 절을 찾아간다.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 편히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았다. 송춘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절마당을 밟는다.

“법당에 들어 부처님을 보는데 왠지 낯설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수 송춘희는 그렇게 부처님을 처음 만났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지금의 ‘불자 송춘희’는 그 시절에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 훗날 가수 송춘희는 말한다.

“‘영산강 처녀’가 송춘희를 가수로 만든 노래라면, ‘수덕사의 여승’은 송춘희를 불자로 만든 노래죠.”

백련화 송춘희…광옥 스님과 숭산 스님 만나다

송춘희는 1971년까지 여섯 차례 연속 10대가수상을 수상했고, 이후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간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김성우의 ‘염불각자 열전’

B6
기획연재
고원영의 ‘저 절로 가는 길’

B7
가족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1985년 광주소년원 위문서 노래부르는 모습.



2006년 백련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교정대상을 수상한 송춘희 회장.



2001년 경비교도대 위문공연 당시.

노래하는 이 시대 부루나존자

"힘겨운 이들 돕는 것은 불은을 갚는일이죠"

가수 송춘희는 …

1956년 악극단에 입단하며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 대표곡으로 '영산강 처녀', '수덕사의 여승', '할아버지 쌈짓돈' 등이 있으며, 찬불가를 포함해 1000여 곡을 발표했다. 1983년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한 후 찬불가 보급과 백련장학회 설립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1992년 일붕삼장대학원 삼장전법사과정을 졸업했고, 1994년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학과를 수료했다. 1984년 영등포교도소 교화위원으로 위촉됐으며, 현재 백련장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1966년 국제 가요대상 민요가수상, 1967년~1971년 10대 가수상, 2005년 세계 문화예술인상(민요가수 최고상), 2011년 한국을 빛낸 사람들 등을 수상했다. 2006년 자서전 〈다시 태어나도 나는 가수가 되리라〉를 출간했다.

'불자가수 송춘희' B1면에서 계속

1976년 그녀는 미국 LA 한인회 초청으로 8·15 광복절 축하공연을 간다. 당시 미국 교민들을 위한 한국 연예인들의 공연은 처음이었다. '수덕사의 여승'은 여전히 인기였다. 한국에서 공연단이 왔다는 소식에 미국 각지의 교민들이 공연을 요청했다. 공연은 LA에서 끝나지 않고 예정에 없던 다른 지역으로 이어졌다. 공연단은 하와이 공연을 끝으로 귀국길에 올랐지만 송춘희는 미국에 남았다. LA의 한 클럽으로부터 공연 제의를 받았다. 단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던 공연은 다른 지역으로 이어지면서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공연으로 송춘희는 1983년까지 무려 8년 동안 미국에 머물게 되는데, 송춘희의 삶은 그때 전기를 맞는다.

1977년. 그녀는 캐나다 토론토 공연길에 오르는데, 공연장에서 스님 한 분을 만난다. 한국비구니 최초의 국제포교사 자격으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포교를 하고 있던 광옥(前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스님이다. 그녀는 먼 이국에서 스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 신기했다. 이 먼 곳에도 절이 있나 싶었다. 스님으로부터 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그 옛날 절에 갔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캐나다 공연 일주일 동안 광옥 스님의 절에서 스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스님이 직접 공양도 내주시며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부처님 일대기를 이야기해주셨는데, 할머니가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재미있었어요."

아쉬운 만남을 뒤로 하고 스님과 헤어질 때 스님은 그녀에게 책 두 권을 건넨다. 〈부처님 일대기〉와 〈알기 쉬운 불교〉라는 불교 입문서였다. 시애틀로 돌아온 그녀는 스님이 주신 두 권의 책을 단숨에 읽었다. 스님의 이야기(법문)도 그렇고 그녀는 책을 읽으면서 설명할 수 없는 평온과 이끌림을 느낀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녀는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이끌며 미국에서 활동 중이던 숭산 스님을 만나게 된다. 당시 숭산 스님은 미국 달마사에 주석하며 재미 홍법원장을 맡고 있었다. 숭산 스님이 가수 송춘희를 만나기 위해 LA에서 시애틀까지 날아온 것이다. 찾아가도 만나기 어려웠던 숭산 스님이었다. 그런 스님께서 비행기로 2시간 반이라는 먼 길을 자처한 것은 광옥 스님의 부탁 때문이었다.

30여 년 찬불가 보급 불사

'법화경노래' 등 100여 곡

60년 간 총 1000여 곡 발표

군·교도소 찾아 음성공양

장학사업도 병행하다

백련장학회 설립 나눔 실천

도움받은 장학생 취직해

월급 모아 찾아오기도

"송춘희 씨 불자 만들러 왔죠."

어리둥절해하는 송춘희에게 숭산 스님이 던진 첫 마디였다. 가수 송춘희는 처음 보는 숭산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백련화'라는 불명을 받는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날, 스님으로부터 금과옥조의 법문을 듣는다. 그 옛날 작은 절에서 부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광옥 스님을 만나 부처님의 일대기를 들었을 때처럼, 그녀는 사막에서 샘을 만난 듯 모든 것이 반갑고 고맙게 느껴졌다. 짧은 만남들이었으나 그 인연은 결코 가볍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천수경〉을 외고, 108배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금도 사시예불, 저녁예불은 기본이고 사경과 108배 등 견고한 신행생활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이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었다.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인생은 그 뒤로 많은 변화를 겪는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나니 제 몸과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이었어요. 아팠던 몸과 지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기도하는 것이 점점 즐거웠어요. 이후로 기도와 절은 제 일상이 됐지요."

새로운 원력, 찬불가 부르기

1983년, 그녀는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한다. 고국 땅이 그립기도 했지만, 부족한 불교공부를 해보고 싶었고, 가수로서 불법(佛法) 홍포를 거들고 싶었다. 그녀는 대중가요가 아닌 찬불가를 취입하고 싶었다. 새로운 원력이었다.

그녀는 귀국하고 얼마 후 드디어 수덕사를 찾는다. '수덕사의 여승'을 부른 지 18년만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수계 의식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공부를 시작했다.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불교대학을 시작으로 대원불교대학, 포교사대학, 전법대학, 일붕삼장대학원, 해동불교범음대학,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학과를 수료했다.

1983년, 그녀는 찬불가 음반 1집을 발표한다. 하지만 그녀의 찬불가 보급 불사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후로 5종의 찬불가 음반을 발표했고, 2008년에는 〈법화경〉 28품을 찬불가로 만든 〈법화경노래〉를 출반했다. 서울 법화정사 주지 도림 스님의 〈법화예찬 108 참회문〉을 저본으로 해 동료 불자가수들과 함께 만든 음반(CD 3장)이다.

은혜는 은혜를 낳고…아름다운 회향

"군부대는 매주 가고 있어요. 장병들을 위해 노래도 부르고 법사로서 법문도 하면서 뜻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가지는 못하지만 교도소 공연도 꾸준히 가고 있고요."

가수 송춘희의 불사 원력은 찬불가에서 끝나지 않았다. 적지만 찬불가로 인해 모인 정재로 다섯 개의 군법당을 지었고, 30년 넘게 군장병을 위해 음성공양과 법문을 하고 있으며, 교도소 교정활동도 하고 있다. 그리고 1991년부터는 백련장학회(회장 송춘희)를 설립해 소년소녀가장과 불우학생 등 3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8남매의 맏이인 그녀의 마음에는 힘겨웠던 시절의 동생들 모습이 늘 애잔하게 남아있다. 그런 그녀에게 힘들어하는 소년소녀들은 모두 그녀의 동생들이다. 백련장학회는 그녀와 뜻을 같이 하는 지인들의 십시일반으로 설립되었고 운영되고 있다.

"제가 뒤늦게 부처님 가르침에 눈을 뜬 것은 숙연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수덕사의 여승'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래서 불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지나서 생각해보니 모두 부처님 은혜였습니다. '수덕사의 여승'이 그랬고, 광옥 스님, 숭산 스님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도와주신 여러 스님과 불자님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따뜻하게 일으킨 마음은 다시 따뜻한 마음을 낳았다. 어느 겨울날, 그녀는 장학생 중 한 명으로부터 빨간 내복 한 벌을 받는다. 장학금으로 무사히 학업을 마친 학생이 첫 월급으로 사 온 것이다. 경찰관이 된 청년은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송 회장에게 너덜너덜해진 종이봉투 하나를 건넨다. 언젠가 만나면 주려고 늘 가지고 다녔단다. 청년은 군복무 시절 송 회장이 해온 떡을 너무나 맛있게 먹었다고 한다. 전역을 하고 경찰이 된 청년은 첫 월급에서 떡값 십 만원을 떼어 봉투에 넣어가지고 다녔다. 송 회장이 다시 부대를 찾을 때 떡값에 보태기 위해서였다.

"힘겨운 청소년들이 자라서 사회 일꾼이 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껴요. 노래를 통해 불법을 전하는 일도, 힘겨운 이들을 돕는 일도 모두 제가 받은 불은을 갚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2006년 출간한 자서전을 통해 "다시 태어나도 나는 가수가 되리라"고 했다. 올해로 여든 한 살을 맞은 그녀는 그동안 1000여 곡의 노래를 발표했고, 그 중엔 100여 곡의 찬불가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송춘희를 생각한다면 그녀가 부른 1000여 곡의 노래는 모두 찬불가가 아닐까. 불교의 '불'자도 모르고, 수덕사엔 가본 적도 없이 '수덕사의 여승'을 불렀던 가수 송춘희가 지금 찬불가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박도일 수필가 doil3012@daum.net

연등전문기업 대광불교

지혜의 등·자비의 등 연등을 밝히세요!!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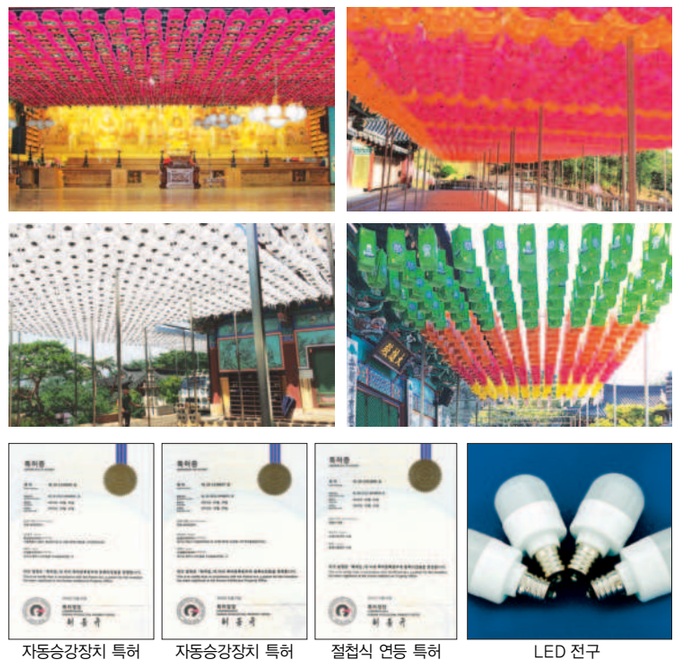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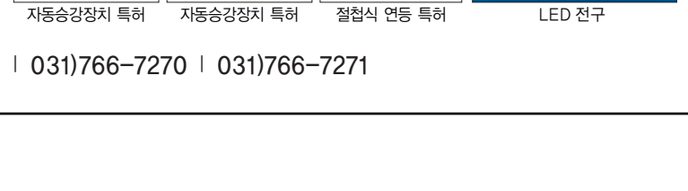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6-7270 | 031)766-7271

중병 극복한 염송 가피, 대중에 전하다


전국만일염불회 염불정진

김성우의 **念佛覺者 列傳**

④ 정토종 제9조 우익(滿益) 대사



"선종과 교종 양쪽에 두루 통달하시고
깨달으신 바는 부처님과 다름없이 같으시네.
미혹된 업 끊지 못하면 부서진 그릇과 같으니
법비(法雨)를 만나신 후 이전에 쌓은 공명 버리셨네.
이 힘으로 염불수행 하여
결정코 현생에서 새장(윤회)을 벗어나고자 하셨네.
도 닦는 이들에게 간절히 권하신 말씀 있으니
서방에 왕생함이 참으로 부처님을 계승하는 것이니라!"

선정쌍수(禪淨雙修)의 기반 다진 선지식

위 게송은 중국 근대의 고승인 인광 대사가 정토종 제9조 지욱(智旭) 우익 대사(滿益)를 찬탄한 게송이다. 지난 회에 소개한 연지 대사와 마찬가지로 우익 대사는 선종과 교종, 정토종까지 통달한 대 선지식이었다.

우익 대사가 연지 대사의 〈죽창수필(竹窓隨筆)〉을 보고 발심하여 본격적인 구도의 길을 걷게 된 것도 비슷한 수행법을 닦게 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정토종 제6조 영명 연수 선사로부터 본격화된 선정쌍수(禪淨雙修: 선과 염불을 함께 닦음)의 전통이 제8조 연지 대사에 이르러 빛을 발했다면, 제9조 우익 대사에 이르러서는 확고한 기반을 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구두선(口頭禪)의 병폐를 낳던 선(禪)에 활력소가 됨은 물론, 아녀자들이나 하던 염불수행이 당대 최고의 고승들이 닦는 최상승의 수행법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우익 대사는 그의 문집인 〈영봉종론(靈峰宗論)〉에서 선과 염불이 상호 모순되는 수행법이 아니라, 둘 다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탁월한 행법임을 역설하고 있다.

"참선자가 서방에 왕생하고 싶다면 참선을 염불로 바꿀 필요는 없다. 다만 '믿음'과 '발원'을 갖춘다면 참선이 바로 정토수행이다. 또한 염불이 일심불란(一心不亂)의 경지에 이르면 주관과 객관을 모두 잊고 곧바로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증득한다. 이 어찌 도를 깨침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참선과 염불은 둘 다 도를 깨칠 수 있으며 둘 다 서방에 왕생할 수 있다. 다만 의심(疑情)이 있으면 곧 참선이고, 의심이 없으면 곧 염불이다. 사람들이 수행을 시작할 때 스스로 살필지어다."

명대(明代) 4대 고승의 한 분으로서 모든 종파의 존경을 받았던 우익 대사(1599~1655)의 행장을 따라가 보면 참선으로 견성(見性)까지 한 선사가 왜 염불을 하게 되었는지 알게 된다.

대비주 지송으로 극락왕생 발원

팔부도인(八不道人)이란 별호(別號)로도 잘 알려진 대사의 휘(諱)는 지욱(智旭), 호(號)는 서유(西有)이다. 대사의 속성은 종(鍾), 이름은 제명(際明) 또는 성명(名聲)이라 하고, 자(字)는 진지(振之)이다. 강소 오현 목독진(江蘇 吳縣 木瀆鎭: 현 강소성 소주)에서 태어났으며, 모친은 김(金)씨(이름은 대련)이고 부친은 기중 공(岐仲公)이다. 부친이 백의관음보살의 대비주(大悲呪)를 10년간 지송(持誦)하여 꿈에 관음보살께서 아들을 보내주는 것을 보고 나서 대사를 낳았다고 한다. 때는 명나라 만력(萬曆: 神宗) 27년(서기 1599년) 5월 3일이었다.

대사는 7세에 채식을 하고, 12세에 유교 경서를 읽었는데, 성리학을 존중하고, 불교와 도교를 멸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 후에 냄새나는 오신채와 술을 다시 먹고 불교를 배척하는 〈벽불론(闢佛論)〉 수십 편을 지었다. 그러다가 17세에 우연히 연지 대사의 〈자지록 서문(自知錄序)〉과 〈죽창수필〉을 열람하게 되었는데, 문장의 내용과 이치가 매우 깊음을 느꼈다. 비로소 자기의 잘못된 견해를 알아차리고, 이전에 지은 불교에 대한 비판적 저술들을 불사르며 깊이 참회하였다.

1618년 겨울에는 부친상을 당했는데, 〈지장보살본원경〉을 보고 마침내 출가를 발원하였다. 대사는 봄부터 겨울까지 대비주 지송을 마친 후, 계(戒)의 뿌리가 영원히 청정해지고 끝내는 극락의 구품연화대에 앉아 모두가 아미타불의 백호광명을 뵈옵고 원만하게 법계장신(法界藏身: 法身)과 같게 될 것을 발원하여 또다시 대비주 십만 팔천 번을 염송하였다.

〈능엄경〉 공부하다 의정 생겨 출가 결심

22세(1620) 때부터 본격적으로 염불에 전념하여 세속의 시문(詩文) 2,000여 편을 다 불살라버리고는 불법의 이치를 닦는데 더욱 매진하였다.

이듬해 7월 30일에는 뛰어난 방편인 염불수행을 통해 부모님과 조상님을 비롯한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48원(願)을 발하고, 스스로 '대랑 우바새(大朗優婆塞)'라 이름하였다.

그 해에 고덕 법사(古德法師)가 〈대불정수능엄경〉을 강설하였는데, 우익대사께서 앉아서 듣다가 "세계는 공(空)에 의해 있게 되고, 공은 대각(大覺)에서 생겨난다(世界在空 空生大覺)"는 대목에 이르러 마음속에 갑자기 의정이 생겨 스스로 묻기를 "무엇으로 인하여 공이 이 대각에서 생길 수 있는가? 세계와 허공은 다시 어떻게 생기는가?(因何空能生此大覺 世界與虛空又從何而生)"

인생과 우주의 문제 참구
무문관 수행 중 염불 결심
서호사 창건, 염불법 펼쳐

라고 하였다. 이렇게 저절로 화두가 드러나자 답답하고 괴로워 도무지 불법을 제대로 공부할 수 없었다. 출가 수행을 통해 인생과 우주의 큰 문제(大事)를 참구해서 체득하고자 하는 결심이 든 것이다.

대사는 24세(1622)에는 꿈에 수차례 감산 대사(憨山大師: 1546~1623)를 뵈었다. 이때 감산 대사는 조계(曹溪)에 거주했기 때문에, 길이 멀어 갈 수 없었다. 대신 감산 대사의 문인인 설령(雪嶺) 법사에게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지욱(智旭)'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그리고 자(字)를 우익(藕益)이라 하였다.

성유식론 공부하다 생사가 공한 도리 체득

그 해 여름과 가을에 운서사(雲棲寺)에 가서 〈성유식론(成唯識論)〉을 청강했는데, 강의를 듣는 중에 성종(性宗: 화엄종, 천태종)과 상종(相宗: 유식 법상종)의 두 종이 회통되지 않아 의문이 들었다. 이로 인해 경산(徑山)에 가서 좌선하면서 그 이치를 참구하였다.

이듬해(1623) 여름에 이르러 비로소 성상이종(性相二宗)의 뜻과 이치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깨달은 바를 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조금 지나니 곧 마음이 점차 공하고 공해져 다시 한 글자에도 머물지 않으셨다. 이 해 납월 팔일에는 연지 대사의 탑 앞에서 사분계(四分戒)를 받았으며, 26세(1624)에는 보살계를 받았다.

중병에 들자 왕생주 염송으로 가피 입어

대사는 28세 되시던 해에 모친이 돌아가셨다. 극진히 효자의 예를 다하시고는, 세상의 인연을 끊고 송릉(松陵: 현 江蘇省 吳江市)으로 가서 폐관(掩關)하고 무문관 수행을 서원했는데, 폐관 중에 뜻밖의 큰 병을 얻었다. 대사께서는 참선공부로써 서방정토에 왕생할 것을 발원하셨지만, 매우 위독한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 대사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생사를 감당할 힘이 전혀 없었다. 자신의 수행력이 아직 많이 부족함을 깨닫게 된 것이며 보통의 법력 가지고는 생사에 자재(自在)할 수 없음을 더욱 절실히 느낀 계기가 됐다. 부처님의 본원력(本願力)에 의지하여 염불할 것을 다짐한 대사께서는 우선 병부터 나아야겠다는 생각에 왕생주(往生呪)를 7일간 지성껏 염했는데, 극적으로 병이 완쾌되는 가피를 체험하게 되었다.

대사는 31세에 박산무이(博山無異)선사를 따라 금릉(현 강소성 남경)에 가서 대중과 어울려 배웠는데, 수개월 동안 지내면서 암담한 선문(禪門)의 폐단과 병통이 심각한 것을 보시고, 더욱 굳건히 계율을 널리 펼칠 것을 결심했다.

32세(1630) 이후로는 정토법문을 중심으로 천태 교리의 연구에 전념했다.

35세에 대중을 통솔하여 서호사(西湖寺)를 창건하고, 이후로 20여년간 강서, 안휘, 절강, 복건 등지를 유력하면서 대장경 열람, 경전과 교리 강술, 저작 그리고 염불법을 널리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

손을 든 채 입적 후에도 두발 자라

청(淸) 세조(世祖) 순치(順治) 12년(1655) 정월에 병이 나자, 대사께서는 신체를 다비(茶毗)한 후 뼈 부스러기를 가루로 만들어 날짐승과 물고기들에게 보시함으로써 서방왕생의 인연을 맺어 줄 것을 유언하셨다. 결가부좌하시고 서방을 향하여 손을 들고서 입적하셨는데, 이때의 세수 57세였다. 제자들이 대사를 시봉하여 감실[龕]에 봉안한 후 3년 뒤 여법하게 화장하고자 감실을 열었을 때, 결가부좌한 대사의 근엄한 모습이 보였으며 머리카락이 자라 귀를 덮고 있는 것이 생시와 같은 용모였다. 문인들은 대사의 유촉을 차마 따르지 못하고 대사의 영골(靈骨)을 영봉사 대웅전 오른편에 탑을 세워 봉안하였다.

만일 우익대사께서 선지(禪旨)를 깨친 후 자족하면서 염불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생사에 윤회하는 과보를 면치 못했으리라. 다행이도 중병을 앓아 생사에 대적할 힘이 없음을 미리 깨닫고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지한 염불수행으로 임종시에 자재하게 왕생하여 윤회를 벗어난 극락정토에 화생하셨으니, 자력(自力)과 타력(他力)이 둘이 아닌 불력(佛力)수행의 공덕이 얼마나 큰 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수십년 간 참선해도 진보가 없거나, 평생을 간경(看經)하고 다라니를 외워도 생사해탈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반드시 정토법문에 대해 참구해 보라. 가장 빠르고 간편하고 확실하게 삼계윤회를 초월하는 속초성불(速超成佛)의 지름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무아미타불!



김성우(도서출판비움과소통 대표)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2.8~2017.2.1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당신은무엇을먹고사십니까	선재 스님	불광출판사
2	성철평전	김택근	모과나무
3	내안에삶의나침반이있다	법상/용정운	아름다운인연
4	붓다아비담마(체계적으로배우는)	멤틴몬/김종수	불광출판사
5	혜민스님의따뜻한응원(365일마음달력)	혜민	수오서재
6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7	안되겠다내마음좀들여다봐야겠다	용수	나무를심는사람들
8	뇌인과	최병대	라이터즈
9	수구즉득다라니	석법성	운주사
10	천태지관-천태지관의체계적이해(불교수행법3)	최기표	도피안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큰스님, 왜 행복을 좇을수록 괴로워질까요?"

큰 스님의 마음공부

보광 대선사 말씀 | 경성 · 각산 스님 엮음

21세기북스 펴냄 | 1만 6천원



이 책은 20년간 해인사 작은 암자서 은둔 수행한 이 시대의 진정한 수행승이자 불교계 대석학인 보광 대선사의 설법 모음집이다. 신기루 같은 풍요를 좇으며 복잡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대선사에게 물었다. "큰스님, 왜 행복을 추구할수록 번뇌에 휩싸일까요?" 불교계의 걸출한 지도자들을 배출하면서도 어느 자리 하나에 매이지 않고 오로지 불법을 수행하며, 산속서 정진한 보광 대선사는 번득이는 섬광 같은 통찰과 구수한 시골 할아버지의 입담으로 그동안 깨달은 팔만대장경 속 불법 이야기를 전한다. 이 책은 신해행증, 마음공부의 네 계단을 오르며 '나'를 찾아 나서는 영적 지침서이다

세계적 자랑인 성보 팔만대장경이 보존된 가야산 해인사 보광 대선사는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선지식 성철 스님이 열반한 1993년 이후 그 뒤를 이어 가야산 호랑이로서 옹골차게 팔만대장경의 뜻을 지키는 수행승이다. 스님들은 보광 대선사를 두고 해인사의 마지막 큰 어른이라 입을 모은다. 보광 스님은 평생 동안 전 세계서 찾아오는 많은 이에게 불법의 깨달음을 전수한 것은 물론 현재 한국 불교계를 이끄는 걸출한 지도자들을 가르친 대석학임에도 , 서로 하려드는 큰절의 주지나 방장, 조계종 원로의원 등과 같은 모든 공직을 떠나 지난 20년간 해인사 산중 암자 희랑대서 은둔 수행 중이다. 팔만대장경 속 불법을 수행하며 올해 세수 77세, 법랍 60년을 맞은 보광 대선사가 조곤조곤 사람들에게 들려준 불법 이야기를 제자인 경성 스님(해인사 희랑대 주지)과 각산 스님(참불선원장)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이 책은 큰스님이 평생에 걸쳐 산중서 깨친 불법의 고귀한 진리,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은 깨달음의 정수 자체다.

책을 엮은 경성 스님은 "보광 대선사는 참선, 교학, 율학을 두루 갖춘 대선사입니다. 평생을 수행자로 살아가며 감히 범접치 못할 경지의 언행일치를 이루셨으며, 삶의 문제와 인생의 애환을 번득이는 섬광같이 예리하게 통찰한 지혜의 말씀을 전해왔다"며 "그 주옥같은 감로법문을 한 권의 책으로 모으니, 이 책에 담긴 말씀은 우리 중생의 삶을 바로 지금 이 자리서 성공적으로 변화시켜줄 법문"이라고 평했다.

여느 법문집보다 더 조곤조곤하게 불법을 이야기로 풀어주시는 보광 대선사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나'를 바로 보게 해준다. 마음이 병드는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내 바깥에 있는가? 과연 '나'는 누구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광 대선사는 신기루 같은 허상을 좇다가 진정 원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가끔은 따끔하게 죽비를 드시고, 또 가끔은 등을 쓰담쓰담 어루만져준다.

책 속에서 보광 대선사는 "사슴 한 마리가 마실 물을 찾아서 이 언덕 저 언덕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들판 저 먼 곳에 큰 물웅덩이가 보였습니다. 사슴은 기쁜 마음에 한숨에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들판에는 물 한 모금도 없었고 다시 저 언덕 너머로 물웅덩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슴은 지친 몸을 끌고 또 달려갔지만 그곳에도 물은 없었습니다. 과연 물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물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지의 열기로 뜨거워진 공기에 햇빛이 반사된 신기루였던 것이지요. 우리 삶도 목마른 사슴과 그리 다를 것이 없습니다."고 당부한다.

사막의 사슴 같은 신세의 사람들은 하늘서 뚝 떨어질 진리를 찾지만, 보광 대선사는 말한다.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한 사람만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누군가의 말과 법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진리에도 행복에도 도달할 수 없다는 대선사의 말씀은 일반 지혜와 다르지 않으면서도 다른 깊이와 무게가 있다. 그것이 산중서 오랜 수행 끝에 '산방한담' 이야기로 사람들을 깨치는 대선사만의 비법인 것은 아닐까?

'정해진 진리란 없다는 것만이 진정한 진리'라 강조한 이 책은, 그러나 불교의 신(信)-해(解)-행(行)-증(證)의 정해진 수행 과정을 따라 총 4부로 구성했다. 이해와 믿음으로부터 수행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불교 수행 과정은 선교겸수, 선경율 삼장, 유불선을 통달한 보광 대선사야말로 진정 안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마음수행의 단계이기 때문이다. 대선사의 말씀이 있기에 마음 수행의 네 계단을 디디고 올라서는 여정이 외롭고 어렵지만 않다. 대선사 말씀과 더불어 속세의 복에 만족치 말고 더 높은 이상의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 마음공부의 첫걸음을 바로 지금 시작해보자. **김주일 기자**

책속의 밑줄 긋기

▲"세상살이가 힘겹고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 원망을 해봤자 나만 손해입니다. 괴로움의 원인도, 또 괴로움의 결과도 결국 자신의 견해와 집착 때문에 생깁니다."

▲"세상만사가 복잡다단하고 번뇌망상이 온 천지를 뒤덮으며 짓누르더라도 결국은 '마음'으로 귀결됩니다. 나의 '생각 하나'를 벗어나서는 번뇌도 해탈도 무명도 보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생각' 즉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손자 하나를 데리고 사는 할머니가 너무도 가난해서 굶어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운 좋게도 떡 한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떡을 손자에게 먹이고 손자가 배불러 하는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숨을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누가 나를 묶었나요?…아무도 묶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너를 묶지 않았다

월호 지음 | 쌤앤파커스 펴냄 | 1만 4천원





"우리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한 존재 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미래 목표가 아닌 현재의 선택이죠"

진짜 행복이란 무엇도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행복 멘토인 월호 스님 〈사진〉의 말이다. 스님은 불교방송 라디오를 10년간 진행한 인기 DJ다.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대중에게도 친숙하다. 스님의 군더더기 없는 강의는 인생사 고민에 명쾌한 답을 주기로 정평이 나 있다. 스님이 하신 그 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참 행복으로 이끌어줄 이야기를 엄선해 한 권으로 묶었다.

이 책은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한다. 마음속 고민을 떨쳐버리고 행복을 발견한 이들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담았다. 자존감이 낮아 고민하는 사람부터 가슴속에 가득 찬 분노로 힘겨워하는 직장인까지. 각 사례는 결국 나와 이웃의 이야기이며, 스님의 답변은 우리 모두를 위한 조언이다. 불교에 대해 잘 몰라도 경전에 실린 이야기와 스님의 경험담을 통해 인생의 반짝이는 진리를 만날 수 있다. 이 책과 함께라면 스스로 묶어놓은 마음이 툭 열리는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말하며 조건을 붙인다. 안정적인 직장과 좋은 자동차, 아이들 교육비가 마련돼야 행복해질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 일에 치이고, 과도한 경쟁에 고통받고, 시간에 쫓기며 살다 보니 어느새 행복해지는 법을 잊고 말았다. 사실 진짜 행복이란, 무엇도 하지 않고 당장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행복 멘토인 월호 스님의 말이다.

월호 스님은 평일에는 라디오 DJ로 청취자들과 만나고 일주일의 절반은 서울, 나머지는 이천의 수행공간서 강의하고 수행을 지도한다. 스님은 삶의 깨달음을 대중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전달하기로 유명하다. 또한 인생사 고민에 대해 적절한 비유를 들어 명쾌한 답변을 주기로 정평이 나 있다. 예컨대 행복에 대해 강의할 때 행복의 본질을 달에 비유한다.

"달은 항상 보름달입니다. 우리 눈에 초승달, 반달로 보인다고 해도 달 자체가 이지러지거나 반쪽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달처럼 날마다 밝고 둥글게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의 행복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스님이 출간한 책들이 불교 경전의 강설, 참선, 웰다잉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책은 진정한 행복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한다. 누군가 정해놓은 삶의 틀 안에서 행복을 성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식과 돈을 쌓으려고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를 움켜쥐고 삶이 버겁다 말한다. 우리는 본래 자유롭고 어디에도 매인 적이 없다. 이것을 깨달아야 물질과 종교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직접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고 스님은 말한다.

이 책에는 고민을 떨쳐버리고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의 사례가 풍부하게 실려 있다. 자존감이 낮아 고민하는 사람, 가슴속에 가득 찬 분노로 힘겨워하는 직장인, 부모님 때문에 일을 관두지 못하는 딸,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까지. 각각의 사례는 나와 이웃의 이야기이며, 스님의 답변은 우리 모두를 위한 따뜻한 조언이다. 또한 불교에 대해 잘 몰라도 경전에 실린 이야기와 스님의 경험담을 통해 인생의 반짝이는 진리를 만날 수 있다.

예컨대 숲속 비구의 일화를 통해 〈자애경〉을 배우고, 비틀스 음악을 통해 〈법구경〉을 이해하며, 말리카 왕비의 이야기를 통해 〈잡아함경〉에 담긴 지혜를 깨닫게 된다. 스님은 비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울 수 있기에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욕심과 분노를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무작정 극복하려 하지 말라고 한다. 욕심 대상을 나로부터 모든 이로 넓히면 큰마음으로 바뀐다. 분노의 대상을 나에게로 향하면 내 허물을 볼 수 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다. 붙들거나 건드리면 스트레스가 더 커질 뿐이다. 감정의 상태를 지켜보면 사라질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 책은 총 다섯 파트로 나뉜다. 1장은 트라우마나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려주고, 2장은 행복을 두 배로 키우는 마음 습관을 가르쳐준다. 3장은 내 인생을 후회가 아닌 충만함으로 채우는 법을 소개하고, 4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의 수행을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을 알려주며, 5장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길을 안내한다.

여기에 더해 책 곳곳서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짧은 글 40편과 작가 필몽의 수묵 일러스트를 만나볼 수 있다. 오늘이 힘겹고 내일이 두려운 사람들, 마음속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지금 당장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들, 삶의 통찰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책과 함께 삶의 진리를 향해 가다 보면 스스로 묶어놓은 마음이 툭 열리는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 같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월호 스님은?

고려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서 선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학도에서 불교도로 전향한 데에는 젊은 시절 갑작스레 경험한 지인들의 잇따른 죽음의 영향이 컸다. 감당하기 힘든 상실감과 허망함 속에서 방황하다 '선(禪)'을 통해 생사 문제를 바라보게 됐다. 선학을 공부하며 '선'을 이론적으로 확립했고,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기 위해 쌍계사로 출가했다. 쌍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쌍계사, 봉암사, 해인사 등 여러 선원에서 정진했으며, 고산 큰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받았다.

최상승 방편의 비밀신주!

원하는 바를 즉각 얻을 수 있게 하는 진언, 진언 중의 근본진언!



수구즉득대다라니

隨求卽得大陀羅尼

"나(부처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을 널리 설하여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 가운데 이 진언이 가장 최상이며 제일이니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본문에서)

우리말 번역과 함께, 가피의 효험, 사서 방법, 기도법 등을 덧붙여 누구라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공금강 한역漢譯/석법성 역주/국판/160쪽/ 9,000원

마음을 울리고
영혼을 일깨우는 맑은 소리!

개에게 우유를 먹이는 방법



17년 동안 쌓인 지하철 〈풍경소리〉의 에센스!

고요한 산사의 풍경소리처럼, 삶에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맑은 여운을 남기는 100편의 이야기!

고암 정병례 선생의 전각그림과 박준수 화가의 동양화가 어우러져 깊이를 더해준다.

글 풍경소리/전각 정고암/그림 박준수/국판/216쪽/13,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넘치는 에너지, 수행으로 中道 찾아요”

Interview

정효정 낭만씨어터 단장



“B급이 좋아요. 재밌잖아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하하”

대부분의 사람들이 A급을 찾는 시대, 당당하게 ‘B급 애정’을 드러내는 이가 있다. 대중의 기대가 없는 동시에 부담도 없기 때문이라지만 우스갯소리일 뿐, 주목받지 못한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 그녀만의 ‘B급 품격’이다. 이처럼 엉뚱하고도 재기발랄한 정효정(30) 낭만씨어터 단장을 2월 6일 서울 역삼동 아이액터스 스튜디오서 만났다.

“B급이라고 해서 하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흔히 말하는 메이저가 아닐 뿐 고정적인 프레임을 벗어난 범주죠. 도전적이면서도 참신해요. 정해진 틀이 없으니 훨씬 자유로워요.”

지난해 9월 뮤지컬 프로젝트 그룹 낭만씨어터를 창단한 것도 다양한 예술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써놓은 로맨스극에 출연하는 것도 행복이지만, 하고 싶은 연극과 음악을 직접 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했다.

이에 낭만씨어터 창단 후 처음 기획한 공연도 평소 열렬한 팬이었던 기형도 시인의 작품들을 주제로 한 음악낭독극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였다. 작곡에는 김서영 작곡가와 함께 이종만 좋은벗풍경 소리 실장, 보경 스님이 참여했다. 넉넉지 않은 자금 사정으로 공연을 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무보수로 선뜻 곡을 내어준 지인들 덕분에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때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란 작품을 읽고 매료됐어요. 시에서 풍겨지는 쓸쓸함과 회색빛 느낌이 당시 제 마음 같았어요.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기형도 시인의 작품을 대중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주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하지 못했을 겁니다. 진 빚을 갚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해요(웃음).”

올해 준비 중인 공연도 그녀만의 색깔이 확실하다. 제목만 듣고는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절로 호기심이 생긴다.

조계사 청년회 · 찬불열창대회 대상도
‘라이어2’, ‘모던걸 백년사’ 등 작품
다양한 예술하려 지난해 직접 창단
여성 · 인간심리 주제 작품 계획

“10월쯤 여성에 대한, 정확히 말하면 세 자매의 이야기를 담은 ‘마음의 범죄’란 작품을 할 거에요. 또 상반기엔 음악낭독극을 함께했던 김서영 작곡가와 함께 인간의 심리를 소재로 한 음악극도 계획 중이에요.”

그녀는 인하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연극 ‘라이어2’,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지금 여기, 엘렉트라’ 등에 출연한 바 있다. 그런데 연극 뿐 아니라 음악에도 잔뼈가 굵다. 고등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서 학생들에게 뮤지컬을 가르치고 있으며,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모던걸 백년사’, ‘고래의 꿈’ 등에 참여했다.

특히 2015년 찬불가 열창대회서 폭발적인 성량으로 주목받으며 대상의 쾌거를 거머쥐기도 했다. 당시 폐암 4기로 투병 중이던 아버지에게 드린 마지막 선물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다.

“주변 분들의 권유로 욕심 없이 나갔는데 큰 상을 받았어요. 가수를 꿈꾸셨던 아버지 덕분이었다고 생각해요. 타고난 성량을 물려주셨죠. 아버지가 기뻐하셔서 더 행복했습니다.”

찬불가는 그녀에게 음악이기 전에 위로다. 조계사 청년회 ‘소리마루 합창단’에 들어간 것도 그 때문이다. 유달리 큰 성량 때문에 반야심경을 낭독하거나 찬불가를 부를 때 애정 섞인 핀잔(?)을 듣기도 했지만, 혼자 노래할 때보다 도반들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노래하는 순간이 더없이 행복하다.

2013년 1월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에 참여한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다. 여느 20대 청춘들이 그러하듯 쓰라린 실연의 아픔을 겪으며 불교에 의지했던 그녀가 단기출가학교에 입하며 완전한 불자로 들어섰다. 여성은 삭발이 선택이었는데 그녀는 연극 오디션을 앞두고도 삭발을 감행했다고 한다. 이후 그녀는 꾸준히 위빠사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여러 수행법이 있지만 저한테는 위빠사나 수행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엔 선무도도 배우고 있어요. 수행은 연극과 음악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지나치게 밝은 편인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줘요.”

그녀의 꿈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자신의 삶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고통의 연속인 윤회서 벗어나는 게 인생 목표라고. ‘우음(雨音)’이란 법명처럼 사람들 마음을 촉촉이 적시는 빗소리와 같은 음악을 펼칠 그녀의 행보가 기대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서울불교박람회, 무료관람접수 ‘START’

3월 23~26일 학여울역 SETEC서

오는 3월 열리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무료관람을 위한 사전접수를 받는다.

3월 23~26일 서울 학여울역 SETEC서 개최되는 2017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개막에 앞서 사전관람객 등록 접수를 실시한다. 올해는 △사찰음식존 △수공예장터 △전통문화우수상품 수상작 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밖에 선재 · 월호 · 혜민 스님 등의 법문과 함께 사찰불화 전문가 강소연 박사의 북콘서트, 다례시연, 선화퍼포먼스, 미리 보는 연등회 등도 진행된다.

불교박람회 사무국 측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는 만큼 많은 불자들의 결집과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무료관람 신청은 3월 17일까지 불교박람회 공식 홈페이지(www.bexpo.kr)서 가능하며, 10인 이상 단체관람 신청시 기념품과 함께 붓다아트페스티벌 투어프로그램, 단체사진 촬영권이 제공된다. (02)2231-2013

박아름 기자

탑골미술관 소장작품 바자회

3월 15일까지 동양화 등 90여점 판매

탑골미술관이 소장작품 바자회를 개최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은 2월 9일~3월 15일 동양화 · 판화 · 유화 등 지역사회 및 기업으로부터 기증받은 미술작품 90여점을 전시, 소장을 원하는 관람객들에게 판매한다.

이번 전시는 2015년에 이어 2번째로, 어르신들의 작품구매 문의 증가로 특별히 마련됐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2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전시향유교육 ‘그림애 호가로 가는 길’이 열린다. 미술작품을 더욱 깊게 즐길 수 있도록 감상법을 배우고, 미술품 소장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3월 7일 오후 1시 30분엔 소장작품 중 최고 감정가 작품 3점에 대한 경매도 진행된다.

관장 희유 스님은 “오늘날엔 먹는 것뿐 아니라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얻는 정신적 풍요가 중요한 삶의 화두”라며 “이번 바자회를 통해 어르신들 및 다양한 세대가 미술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즐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판매수익금은 전액 탑골미술관 운영기금으로 조성돼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이용은 1번째 개인전 ‘스물일곱, 꽃끼리패’

2월 17~25일
법련사 불일미술관서

법련사 불일미술관이 2월 17~25일 이용은 신인작가의 1번째 개인전 ‘스물일곱, 꽃끼리패’를 진행한다.

이용은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화려한 분채와 석채의 색에 길들여진 기존 수묵의 세계서 슬그머니 벗어나 ‘주름과 유지(油紙)’를 선택했다. 세월의 흐름을 상징하는 주름을 잘 표현키 위해 처음부터 종이를 구긴 후 먹물을 들였다. 종이 주름에 따라 달라지는 먹의 농도와 흐름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새로이 보인다는 평이다.



황금코끼리, 이용은作

이처럼 세월의 흐름을 상징하는 주름을 모티브로 거대한 동물인 코끼리를 표현, 총 13작품을 소개한다. 특히 수묵으로 우직한 코끼리를 그리고 상아와 날개를 금박으로 장식한 ‘꽃끼리’란 작품이 눈에 띈다.

불일미술관 측은 “27살 젊은 불자 작가 이용은에게 한국화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 대한 탐구는 여전히 난공불락일지 모르나, 거대한 한국화 담론을 넘기 위해 우직한 코끼리처럼 한걸음씩 헤쳐 간다면 분명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 유망작가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를 전했다.

이용은 작가는 선화예술고를 졸업, 동국대 및 동대 대학원서 한국화를 전공했다. 2012년 인사동 토포하우스 갤러리 전시를 시작으로 2013년 대구아트페어에 최연소 작가로 참여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대구박물관, 흙에서 찾은 불상展

9월 10일까지 예천 남본리유적 출토 소조나한상 등

국립대구박물관이 ‘흙에서 찾은 불상展’을 마련한다. 2월 7일~9월 10일 진행되는 이번 테마전시에선 소조불상 4점 및 동제불상 2점이 전시된다.

소조불상은 경북 예천 남본리유적 발굴조사서 출토된 것으로, 개심사지 오층석탑(보물 제53호)서 남서쪽 15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과거 개심사 내 속한 것으로 추정되며, 소조나한상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동제불상은 경북 영양군 산해리 하천변에서 지역민에 의해 발견됐다.



예천 남본리유적 출토 소조 나한상.



영양 산해리 출토 동제 나한상.

국립대구박물관 측은 “소조불상은 점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번 전시가 우리나라 불교조각을 이해하고 제작기법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053)760-8542

박아름 기자

수제 햄머 Hammer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특징 100%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세상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동 제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장인이 손수 망치로 두들겨 만든 햄머 제품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다른 제품들과 달리 우아하고 기품이 넘칩니다. 햄머는 코팅을 하지 않은 제품으로 자연적인 색깔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항균력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진 동, 햄머 제품은 대를 이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제조과정에서 오는 스크래치나 접합부의 땜자국 등 마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햄머의 동 제품은 수작업으로 광택 정도나 수구의 모양, 크기 모두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만들 때마다 같은 빛깔을 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하오니 주문시 참고 바랍니다.

S8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S800 유광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NY900 유광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드립퍼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39,000원~~ ➜ 89,100원

스푼



스 푼 –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 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풍차 돌리는 바람 같이 힘차게 전법을…

저 절로 가는 길
④ 보현사 가는 길

강원도 대관령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 백두대간을 타고 오르는 공기가 버거운 듯 품고 있던 습기를 산에다 부려 놓는데, 그게 눈이다.

이를 알고 겨울의 초입부터 많은 등산객이 이 지역의 대관령 휴게소를 찾는다. 나와 도반들도 그런 부류였다. 나무줄기인 대관령에서 곁가지처럼 뻗어 나간 선자령(仙子嶺)에 오르기 위해서였다.

휴게소를 나와 잠시 오르막길을 걸으니 갈림길이 나왔다. 거기서 오른쪽 비탈길로 새하얗게 몸을 일으킨 산이 선자령이다. 태백-오대산으로 연결해주는 백두대간의 준령이다.

들머리를 국사성황사로 잡은 것은 범일 국사를 친견하기 위해서였다. 스님이 산신령으로 추앙받는 일은 극히 의외가 아닐 수 없다. 사당에 모셔진 범일 국사는 게다가 구산선문의 하나인 사굴산문의 종조 아니었던가. 탱화 속의 범일 국사는 활과 활통으로 무장한 채 백마를 타고 가는 무인인 동시에, 호랑이와 시종의 호위를 받는 산신령의 모습이었다.

국사성황사에서 나와 언덕길을 올랐다. 사람들이 빈번히 오르내린 탓에 단단히 다져진 눈은 발목을 덮지도 못했다. 가지가 휘도록 눈꽃을 피운 언덕은 소나무와 전나무 묘목을 심은 조림지였다. 어디쯤부턴가 눈보다 더 흰 몸피의 자작나무들이 길을 연다.

오를수록 나무들의 키가 점점 낮아졌고, 부는 바람에서도 심상찮은 기운이 느껴졌다. 사막이 설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고, 로렌 아이슬리의 문장은 여전히 불길했다. 이윽고 나이 든 수도사가 등장한 사막과 달리 눈 덮인 고원에서 한 기, 두 기 등장한 것은 풍차였다.

새봉이 가까워지자 아니나 다를까, 바람이 술취한 코끼리처럼 마구 달린다. 텅 빈 하늘이지만 바람과 바람이 오가다 맞부딪쳐 깃발 나부끼는 소리가 난다. 며칠 전 새봉에 내렸던 눈이 바람에 쓸려 일어나 가루를 뿌린다.

"좋구나, 좋아!"

고된 시련을 예고하는 눈보라에도 누군가 덩실댔지만, 우리 대부분은 샛눈을 뜨거나 고글을 모자 아래로 당겨 눈을 가리고서야 겨우 전진할 수 있었다.

선자령에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바람을 피할 길 없다. 앞에서, 혹은 옆에서 창졸간 휘몰아쳐 오는데, 대관령 목장의 탁 트인 구릉지를 지나오며 가속도가 붙은 북서풍이다. 능선의 키 작은 나무나 풀들이 동쪽으로 비스듬히 누운 것도 이 북서풍 탓이다. 몇 해 전 선자령에서 실종된 70대 노부부를 119구조대가 수습했다고 한다. 사인은 기상악화에 따른 저체온증. 오디세우스의 군대를 유혹한 사이렌이 그랬듯이 선자령의 매혹적인 풍경이 악마의 섬으로 돌변하는 건 한순간이다.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이 같은 변화무쌍한 기후에 비행기 조종사들 또한 비행주의 구간으로 긴장을 놓지 않는다.


햇빛을 되쏘는 선자령 능선길. 저 멀리 강풍에 돌아가는 풍차가 보인다.


동해바다를 바라보는 선자령 풍차

- 걷는길
  대관령 옛 휴게실 – 국사성황사 – 새봉 – 선자령 정상 – 나즌목 – 보현사
- 걷는시간
  약 7km, 4시간


범일국사 이야기가 깃든 보현사

새봉 전망대에서 해발 1157m 정상까지는 1.5㎞ 가량 떨어져 있다. 이 구간을 지나면 거센 바람이 다듬은 평원이 펼쳐지는데, 펼쳐지는 것이 어디 그뿐이랴. 발왕산, 계방산, 오대산, 황병산……. 선자령을 내려다보는 산들이 도반의 고글 안경에 펼쳐진다. 도반들을 이끌고 선자령에 오른 이 날은 강릉 시내 너머에서 동해바다까지 출렁이듯 펼쳐져 저절로 환호성을 자아냈다. 하늘과 바다가 모두 새파랬다.

그렇지만 '선자령'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은빛 설원에 어우러진 풍력발전기다. 선자령에 부는 연평균 초속 6.7m의 바람이 지름 90m에 이르는 거대한 날개를 돌린다. 이 풍력발전기를 사람들은 풍차라 부른다. 풍차, 돈키호테가 맞짱 뜨려했던 괴물이 선자령 일대에는 모두 53개나 된다.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 위에 조계종의 6조 혜능 선사가 겹쳐진다. 혜능 선사가 법성사에 머물고 있었을 때다. 당간 위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고 두 스님이 다투었다. 바람이 부는가, 깃발이 흔들리는가. 혜능 선사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바람도 깃발도 움직이지 않아. 그대들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움직이는 것이 바람이냐, 깃발이냐. 그 유명한 풍번문답(風幡問答)은 결국 유심론으로 귀착된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바람도 깃발도, 바람과 깃발의 움직임도, 마음으로 인식된 대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조차 마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인연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인연조차 끊임없이 변하는 데 있다. 있다고도 할 수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마음의 무상성! 바람과 깃발과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니, 움직이지 않은 것은 마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저 거대한 날개를 돌려 바람을 갈아내는 풍차를 보고 그저 경탄할 노릇 만이 아니다. 저 차가운 바람으로 돌아간 날개가 뜨거운 불을 활활 피워 올린다니 말이다. 이 발전기로 연간 24만mW의 전기를 생산해 5만 가구가 쓴다.

백두대간 표시석이 있는 정상을 지나 하산길을 보현사로 내려가는 선자령 느즈목으로 잡았다. 이제부터는 야생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의 발소리에 놀라 숲에서 울던 새들이 침묵했고, 이내 날개를 치고 가지를 떠날 때 눈 뭉텅이들이 퍽퍽 떨어졌다.

쌓인 눈에 길이 지워진 데다 사람이 다닌 흔적도 별로 없어 눈어림만으로 길을 찾아야 했다. 게다가 발이 푹푹 빠져 스패츠를 착용했는데도 눈이 밀려 들어왔다. 아이젠도 제 기능을 잃어 미끄러지기를 몇 차례였다. 길섶으로 잠시 발을 헛디뎠더니 허벅지까지 금세 눈이 차오른다. 가끔 얼음이 박힌 바위를 만나면 산행에 익숙한 도반이 먼저 내려가서 초보들을 받아 내렸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허위허위 산길을 내려와 두꺼운 얼음 속으로 물이 흐르는 계곡을 만났다. 지친 몸으로 걷기에는 기나긴 계곡길이었다. 사람의 발자국이 지워진 눈길도 있어 몇 차례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도 했다. 눈이 깊숙이 내리 쌓인 숲이 너무도 고요해서 혹여 보현사를 찾지 못할까 봐 슬그머니 걱정스러울 무렵이었다. 눈 덮인 나무들 사이로 선자령이 깊숙이 숨긴 풍경, 보현사가 빼꼼 지붕을 드러냈다.

보현사를 품은 선자령을 산경표에서는 대관산, 동국여지지도에서는 보현산이라고 표시한다. 보현사를 기록으로 전하는 '태고사법'은 만월산으로 적어 관세음보살의 원만한 상호를 선자령에서 찾아낸다.

신라의 낭원국사 보현이 직접 창건한 보현사는 영동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다. 보물로 지정돼 가람의 한 켠에 전해오는 낭원대사오진탑과 낭원대사오진탑비가 이를 증명한다.

보현사는 보현보살의 원력을 품은 절이다. 보현보살은 부처의 가르침을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겠다는 뜻을 지닌 보살이다. 우리나라에는 문수보살을 신봉하여 생긴 절이 오대산 상원사를 비롯하여 꽤 여러 군데지만 보현보살을 모신 절은 흔치 않기에 그 연유가 궁금했다.

강릉시 동남쪽 남항진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당도했다. 천축국에서 온 두 보살은 그곳에 문수사를 세웠다. 어느 날 보현보살이 시위를 당겼다.

"한 절에 두 보살이 있을 수 없으니, 내가 활을 쏘아 화살이 떨어진 곳을 절터로 삼아 떠나겠다."

그 화살이 떨어진 곳이 바로 이 보현사였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전설이다.

그보다 더 궁금한 게 있다. 불교국가 신라에서 국사까지 한 스님이 어째서 이 깊은 산중의 작은 절에 들었을까? 흥미롭게도 낭원 국사는 범일 국사의 제자였다. 비록 샤머니즘이기는 하나 범일 국사를 모신 국사성황사가 초입에 있으니,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선자령이 법맥처럼 잇고 있는 셈이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학, 그리고 신화를 관통하는 불교는 낭원대사오진탑비에 새겨진 비문처럼 언제나 숙제를 내놓는다. 낭원대사오진탑비에 적힌 스님의 일생은 간략하지만, 선자령의 은빛 설원처럼 빛나고 풍차처럼 뜨거웠으리라.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대북


◀ 태징


◀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오래된 폐질환, 아토피, 피부병 상담


약사불(藥師佛)
약사불은 질병을 고쳐주고 재난에서 구해주며 음식과 옷을 주는 부처로 왼손에는 약단지를 들고 있다.

대대로 세속 되어진 업과 상속 되어진 업, 음양의 부조화로 병마로부터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하여...

인간의 육체는 무상한 것이어서 의식하지 않아야 하나 중생들이 도를 깨닿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여러 겁을 지나면서 온갖 고통을 받게 된다.

오직 부처님 만이 좋은 의사가 되어 법의 약을 주시니 이 법을 받들어 정성껏 행하는 이는 병마를 이길 수 있다.

– 오문 선경 요용법 – 중에서

만병의 근원을 소멸하여 맑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 와서 행복한 삶을....

천태산 월광사
충남 공주시 의당면 비게실길 45 / 전화 010-4573-0940 사무장 올림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겨울숲

겨울숲은 고요하다.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지만 숲은 소란스럽지 않다. 흔들릴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겨울의 끄트머리, 더 이상 비울 것이 없어 보이는 숲은 오늘도 햇살 한 줌으로 제 몸을 또 비운다. 그토록 많은 겨울이 지나갔건만, 너와 나는 털 끝 하나 줄었던 적이 없으니…. 우리의 숲은 언제쯤 저 겨울숲을 닮을 수 있을까. 언제쯤 흔들릴 것이 없는 고요한 시절과 닿을 수 있을까. 코앞에 봄은 또 와있고 차가운 숲 너머에는 안타까운 부처의 그림자가 보인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④ 출가 기쁨을 외칠 수 밖에

‘바드리카’ 비구의 외침… “출가 후 자유 천지”

처음으로 스님이 된 바드리카 비구는 조용한 나무 밑에 홀로 앉아 마음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마음 속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참으로 즐겁구나! 참으로 기쁘구나!”

하고 외치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곁에서 같이 있던 스님네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초심자 도반은 밤중에 왜 소리를 지르지?”

스님들이 바드리카의 소리친 뜻을 알 리 없지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만 바드리카의 생각을 아셨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그를 불렀습니다.

“바드리카는 나무 밑, 무덤가에 있으면서 밤중에 즐겁다고 소리쳤다. 무슨 뜻인가?” 바드리카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즐겁고 기뻐서 외친 것입니다. 그 기쁨을 외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는 하인들을 시켜 저의 집 안팎을 칼과 몽둥이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키면서도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몸의 터럭이 일어났지요. 누가 와서 내 재산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무와 무덤 사이에 앉아 있으나 밤중이 되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자유 천지입니다. 기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렇구나. 너는 그런 믿음에서 출가를 했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기쁘다.”

부처님은 바드리카 비구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바드리카 비구의 출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석가족의 많은 젊은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부처님의 사촌인 아나율과 마하남 형제는 이 일을 두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허락을 얻어 마하남이 가정에 남고, 아나율이 출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쁨을 못 이긴 아나율이 친구 바드리카를 찾아갔습니다.

“나도 그 생각일세. 날마다 졸라보지만 어머니가 허락을 않으셔.”

집으로 뛰어든 바드리카가 어머니를 또 졸랐습니다.

“출가라니? 안 된다!”

어머니는 또 거절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석가족 많은 젊은이들이 출가를 하겠대요. 우리 집, 우리 형제만 남았어요.”

간청에 못이긴 어머니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아나율의 어머니께 가서 물어보아라. 아나율을 출가시킨다면 너도….”

어머니는, 아나율의 어머니가 절대로 아나율을 내 놓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나율이 저 바깥에 와 있어요, 아나율은 그의 어머님께 출가 허락을 받고 온 걸요.”

이렇게 하여 같은 석가족 아나율과 바드리카가 출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림 · 강병호

“출가를 하면 계율에 얽매이게 된다. 얼마쯤 놀이를 즐기다 입산을 하자.”

“아니야.”

“그럼 하루라도….”

이리하여 출가를 결심한 석가족 청소년들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비라국 왕손이었습니다. 아나율, 바드리카, 난디(難提), 쿰빌라(金毘羅), 난다(難陀), 발난타(跋難陀), 아난이 모였습니다. 아난은 아직 열 살이 못 된 소년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말썽꾸러기 데바닷다도 끼어 있었습니다. 석가족 청소년은 모두 여덟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코끼리와 말을 타고 놀이동산으로 나섰습니다. 여기에 수타족 우바리가 따랐습니다. 우바리는 석가족 청소년의 머리를 깎아 주는 이발사였습니다.

놀이를 마친 석가족 젊은이들은 보배 의복과 몸을 꾸몄던 영락을 거두고, 타고 온 말과 코끼리를 모아서 가난뱅이 이발사 우바리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발사 우바리 님. 그동안 우리 몸을 단정히 꾸며주시느라 수고 하셨소. 우리는 출가를 결심한 몸이니 이 모두가 필요 없게 되었지요. 우바리 님이 가지시오.”

가난뱅이 이발사가 받은 재산은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금방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얻은 우바리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왕손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려고 출가를 하시는데, 왕손님들을 의지해 왔던 이 이발사가 혼자 남아 재산을 지닌들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이발사도 왕손님들과 같이 출가하겠습니다!”

우바리는 얻은 보배 영락과 보배 의복을 여러 개 보자기에 싸서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왕손의 놀이를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배 영락과 보배 의복이 있습니다. 원하는 분들은 나누어 가지시오. 여기 이 코끼리, 말도 나누어 가지시오!”

얻은 재산 모두를 흩어버린 이발사 우바리는 석가족 청소년을 따라 나섰습니다.

젊은이 일행은 부처님께 가서 머리 숙여 발아래에서 예배를 올리고 한 쪽에 물러서서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들 아홉에게 계를 내리시고, 우바리를 가장 윗자리에 앉혔습니다. 이제 이들은 비구 스님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석가족 젊은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들 출가한 아홉 중 우바리는 계율을 잘 지켜서 부처님 10대제자 중에서 지계제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난은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들어서 다문제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나율은 천안통을 얻어, 천안제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드리카는 이름 없는 제자가 된 것이 더욱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분률(四分律)제3권〉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 × 145㎝ 가정용 45 × 110㎝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만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십장생이 들어간

16나한도 (18나한) 달마도 족자

작품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 길이 : 120㎝ × 폭 54㎝ | ■ 가격 : 각 100,000원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지입니다. 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연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합니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 분 한 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이 영원한 수호신을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 16나한도를 구입하시면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드립니다.



16나한도



달마도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